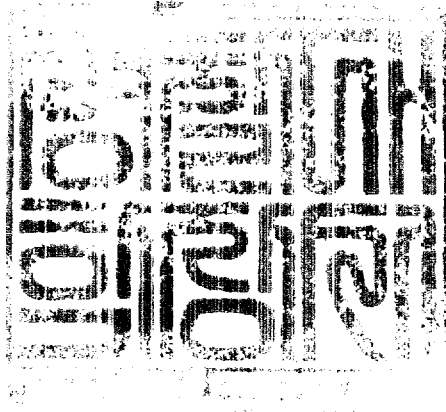


研究報告書 96-17

학교주변 폭력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연구 : 김준호(덕성여대 교수)
김선애(상명대 강사)

000173



본 연구보고서는 치안정책용역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최종보고서로서, 게재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21
제 1 절 문제의 제기	21
제 2 절 이론적 배경	23
1. 가해자 중심 이론	24
2. 피해자 중심 이론	28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31
제 2 장 연구방법 및 절차	34
제 1 절 연구대상	34
제 2 절 척 도	35
1. 학교주변 폭력실태 측정	35
가. 금품갈취	36
나. 폭행	37
다. 괴롭힘	38
2. 생활양식 측정	39
3. 신고 정도와 신고의식	41
4. 폭력에 대한 태도	41
5. 학교주변 폭력 예방방안	42
6. 배경변인	42
제 3 절 연구절차	43
1. 조사기간과 조사방법	43
2. 자료분석	43
제 3 장 연구결과	45
제 1 절 학교주변 폭력 피해 실태	45
1. 금품갈취	46

가. 피해경험	46
나. 피해상황	52
다. 가해자 특성	58
2. 폭행	70
가. 피해경험	70
나. 피해상황	76
다. 가해자 특성	80
3. 괴롭힘	89
가. 피해경험	89
나. 피해상황	93
제 2 절 신고	98
1. 타인인지상황	98
2. 타인에 대한 보고여부	102
3. 신고와 예방에 대한 태도	107
가. 신고	107
나. 예방	110
제 3 절 피해의 원인	113
1. 생활 양식	113
2. 피해자의 비행 성향	117
3. 가정, 학교, 친구	120
제 4 절 가해의 원인	124
1. 가해의 실태	126
2. 생활 양식	128
3. 폭력에 대한 태도	130
4. 가정, 학교, 친구	131
제 5 절 피해와 가해	134
1. 유형별 실태	135
2. 유형별 특성	139
제 4 장 결론과 대책	144

1. 청소년비행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장기적 대책	147
2. 학교주변 폭력 발생 상황과 단기적 대책	152
3. 가해학생 선도	164
참고문헌	168
부 록	170

표 목 차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수분별 분포	35
〈표 2〉 학교주변 폭력 피해율	45
〈표 3〉 금품갈취 피해율	46
〈표 4〉 금품갈취 중복피해 횟수	47
〈표 5〉 학교형태와 금품갈취 피해율과의 관계	48
〈표 6〉 학교소재지와 금품갈취 피해율과의 관계	48
〈표 7〉 신장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 : 초등학교	49
〈표 8〉 신장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 : 중학생	49
〈표 9〉 신장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 : 고등학생	49
〈표 10〉 체중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 : 초등학교	50
〈표 11〉 체중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 : 중학교	51
〈표 12〉 체중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 : 고등학교	51
〈표 13〉 빼앗긴 돈의 액수	52
〈표 14〉 빼앗긴 물건의 액수	53
〈표 15〉 금품갈취 피해 장소	55
〈표 16〉 금품갈취와 피해요일	57
〈표 17〉 금품갈취와 피해시간	57
〈표 18〉 금품갈취 가해자 음주 여부	58
〈표 19〉 금품갈취 가해자 흉기 소지 여부	59
〈표 20〉 가해자의 폭력씨클 가입 여부	60
〈표 21〉 금품갈취 가해자 동일인 여부	61
〈표 22〉 금품갈취 가해자 수	62
〈표 23〉 금품갈취 가해자 성별 : 1명일 경우	63
〈표 24〉 금품갈취 가해자 성별 : 2명 이상일 경우	63
〈표 25〉 금품갈취 가해자 신분 : 1명일 경우	64
〈표 26〉 금품갈취 가해자 신분 : 2명 이상일 경우	67

〈표 27〉 금품갈취 가해자의 면식정도 : 1명일 경우	68
〈표 28〉 금품갈취 가해자의 면식정도 : 2명 이상일 경우	69
〈표 29〉 금품갈취 가해자 친숙정도 : 2명 이상일 경우	70
〈표 30〉 폭행 피해율	70
〈표 31〉 폭행 중복피해 횟수	71
〈표 32〉 학교형태와 폭행 피해율과의 관계	72
〈표 33〉 학교소재지와 폭행 피해율과의 관계	72
〈표 34〉 신장과 폭행 피해와의 관계 : 초등학교	73
〈표 35〉 신장과 폭행 피해와의 관계 : 중학교	73
〈표 36〉 신장과 폭행 피해와의 관계 : 고등학교	73
〈표 37〉 체중과 폭행 피해와의 관계 : 초등학교	74
〈표 38〉 체중과 폭행 피해와의 관계 : 중학교	75
〈표 39〉 체중과 폭행 피해와의 관계 : 고등학교	75
〈표 40〉 폭행 피해 정도	76
〈표 41〉 폭행 피해 장소	77
〈표 42〉 폭행과 피해요일	79
〈표 43〉 폭행과 피해시간	80
〈표 44〉 폭행 가해자 음주 여부	80
〈표 45〉 폭행 가해자 흥기 소지 여부	81
〈표 46〉 가해자의 폭력써클 가입 여부	81
〈표 47〉 폭행 가해자 동일인 여부	82
〈표 48〉 폭행 가해자 수	83
〈표 49〉 폭행 가해자 성별 : 1명일 경우	83
〈표 50〉 폭행 가해자 성별 : 2명 이상일 경우	84
〈표 51〉 폭행 가해자 신분 : 1명일 경우	85
〈표 52〉 폭행 가해자 신분 : 2명 이상일 경우	86
〈표 53〉 폭행 가해자의 면식정도 : 1명일 경우	87
〈표 54〉 폭행 가해자의 면식정도 : 2명 이상일 경우	88
〈표 55〉 폭행 가해자 친숙정도 : 2명 이상일 경우	88
〈표 56〉 괴롭힘 피해율	89

〈표 57〉 학교형태와 괴롭힘 피해율과의 관계	90
〈표 58〉 학교소재지와 괴롭힘 피해율과의 관계	90
〈표 59〉 신장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 : 초등학교	91
〈표 60〉 중학생의 신장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 : 중학교	91
〈표 61〉 고등학생의 신장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 : 고등학교	92
〈표 62〉 체중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 : 초등학교	92
〈표 63〉 체중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 : 중학교	92
〈표 64〉 체중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 : 고등학교	93
〈표 65〉 괴롭힘 피해 형태	94
〈표 66〉 괴롭힘 피해반복 정도	96
〈표 67〉 괴롭힘 피해정도	97
〈표 68〉 피해경험과 타인인지여부	98
〈표 69〉 피해경험과 타인인지상황	99
〈표 70〉 타인인지시기	100
〈표 71〉 타인인지원인	101
〈표 72〉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	102
〈표 73〉 선생님께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	104
〈표 74〉 경찰에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	106
〈표 75〉 신고에 관한 태도	107
〈표 76〉 예방에 관한 태도	110
〈표 77〉 생활 양식과 범죄 피해 : 초등학교 남학생	114
〈표 78〉 생활 양식과 범죄 피해 : 초등학교 여학생	115
〈표 79〉 생활 양식과 범죄 피해 : 중고등학교 남학생	115
〈표 80〉 생활 양식과 범죄 피해 : 중고등학교 여학생	116
〈표 81〉 비행 성향과 범죄 피해 : 초등학교 남학생	118
〈표 82〉 비행 성향과 범죄 피해 : 초등학교 여학생	118
〈표 83〉 비행 성향과 범죄 피해 : 중고등학교 남학생	119
〈표 84〉 비행 성향과 범죄 피해 : 중고등학교 여학생	120
〈표 85〉 가정환경, 성적과 범죄 피해 : 초등학교 남학생	121
〈표 86〉 가정환경, 성적과 범죄 피해 : 초등학교 여학생	121

〈표 87〉 가정환경, 성적과 범죄 피해 : 중고등학교 남학생	122
〈표 88〉 가정환경, 성적과 범죄 피해 : 중고등학교 여학생	123
〈표 89〉 금품갈취 가해 경험 : 전체	126
〈표 90〉 폭행 가해 경험 : 전체	127
〈표 91〉 생활 양식과 폭력 가해 : 초등학교 남학생	128
〈표 92〉 생활 양식과 폭력 가해 : 초등학교 여학생	129
〈표 93〉 생활 양식과 폭력 가해 : 중고등학교 남학생	130
〈표 94〉 생활 양식과 폭력 가해 : 중고등학교 여학생	130
〈표 95〉 폭력에 대한 태도와 폭력 가해 :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131
〈표 96〉 주위 환경과 폭력 가해 : 초등학교 남학생	132
〈표 97〉 주위 환경과 폭력 가해 : 초등학교 여학생	132
〈표 98〉 주위 환경과 폭력 가해 : 중고등학교 남학생	133
〈표 99〉 주위 환경과 폭력 가해 : 중고등학교 여학생	133
〈표 100〉 금품갈취 피해-가해 유형	136
〈표 101〉 폭행 피해-가해 유형	137
〈표 102〉 금품갈취, 폭행 피해-가해 유형	138
〈표 103〉 생활 양식과 피해-가해 유형 :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140
〈표 104〉 비행 성향과 피해-가해 유형 :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141
〈표 105〉 주위환경과 피해-가해 유형 :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142
〈표 106〉 폭력에 대한 태도와 피해-가해 유형 :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142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 및 유형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표본설계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고 초등학교는 2학교, 중학교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으로 3학교, 고등학교는 남학교, 여학교, 실업계 남녀 고등학교로 4학교를 선정하여, 총 18개 학교에서 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4학년 이상만을 표본에 포함시켜 1996년 5월 한 달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 808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각 이론에서 주장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관심은 가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사회적 환경을 살펴봄으로서 원인을 알아보고자 기존의 이론에서부터 가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가정, 학교, 친구로 크게 나누어 접근하였고, 피해자에 관련된 요인은 주로 일상생활 이론과 유인성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근접성과 동일집단 이론에 착안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른 집단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교차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주변 폭력 피해 실태

가. 금품갈취 피해 실태

1) 금품갈취 피해 정도

지난 일년 동안 금품갈취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율은 전체 표본 중의 21.9%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50명을 한 반으로 보았을 때, 한 반에서 약 10여명

정도의 학생이 타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품갈취 피해율은 남자 중학생(41.3%) > 남자 초등학생(39.7%) > 남자 고등학생(21.3) > 여자 중학생(14.2%) > 여자 초등학생(12.8%) > 여자 고등학생(7.0) 순으로 나타났다.

2) 금품갈취 피해 정도

빼앗긴 돈의 액수는 피해자의 약 66% 가량정도가 4000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빼앗긴 물건의 액수도 4000원 미만인 경우가 약 55%에 이른다.

3) 금품갈취 피해 장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금품갈취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피해 학생 중의 24.8%가 이 곳에서 금품갈취를 당한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소는 학교 근처 골목길(12.1%)이며, 그 다음은 교실안(11.5%)이다. 여기에 학교 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7.3%)과 학교 화장실(1.8%)의 비율까지 합하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금품갈취의 비율은 20.6%에 해당하여, 학교 내 폭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4) 금품갈취 피해 시기

주말이나 공휴일보다는 주중, 즉 평일에 금품갈취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6.9%), 하교길에서의 피해율이 총 57.8%에 이르러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금품갈취에 많이 노출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두드러져 피해를 입은 학생의 82.6%가 하교길에서의 피해를 보고하고 있다.

나. 폭행 피해 실태

1) 폭행 피해 정도

전체적으로 볼 때 표본의 15.5%가 폭행 피해율을 보고하고 있어, 50명이 한 반일 때 50명 중 3.2명 꼴로 지난 일년 동안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폭행 피해 정도

전반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약 64%가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에 갈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도 폭행 피해자의 8.5%이며,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는 경우가 피해자의 약 36%에 이른다.

3) 폭행 피해 장소

전반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피해장소는 주택가 골목길(17.6%) > 교실 안(16.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을 합하면(교실 안, 학교 화장실, 학교 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 30%에 이른다. 이것은 폭행의 약 1/3이 학교 내에서 발생함을 의미한다.

4) 폭행 피해 시기

폭행 피해의 약 68%가 평일에 발생하며, 학교 길에서 반 수 가량이 피해를 입는다. 또한 학교에 있는 동안에 폭행을 당하는 비율도 22.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괴롭힘 피해 실태

1) 괴롭힘 피해 정도

괴롭힘의 피해율은 전체적으로 17.4%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남녀를 불문하고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피해율을 보여(남학생 : 28.6%, 여학생 : 27.2%), 괴롭힘이라는 유형의 폭력이 초등학교에 만연되고 있는 폭력의 한 형태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괴롭힘 피해 형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형태의 괴롭힘은 45.8%의 '공연히 툭툭 치며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 순위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놀림(40.7%)'의 형태가 차지했다. 따라서 피해 학생들은 가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툭툭칩을 당하거나 놀림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신고

가. 타인인지상황

학교주변 폭력을 당했을 경우 응답자의 약 76%가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친구(75.3%)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모님(약 39%), 형제(21.5%)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생님과 경찰의 인지도는 극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타인이 알게된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말해서 타인이 알게 됐다는 경우가 61.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피해를 당할 때 친구와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16.5%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 자연히 알게 된 경우와 물어봐서 말했다는 경우가 비슷한 정도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타인에 대한 보고 여부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첫째,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둘째, 뒤이은 보복에의 두려움이며, 셋째,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려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부모가 제시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생님께 이야기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로는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와 동일하게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48.4%), 다음으로는 알려봤자 교사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20.8%), 보복을 당할까봐도 19.8%로 세 번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도 약 반수 정도가 피해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보복을 당할까 봐(17.4%) >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16.9%) 이다.

다. 신고와 예방에 대한 태도

신고를 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조건은 '해결 여부'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고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보복이 없다면 신고할 것이다'인 것으로 나타나,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율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남에게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어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것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예방방안에 대한 태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평가받은 항목은 '경찰의 도움'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주변을 순찰한다면 학교주변 폭력에 예방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제도적인 면에 해당하는 경찰의 신고전화나 학교의 신고함 설치는 현실적으로 학교주변 폭력 예방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해의 원인

가. 생활양식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사이에는 그다지 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옷차림과 관련된 범죄피해가 많으나 괴롭힘의 경우와 폭행의 경우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관정도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설명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아울러 우범지역 통과 여부는 여학생에게는 관련이 있으나 남학생에게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보호능력은 주로 여학생의 범죄피해를 설명하여 주는 요인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비행성향

급뎀갈취와 괴롭힘은 본인의 비행 성향과 관련이 없으나, 폭행은 상당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본인의 비행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폭행을 당할 확률이 높으며 그 정도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폭행의 경우에는 비행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다른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불량 학생이 힘이 약한 선량한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부연하면, 폭행은 동일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비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 가정, 학교, 친구

생활양식 관련 변인을 보면 남학생은 옷차림, 여학생은 옷차림과 우범지역 통과여부, 동반 여부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 여학생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나,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상관이 나타난 변인이 조금 많아 금품갈취와는 저녁외출빈도, 폭행과는 우범지역 통과여부, 옷차림 등이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옷차림이 화려하고 저녁외출을 자주 하거나 우범지역을 등하교길에 통과하는 학생들이 금품갈취와 폭행의 피해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상관성의 정도가 그다지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비행성향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관계가 없었으나 중고등학교는 남녀 모두 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강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피해와 가해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가정환경을 위시한 주위환경과 범죄피해 사이에서도 그다지 강한 관계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남녀 모두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중고등학교에서도 비행친구와 성적만이 남학생의 폭행 피해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학생은 가정의 수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괴롭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요인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 가해의 원인

가. 가해의 실태

전체 학생의 91.2%가 금품갈취의 경험이 없으며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서도 대부분은 한두번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금품갈취 유형은 소수의 가해자와 다수의 피해자간에 일어나는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체로 보면 10% 미만의 학생에게 20%에 달하는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폭행의 경우는 금품갈취와는 달리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아 전체의 50%가 넘는다. 초등학교 남학생의 75%가 경험이 있으며, 남자 중학생은 55%, 남자 고등학생의 62%가 남을 때려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초등학생은 57%가 되나 이 비율은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25% 정도의 여학생이 남을 때려 본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나. 생활양식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용돈을 많이 쓰며, 저녁외출을 자주 하거나 우범지역에 자주 드나드는 학생이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에서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폭행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폭행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생활양식을 갖는 집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거부하며 긍정적인 태도는 수용하는 학생이 학교 주변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가정, 학교, 친구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가해경험과 가정, 학교, 친구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으나, 중고등학생에서는 매우 강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정 관련 변인 중 구조적인 측면(가정의 수입, 결손가정 여부)보다는 기능적인 측면(부모의 감독)이 가해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성적과 가해 사이의 관계는 성적이 나쁘면 나쁠수록 가해를 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소외된 학생들이 비행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비행친구를 사귀거나 불량집단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가해 학생이 될 가능성 역시 높았다.

5. 피해와 가해

가. 유형별 실태

1) 금품갈취

전체 표본에서 금품갈취의 피해나 가해 모두 경험이 없는 비율은 57.7%로 나타났다으나 성별, 학교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고등학교가,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의 비율이 낮다. 특히 남학생의 60% 정도는 금품갈취의 피해나 가해 중 하나 혹은 둘 다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교 여학생은 거의 피해만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중고등학교 남학생은 피해만 받은 학생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가해"만 그리고 "피해-가해" 모두 경험한 비율도 각각 7.4%, 9%로 나타나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와 가해의 교차 비율은 피해를 받은 학생 339명 중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39명으로 약 13%에 불과하나 가해 경험이 있는 81명 중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39명으로 약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폭행

학교주변 폭력 중 금품갈취보다는 폭행에서 가해와 피해가 교차되는 비율이 조금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금품갈취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3) 금품갈취-폭행

중고등학교 남학생 중 피해나 가해의 경험 중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학생의 비율은 63%로, 학교주변 폭력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비율이 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남학생에 있어서 가해와 피해가 교차되는 비율은 매우 높다. 가해자의 과반수가 피해 경험이 있는 반면에 피해자의 1/4 정도가 가해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나. 유형별 특성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범죄의 피해-가해 유형은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4가지 유형에서 모두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가해" 유형과 "피해-가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이 거의 동일한 특성을 보이며 "없음"과 "피해"만 경험한 집단이 유사한 생활양식을 보인다. 즉 학교주변 폭력 피해 사례에는 상이한 두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한 집단은 피해나 가해 경험 모두 없는 집단과 성격이 유사한 "피해"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가해" 집단과 성격이 유사한 "피해-가해" 집단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성향과 관련 변인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태도(폭력의 부당성)와 긍정적 태도(폭력의 효율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네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가해" 집단이며, 그 다음으로 "피해-가해"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는 "피해-가해" 집단이 가장 높으며, "피해" 집단이 그 다음으로 "가해" 집단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피해-가해" 집단이 "피해" 집단과는 유사성이 거의 없는 반면에 "가해" 집단과 유사할 뿐 아니라, 여러 변인에서 "가해" 집단보다도 더 비행적인 특징을 보여준다는 사실과, 아울러 "피해" 집단은 피해나 가해가 모두 없는 "없음" 집단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대책은 광의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학교주변 폭력을 위시한 청소년 비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만들 수도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만을 모색한다면 그 동안 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 예방책도 동시에 세워야 한다. 학교주변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찾아내어 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 역시 장기적 대책만큼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경

찰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단기적인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학교 안이나 주변의 폭력 또는 금품갈취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여러 범죄들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큰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최근 여러 매스컴에서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는 대통령이 직접 관계 부처 장관에게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것을 지시하게 이르렀다.

학교 주변에서 불량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싸움을 하는 등 학교 주변의 폭력은 비단 요즈음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에서 금품을 갈취 당한 학생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학생,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 심지어는 자살에 이른 사건도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학생들이 당하는 범죄피해를 더이상 방지할 수 없는 지경에서 그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공식 통계 자료와 학술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청소년비행과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비행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범죄가 집계된 1963년이래 전체범죄에 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전후로 그다지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청소년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며 성인범죄의 증가율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1970년대에 비하여는 약 2배정도 증가하였다. 성인범죄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흉포화가 청소년범죄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폭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간주되는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에서 청소년범죄자가 차지하

는 비율을 보면 심각할 정도로 우려된다. 살인의 경우에는 약 30% 정도이며, 강도와 강간의 50-60% 정도가 청소년층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전체범죄의 약 10% 정도가 청소년범죄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청소년 강력범죄가 전체 청소년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아 성인에 비하여 약 5배 정도나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미루어 볼 때, 청소년비행의 문제점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질적인 흉포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인 요즈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주변 폭력일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1년에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 1년 간 폭행, 협박, 금품갈취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남자 중학생은 거의 60%, 남자 고등학생은 약 50%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남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여학생들도 남학생보다는 적으나 평균 15%의 중고등학생이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성비행 피해(가벼운 성추행 포함)를 합하면 남자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 상담전화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폭력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확산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상급생이 후배를 심하게 구타하는 경우도 신고되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 학교주변 폭력의 심각성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1)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이기는 하나 1991년에 실시된 조사이다. 지난 5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료로서의 가치가 조금 의심된다.

2) 학교주변 폭력의 유형화가 상당히 단순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동 연구보고서에서는 금품갈취, 폭행, 협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나,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상당자료를 보면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은 소위 “이지메”로서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괴롭히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금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금품보다는 각종 심부름, 놀림, 구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지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상담전화를 보면 학교 주변 폭력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동 보고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조사되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4)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동 연구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그러한 한계 때문에 이론적 논의에 치우친 감이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 제시는 미흡한 수준에서 개진되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 1) 학교주변 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이론을 통해 연구 모형을 설정한다.
- 2)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학교주변 폭력의 유형에 대한 모형을 수립한다.
- 3) 이러한 유형을 중심으로 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학생을 대상으로한 서베이를 실시한다.
- 4) 이 두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대책, 특히 경찰에서 주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2 절 이론적 배경

학교주변 폭력은 청소년범죄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보면 학교주변 폭력은 주로 피해자학과 피해자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주된 이유는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해자 중심 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학에 입각한 이론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학교 주변에서 어떠한 청소년들이 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지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상담전화를 보면 학교 주변 폭력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동 보고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조사되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4)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동 연구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그러한 한계 때문에 이론적 논의에 치우친 감이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 제시는 미흡한 수준에서 개진되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 1) 학교주변 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이론을 통해 연구 모형을 설정한다.
- 2)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학교주변 폭력의 유형에 대한 모형을 수립한다.
- 3) 이러한 유형을 중심으로 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학생을 대상으로한 서베이를 실시한다.
- 4) 이 두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대책, 특히 경찰에서 주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2 절 이론적 배경

학교주변 폭력은 청소년범죄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보면 학교주변 폭력은 주로 피해자학과 피해자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주된 이유는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해자 중심 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학에 입각한 이론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학교 주변에서 어떠한 청소년들이 왜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피해자 조사 결과만으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이며,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학교 폭력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상당수의 피해자는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학교 주변 폭력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기존 이론적 관점을 가해자와 피해자 두 관점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1. 가해자 중심 이론

청소년 비행이론의 일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이론들이 뉴욕과 시카고 소재 대학에서 발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인 뉴욕과 중서부의 신흥 도시인 시카고에서 청소년 비행을 포함한 범죄 문제가 가장 심하였다. 뉴욕 소재 칼럼비아 대학교의 Merton이 발표한 아노미이론(Merton, 1943)과 시카고 대학의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Sutherland, 1947)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태동되었으며, 그 후 청소년 비행 이론은 이 두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에 등장한 Cohen의 비행 하위문화이론(Cohen, 1955)을 위시한 다양한 하위문화이론은 1960년대의 지배적인 이론들은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접촉이론을 통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 후 Matza의 중화이론(Matza, 1964)은 이러한 하위문화이론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여 낙인이론(Lemert, 1951; Becker, 1963)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1969년 Hirsch의 사회유대이론(Hirsch, 1969)이 등장하면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다양한 이론이 발표는 되었으나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이론적 시각은 발표되지 않았고 이러한 이론들을 통합하려는 시도와 새롭게 해석·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은 좁은 의미에서 발전적인 시각에서 볼 수 없다. 즉 하위문화 이론이 아노미이론과 차별적 접촉이론을 뛰어넘었다기 보다는 두 이론에 입각한 새로운 이론이라고 보아야 한다. 환언하면 하위문화이론이 출현한 후에 아노미이론이 설명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위문화이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아노미이론과 차별적 접착이론에 더해진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은 간단히 소개하는 동시에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 나라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적합성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대부분의 범죄이론은 “가난 — 범죄”라는 전통적인 편견에서 출발하였다. 아노미이론과 차별적 접착이론 역시 왜 가난한 사람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이론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가난과 범죄 사이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구조기능론의 대부인 Parsons의 수제자이며 구조기능론을 완성시킨 Merton은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가난과 범죄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Merton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기둥을 문화구조와 사회구조라는 개념으로 재정리한다. 가치와 규범과 같이 사람들의 의식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요소를 문화구조로, 지위나 역할과 같이 사회의 위계 서열을 사회구조로 파악하였다. 문화구조는 그 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규정하는 반면에 사회구조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비교적 안정된 사회에서는 문화구조와 사회구조 사이에 괴리가 없으나 안정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두 구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특히 위계 서열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괴리를 더욱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를 Merton은 아노미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적 성공 즉 부의 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물질적 성공은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훌륭한 교육을 받아 좋은 직장을 얻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물질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하층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자는 되고 싶으나 부자가 될 합법적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아노미를 체험하게 되며, 그 결과 비합법적 방법으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게 되며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노미이론의 핵심인 것이다.

한편 Sutherland은 가난—범죄 사이의 관계를 Merton보다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가난한 지역에는 범죄를 조장하는 문화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다. 또한 인간의 행동은 그것이 정상적인 행동이건 일탈적인 것이건 간에 모두 학습된다고 가정한다면, 가난한 지역의 이러한 문화가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된다. 상식적으로 보여지는 차별적 접촉이론의 핵심은 학습되는 내용에 있다. 범죄의 기술도 물론 학습되나 더 중요한 것은 범죄에 대한 태도 및 가치를 배우는 점에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나 가치, 즉 법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가치나 태도를 배우게 되는 상황을 서더랜드는 주로 친밀한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간접적인 상황은 학습의 장이 아니라고 보았다. 범죄는 친밀한 집단내의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에 대한 허용적인 가치가 전달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이론이라 볼 수 있다.

Cohen을 비롯한 학자들이 Merton의 아노미이론과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에서 다양한 하위문화이론(Cohen, 1955; Cloward & Ohlin, 1960)이 출현하였다. Cohen의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범죄 및 비행은 학습된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차별적 접촉이론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왜 가난한 지역에 하위문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족을 아노미이론으로 보완하려 하였다.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은 중산층의 문화가 지배적인 미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획득하기가 힘들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행하위문화란 중산층 문화에 대한 반동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 문화와는 대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중산층 문화에서 규율과 준법 정신을 강조한다면, 비행하위문화에서는 법위반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아노미라는 구조적 기회의 불균형 이외에 하위문화에서의 비행가치의 습득을 모두 비행의 원인으로 상정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차별적접촉이론은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있어 대표적인 고전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시각의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낙인이론(Lemert, 1951; Becker, 1963)과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이 그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 두 이론은 앞에서 제시한 이론들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첫째, 이 이론들은 비행의 원인을 설명

하는 원인론의 입장에 반대한다. 특히 기존의 이론들이 비행소년과 정상소년간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려했던 것과는 달리 그 차이를 부정한다. 둘째는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비행의 과정이라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보다 강조하고 집단의 차이보다는 개인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낙인이론은 행위자에 대한 낙인부여가 비행소년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누구나 우연한 기회에 사소한 일탈의 가능성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일탈이 범죄로 규정되고 그 행위자에 대해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주어지게 되면 그 행위자는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즉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비행소년과 정상소년은 범죄성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 다만 비행소년으로서의 주위의 낙인부여의 차이가 비행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낙인이론가들에 따르면 체포나 처벌 그리고 비행자로서로서의 낙인은 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중산층보다는 하류계층의 소년들이 범죄자로 더욱 남게 된다고 본다. 또한 그들에게 비행소년으로서 낙인이 부여되면 비행소년으로서의 자아가 형성되어 비행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Hirsch에 의해 제시된 사회통제이론(혹은 사회유대이론) 또한 정상소년과 비행소년은 비행성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일탈 및 비행성향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비행성향 혹은 비행동기는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즉 비행의 원인보다는 비행성향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떠한 이유로 비행을 안하게 되는 가라는 동조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비행성향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사회에의 유대를 그 원인으로 본다. 즉 어떠한 개인이 사회에의 유대가 강하면 비행성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비행을 안하게 되지만 그 유대가 약하게 되면 비행성향을 통제할 수가 없어 자연적으로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사회유대로 청소년의 사회화에 있어 중요한 가정, 학교, 친구와의 유대를 강조한다. 결국 청소년이 비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정, 학교, 친구와의 유대가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이론들을 요약하여 본다면 결국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청소년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가장 거시적인 맥락에서

설명한 이론은 아노미 이론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회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원하는 지위를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성취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어 비행과 범죄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곧 아노미 이론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차별적 접촉이론은 이러한 범죄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열악한 빈민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빈민가에 만연되어 있는 범죄 우호적인 가치를 친밀한 집단 즉 친구들을 통해 배울 기회가 많아 범죄소년이 된다는 것이다. 여러 하위문화 이론은 결국 아노미이론과 차별적 접촉이론을 나름대로 종합하여 일탈을 합리화시켜 주는 가치가 청소년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허쉬의 통제이론 역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였다고는 하나, 가정, 친구, 학교 등 전통사회 가치를 전달하는 친밀한 사람들과 애착(attachment) 정도가 곧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아주는, 즉 통제하는 기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정상적이 부모 밑에서 자라나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청소년은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적으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아노미 이론), 부모와의 관계 역시 열악하고(통제이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해(통제이론),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문제 학생들과 어울리면서(차별적 접촉이론), 일탈가치를 수용하여(하위문화이론) 사소한 비행으로부터 시작하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공식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비행소년이라는 낙인 때문에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 곧 낙인이론인 것이다.

2. 피해자 중심 이론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사회병리학적 기초 위에서 전개되었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범죄라는 사회 병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의학의 대상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듯이 범죄에 대한 학문적 관심 역시 가해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가해자

의 어떠한 특성이 범죄에 빠져들게 만드는가에 대한 관심은 가해자의 생물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성격적 특성은 물론이며 가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등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아직 모색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학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의학에서도 발견된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병을 유발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하더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병에 필요조건은 되어도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과 더하여 병에 걸린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병에 대처한다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예방의학이 발전되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되었다. 1948년 Hentig 교수의 기념비적 저작이래(Hentig, 1948), 피해자학은 범죄학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고, 오늘날에는 가해자 중심 범죄학과 더불어 범죄학의 중요한 분과로 인식되어 다양한 이론이 출현하였다. 피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이건 비난하는 입장이건 간에 피해자학은 범죄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는 인식 하에서 다음의 4가지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첫째는 범죄와의 근접성(proximity to crime)으로서 범죄 다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와 물리적 거리가 근접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어쩌면 상식적인 가정인 것이다. 둘째는 범죄에 대한 노출(exposure)이다. 노출이란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해자가 쉽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야간에 우범지역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높은 것은 피해자가 범죄에 그만큼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셋째는 표적의 유인성(target attractiveness)이다. 유인성이란 범죄 가해자가 범죄 대상자를 선택할 때 쉽게 그러나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높은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가의 보석목거리를 걸고 다니는 사람이 절도나 강도의 피해자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아울러 남자보다는 여자가, 성인보다는 어린이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역시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범죄의 성공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능력(capable guardianship)을 들고 있다. 보호능력이란 범죄에 대한 예방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능력과 물리적 능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인 능력은 가족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여러 명의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피해 가능성이 높다. 물리적 능력이란 방범시설이 잘 갖추어진 집이나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 피해가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비가 있는 아파트의 절도율이 경비가 없는 연립주택보다 절도율이 낮은 것은 범죄에 대한 보호능력이 높기 때문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4가지 관점에서 현대의 피해자학은 발전되었다. 범죄의 근접성에 기초한 이론은 동일집단 이론(the equivalent group theory)과 근접성 이론(proximity theory)으로 구체화되었다. 근접성이론이 가해자-피해자간의 물리적 거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동일집단 이론은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에도 관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많은 경우에 같은 집단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힘이 센 악당이고 피해자는 선량하나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 범죄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피해만 당하던 학생이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슷한 학생들끼리 어울리다가 싸움이 일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불량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학생은 모범생보다는 불량학생인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가해자가 흑인일 경우에 피해자가 백인보다는 흑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즉 흑인과 흑인은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흑인이 많다면 피해자 역시 흑인이 많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Sengstock(1982)의 상호작용이론 (social interaction theory) 역시 사회적 근접성과 동일집단 이론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상호작용 이론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밀접한 상호작

용 속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출과 취약성에 기초한 이론은 일상생활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과 생활양식 이론(life style theory)으로 발전되었다. Hindelang(1978)에 의해 발전한 생활양식이론과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생활 이론은 유인성과 보호능력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생활양식에 따라 범죄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밤늦게 다니는 사람, 우범지역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 등은 범죄에 대한 노출이 높으며, 비싼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역시 잠재적 가해자에게 그만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생활양식이 범죄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고려한 이론으로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성공 가능성은 높으며 기대되는 보상은 높은 표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Miethe & Meier, 1990).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보호능력을 포함하여 유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이론이라 볼 수 있다.

피해자학에 기초한 이상의 이론이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는 있으나 모든 요소를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가해와 피해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 실태와 원인에 대한 망라적인 연구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교주변 폭력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두었다.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사상누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실태만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용 속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출과 취약성에 기초한 이론은 일상생활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과 생활양식 이론(life style theory)으로 발전되었다. Hindelang(1978)에 의해 발전한 생활양식이론과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생활 이론은 유인성과 보호능력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생활양식에 따라 범죄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밤늦게 다니는 사람, 우범지역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 등은 범죄에 대한 노출이 높으며, 비싼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역시 잠재적 가해자에게 그만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생활양식이 범죄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고려한 이론으로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성공 가능성은 높으며 기대되는 보상은 높은 표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Miethe & Meier, 1990).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보호능력을 포함하여 유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이론이라 볼 수 있다.

피해자학에 기초한 이상의 이론이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는 있으나 모든 요소를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가해와 피해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 실태와 원인에 대한 망라적인 연구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교주변 폭력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두었다.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사상누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실태만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것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론을 기초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각 이론에서 주장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숲은 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연구가 매우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보다는 숲을 파악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포괄적인 접근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관심은 가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사회적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원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에서부터 가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가정, 학교, 친구로 크게 나누어 접근하였다. 가정은 다시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구조적인 측면이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다 초점을 맞추었다. 즉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모의 교육 정도가 비교적 낮은 가정 출신의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았다. 한편 기능적 측면은 주로 부모-자녀 관계에 관심을 둔 것이다. Hirschi의 통제이론 중 부모의 감독(Monitoring)을 중심으로 기능적 측면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학교 관련 요인은 성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관련 요인 중 특히 성적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성적이 갖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 때문이다. 한편 친구 관련 요인은 친구의 비행 성향에 주안점을 두었다. 청소년기의 두드러진 특징이 친구의 영향력의 증대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차별적 접촉이론과 하위문화이론에서 주장하는 바 역시 결국은 친구를 통해 범죄를 배운다라는 점에서도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폭력에 대한 태도 및 가치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차별적 접촉 이론을 보면 범죄에 대한 기법을 습득하는 것보다 범죄와 법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상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위문화 이론에서도 범죄 청소년들 사이에 존재하는 비행 하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에 관련된 요인은 주로 일상생활 이론과 유인성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동하교 길에 우범지역을 통과하는지 동반자가 있는가, 당구장이나 오락실 등에

자주 출입하는가 등이 일상생활에 기초한 요인이며 용돈 액수, 고가의 옷을 입고 다니는가 등이 유인성에 기초한 요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근접성과 동일집단 이론에 착안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른 집단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교차성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즉 상대방수의 피해자는 가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제 2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 및 유형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학교주변 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를 한정 의미한다.

본 연구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피해자중 학생이 아닌 청소년층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모집단을 삼는다. 여기에서 학생이라 함은 학교주변 폭력의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그간 범죄피해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학생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그 까닭은 학교폭력이 더 이상 청소년층의 문제만이 아니며 그 피해대상이 좀 더 어린 초등학교 학생에까지 이르고 보기 때문이며, 이것은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학교주변 폭력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여건상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서울시내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으로 제한한다.

조사는 개별면접의 형태가 아닌 학교를 중심으로한 집단면접의 방법을 취하였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를 선정할 때 지역적 분포와 학교수준,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삼았다. 먼저 학교수준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정하고,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시를 크게 강남과 강북 두 구역으로 나누었으며, 중학교는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으로 세분하고, 여기에 고등학교는 남학교, 여학교와 실업계 남녀 고등학교의 표본을 추가하였다. 그 후 각 지역에서 학교유형과 학교수준을 고려한 학교를 각각 한 학교씩 임의 선정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지역에서 초등학교 2학교, 중학교 3학교, 고등학교 4학교가 최종 표본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각 학교에서 한 학급씩을 조사하였다.

학년의 선정은 무작위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표본설계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고 각각 초등학교는 2학교, 중학교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으로 3학교, 고등학교는 남학교, 여학교, 실업계 남녀 고등학교로 4학교를 선정하여, 총 18개 학교에서 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4학년 이상만을 표본에 포함시켰다.

10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944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오기, 누락, 파손 등의 이유로 인한 36부를 제외하고 최종 908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학교수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수준별 분포 ()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125 (50.0)	155 (57.8)	169 (44.2)	449 (49.9)
여 자	125 (50.0)	113 (42.2)	213 (55.8)	451 (50.1)
계	250 (27.8)	268 (29.8)	382 (42.4)	900 (100.0)

전체적으로 남자가 49.9%, 여자가 50.1%이며, 초등학교 학생 250명, 중학생 268명, 고등학생 382명이다.

제 2 절 척 도

1. 학교주변 폭력실태 측정

본 연구는 학교주변 폭력실태의 파악에 하나의 목적을 둔다. 따라서 피해자를 학생으로 국한하고 또한 가해자의 범주도 가해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

학년의 선정은 무작위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표본설계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고 각각 초등학교는 2학교, 중학교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으로 3학교, 고등학교는 남학교, 여학교, 실업계 남녀 고등학교로 4학교를 선정하여, 총 18개 학교에서 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4학년 이상만을 표본에 포함시켰다.

10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944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오기, 누락, 파손 등의 이유로 인한 36부를 제외하고 최종 908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학교수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수준별 분포 ()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125 (50.0)	155 (57.8)	169 (44.2)	449 (49.9)
여 자	125 (50.0)	113 (42.2)	213 (55.8)	451 (50.1)
계	250 (27.8)	268 (29.8)	382 (42.4)	900 (100.0)

전체적으로 남자가 49.9%, 여자가 50.1%이며, 초등학교 학생 250명, 중학생 268명, 고등학생 382명이다.

제 2 절 척 도

1. 학교주변 폭력실태 측정

본 연구는 학교주변 폭력실태의 파악에 하나의 목적을 둔다. 따라서 피해자를 학생으로 국한하고 또한 가해자의 범주도 가해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

여, 연령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학교주변의 폭력배에 의한 성인범죄나 교사나 부모의 폭력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 거리, 유흥장소 등에서 입는 빈번하게 입는다고 생각되는 폭력피해유형을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등의 세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가. 금품갈취

금품갈취란 법적으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이재상, 1989). 본 연구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주로 학생이므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지난 일년간) 학교 안이나 밖에서 돈이나 물건(시계, 가방, 운동화, 카세트 등)을 빼앗긴 적이 있나요?'로 질문하여 없다, 한 번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 등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금품갈취의 피해상황은 구체적인 피해상황, 가해자의 상태 등으로 세분하여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모든 상황은 피해를 여러번 당했을 경우 그 중 한 경우만을 염두에 두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1) 피해상황

① 피해정도

한 번에 빼앗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여 빼앗긴 것이 돈일 경우와 물건일 경우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액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② 피해장소

피해장소는 교실 안에서부터 극장, 콘서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의 예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③ 피해시기

피해요일은 주중과 주말이나 공휴일로 구분하였으며, 피해시간은 등교길, 학교에 있는 동안, 하교길, 방과 후 밤 등 중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2) 가해자의 특성

① 가해자의 상태

가해자가 금품갈취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와 흥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② 가해자 폭력씨클 가입여부

금품갈취를 한 가해자가 폭력씨클에 연루되어 있는 자인지에 관해 질문하여 응답하게 했다(①②의 문항은 초등학생의 경우 응답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외하였다)

③ 가해자 동일인 여부

금품갈취를 여러번 당했을 경우 가해를 한 사람이 매번 다른 사람였는지 항상 같은 사람였는지의 여부를 응답하게 하였다.

④ 가해자 수

금품갈취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몇 명이었는가를 질문하였다.

⑤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가해자가 1명이었는지와 2명 이상이었는지를 구분하여, 가해자의 성별이 무엇이었으며 가해자가 누구 같아 보였으며, 아는 사람였는지를 질문하였다.

나. 폭행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상, 1989). 본 연구에서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지난 일년간) 학교 안이나 밖에서 누군가가 돈이나 물건과는 상관없이 시비를 걸며 때린 적이 있나요?’를 질문하여 폭행 피해를 없다, 한 번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 등으로 측정하였다.

폭행 역시 금품갈취와 동일하게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가해자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금품갈취 피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단 피해상황 중 피해경도는 외상이 있었는지, 외상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외상이 있었는지, 입원할 정도였는지 등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 괴롭힘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을 새롭게 학교주변 폭력의 한 유형에 포함시킨다. 괴롭힘이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리는 것과 같은 심리적 폭력과, 놀리거나 공연히 툭툭 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동반되는 학교폭력을 의미한다. 과거에도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최근에 들어 괴롭힘의 형태로 가해지는 학교폭력이 한층 그 강도를 더해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비단 개인적으로 행하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경향마저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지난 일년 동안) 학교 안에서 괜히 놀리고, 건드리고, 숙제를 시키는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였다.

1) 피해상황

① 피해형태

주로 어떤 형태의 괴롭힘을 당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 놀려댔다,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렸다, 공연히 툭툭 치며 괴롭혔다 등의 항목을 주고 복수 응답하게 하였다.

② 피해 반복정도

괴롭힘을 얼마나 자주 당하고 있는지를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번, 한 달에 서너번, 한 달에 한두번 두세 달에 한두번 등으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③ 피해정도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별거 아니었다에서 참기 매우 힘들었다까지의 항목을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④ 피해시간

언제 피해를 주로 당하는가를 쉬는 시간에, 점심 시간에 등의 항목을 두어 응답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2) 가해자 특성

① 가해자 수

가해자가 단독으로 괴롭히는지 아니면 여러명이 한꺼번에 괴롭히는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② 가해자 동일인 여부

주로 같은 사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지 항상 다른 사람이 가해자인지를 측정하였다.

③ 가해자 신분

어떤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반 학생, 다른 반 학생, 학교 선배 중에 응답하게 하였다.

④ 가해자 폭력씨클 가입여부

가해자가 일반학생인지 불량기가 있는 학생인지 아니면 폭력 씨클에 가입한 학생인지를 질문하였다.

2. 생활양식 측정

가. 위험에의 노출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가에 따라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유흥업소나 우범지역에 주로 위치할 확률이 높고 늦은 저녁시간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판단 하에 다음 항목으로 위험에의 노출을 측정하였다.

첫째, 학교주변에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 있는지와, 둘째, 등하교시 유흥가나 우범지역을 걸어서 지나가는지, 셋째, 밤의 활동 여부를 질문하였다. 밤의 활동 여부는 다시 세분하여 밤에 혼자 동네 근처를 걸어다니는가, 저녁시간에 집밖에 나가 놀기도 하는가, 친구와 저녁시간에 자주 만나는가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나. 보호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입을 때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호라 할 수 있다. 이 변인은 ‘등하교 길에 주로 누구와 함께 다닙니까?’ 라는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다. 감독

감독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으로서 자녀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같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생활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이 적절히 행해지면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하거나 피해의 재발생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가해율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며,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 등의 4항목을 질문하여 그렇지 않다에서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라. 비행생활양식

비행생활양식은 비행을 저지르는 정도와 일탈적인 생활양식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비행은 기물파괴와 절도인 재산비행과 갈취와 폭력으로 구성되는 폭력비행과 청소년의 신분에 위반되는 지위비행, 기타 질서비행으로 세분화하였다. 재산비행은 ‘고의로 남의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차에 흠집을 내거나 장식품을 뜯은 적이 있다,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폭력비행은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본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등의 항목으로, 지위비행은 중고등학생에 한정하여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미성년자 출입 불가인 카페나 술집에 가본 적이 있다’로, 질서비행은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있다’ 등으로 측정하였다. 각기 비행 항목은 ‘한 적이 없다, 한두번 있었다, 가끔 있었다, 여러번 있었다’ 중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기타 일탈적인 생활양식으로는 ‘학교에서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경찰에 붙잡혀간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비행친구 유무에 관한 한 항목과 ‘당신이 학

교에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습니까? 폭력씨클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의 본인의 비행여부에 관한 두 항목을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3. 신고 정도와 신고의식

피해를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 선생님, 경찰, 기타 항목에 복수 응답하도록 했다.

또한 알려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을 부모님과 선생님, 경찰로 한정하여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보복 당할까봐’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신고의식의 측정을 위해선 앞으로 본인이나 친구가 폭력을 당했을 경우 부모님, 선생님, 경찰에게 알릴 것인지를 그렇지 않다에서 그렇다의 4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활성화 방안 네 가지를 제시한 후 이 역시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4. 폭력에 대한 태도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폭력진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라 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거부와 긍정적인 태도인 폭력의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폭력에 대한 거부는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서, 폭력의 절대적인 거부와 폭력은 야만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문명사회에서의 폭력의 추방과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폭력의 효율성은 이와는 반대로 현실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면 일이 쉽게 처리되고 효과적이라는 태도로서, 말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에 폭력이 일 처리를 쉽게 만들며 사소한 일은 폭력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중에서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5. 학교주변 폭력 예방방안

학교주변폭력 예방방안의 몇가지 예를 제시하고 학교주변 폭력의 직접 피해가 능자인 학생들에게 그 가능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은 그렇지 않다에서 그렇다인 4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였다. 초등학생은 응답능력의 한계로 인해 제한하였다.

6. 배경변인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신장, 체중, 학교수준, 학년, 학교유형, 학교소재지, 성적등을 측정하였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응답의 편리함을 피하고자 신장은 ‘관 편, 보통, 작은 편’으로, 체중은 ‘뚱뚱한 편, 보통, 마른 편’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으며, 성적 역시 ‘아주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좀 못하는 편이다, 아주 못한다’ 등의 응답 예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 항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게 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와 실업계를 표시하게 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 가정의 수입,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 등의 변인을 측정하였는데, 응답능력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은 제외하였다.

가정의 수입은 한달 평균 총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50만원 미만을 1점으로, 50-70만원 미만을 2점, 70-100만원 미만을 3점, 100-150만원 미만을 4점, 150-200만원 미만은 5점, 200-250만원 미만을 6점, 250-300만원 미만을 7점, 300만원 이상을 8점으로 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Hall의 분류와 Ducan의 직업위세표를 참조로 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직업은 무직(가정주부), 단순노동, 반숙련직, 숙련직, 판매직,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무학, 국민학교 중퇴 혹은 졸업,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고

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대학원 이상 등 6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결손가정 여부를 알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부모님이 계시는지를 질문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제 3 절 연구절차

1. 조사기간과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1회의 심층 면접과 1회의 예비조사, 1회의 본조사로 총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심층면접은 1996년 2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폭력 실태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양식, 신고의식, 예방방안 등에 관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면접자료와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현실성 정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 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각각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용 설문지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제작되었는지, 또한 학생들이 응답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제작한 후 1996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 한 달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사의 지시 아래 집단별 조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총검사 시간은 20분에서 40분으로 본 설문지의 실시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없었으므로 검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만을 고려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2. 자료분석

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대학원 이상 등 6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결손가정 여부를 알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부모님이 계시는지를 질문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제 3 절 연구절차

1. 조사기간과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1회의 심층 면접과 1회의 예비조사, 1회의 본조사로 총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심층면접은 1996년 2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폭력 실태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양식, 신고의식, 예방방안 등에 관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면접자료와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현실성 정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 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각각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용 설문지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제작되었는지, 또한 학생들이 응답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제작한 후 1996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 한 달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사의 지시 아래 집단별 조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총검사 시간은 20분에서 40분으로 본 설문지의 실시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없었으므로 검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만을 고려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2. 자료분석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우리 나라의 연구수준이 체계적인 이론의 검증 단계라기 보다는 사실의 발견 단계에 있다. 본 연구 역시 우리 나라의 학교주변 폭력을 설명할 수 있는 정교한 이론을 설정하고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학교주변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병렬적으로 도입하여 그러한 이론 중 상대적으로 어떠한 이론이 더 설명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있기 때문에 변인들간의 일차적인 상관정도를 잘 보여주는 상관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을 기본적인 분석방법으로 채택하였다. 가해와 피해의 원인 분석에는 상관분석을 “피해-가해” 유형 분석에는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PC+를 사용하였다.

제 3 장 연구결과

제 1 절 학교주변

학교주변 폭력 피해율은 <표 2>과 같다. 학교주변 폭력은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등 세 가지 유형의 폭력 중에서 한 가지라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가를 알아본 것이다.

<표 2> 학교주변 폭력 피해율 ()안은 %

피해유형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X ²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학교주변 폭력	339 (37.6)	75 (59.5)	48 (38.4)	95 (61.3)	23 (20.4)	71 (42.0)	27 (12.7)	135.01***

전체 응답자의 37.6%가 지난 일년 동안 학교주변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열명 중 약 4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주변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수준과 성별에 따른 각 집단별 피해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남학생이(61.3%)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이며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남학생(59.5%), 고등학교 남학생(42.0%) 순으로 나타난다. 여학생의 피해율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 중에서도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율이 높아, 초등학교 여학생(38.4%) > 중학교 여학생(20.4%) > 고등학교 여학생(12.7%) 순의 피해율 분포를 보인다.

본 절에서는 학교주변 폭력을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세 유형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피해상황과 가해자의 특성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금품갈취

가. 피해경험

1) 금품갈취의 피해정도

금품갈취는 7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사회 여러 측면에서 문제시되어 왔으며, 근래 들어서는 학교주변 폭력의 한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금품갈취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즉 지난 일년 동안 금품갈취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 금품갈취 피해율 ()안은 %

피해유형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X ²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금품갈취	197 (21.9)	50 (39.7)	16 (12.8)	64 (41.3)	16 (14.2)	36 (21.3)	15 (7.0)	95.01***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일년 동안 금품갈취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율은 전체 표본 중의 21.9%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50명을 한 반으로 보았을 때, 한 반에서 약 10여명 정도의 학생이 타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품갈취에 의한 피해율이 높음을 보여 준다.

금품갈취 피해율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금품갈취를 당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며, 다음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현격하게 금품갈취 피해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신체적으로 열등하며 상급생들에 의한 학교주변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교주변폭력이 초등학

교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연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자에 포함시켰는데, <표 3>은 초등학생이 얼마나 학교주변폭력의 피해자가 되는지를 보여 준다.

한편 성별에 의해 피해율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금품갈취에 2-3배 가량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수준과 성별을 모두 고려해 볼 경우에는 금품갈취 피해율은 남자 중학생(41.3%) > 남자 초등학생(39.7%) > 남자 고등학생(21.3) > 여자 중학생(14.2%) > 여자 초등학생(12.8%) > 여자 고등학생(7.0) 순으로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연구대상자의 학교수준과 성별은 금품갈취 피해율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중 남자 중학생과 남자 초등학생의 피해율은 10명당 약 4명이 금품갈취를 당한 적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이며, 동시에 학교주변폭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2) 중복피해 횟수

중복피해는 지난 일년동안 한 학생이 한 번 이상의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당한 율을 의미한다. <표 4>는 금품갈취 중복피해횟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4> 금품갈취 중복피해 횟수

피해유형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X ²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금품갈취	1.68	1.08	1.61	1.93	1.74	1.46	1.63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금품갈취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평균 1.63회 꼴의 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여자 중학생이 1.93회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남자 고등학생의 중복피해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집단 중 가장 낮은 중복 피해 횟수를 갖는 집단은 초등학교 여학생으로 1.08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3) 학교형태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된다. 학교형태에 따라 금품갈취 피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피해율은 12.8%로, 실업계 고등학생의 피해율은 13.5%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피해율이 다소 높으나 이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교형태는 금품갈취 피해율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학교형태와 금품갈취 피해율과의 관계 ()안은 %

피해유형	고 등 학 교		X ²
	인 문 계	실 업 계	
금품갈취	30(12.8)	21(13.5)	04 N.S

4) 학교소재지

학교의 소재지와 금품갈취 피해율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한강을 중심으로 크게 강남과江北으로 구분하여 학교를 선정하였다.

〈표 6〉 학교소재지와 금품갈취 피해율과의 관계 ()안은 %

	강 남	강 북	X ²
금품갈취	78(17.8)	117(25.2)	7.20**

강남 소재지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17.8%가 금품갈취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江北 소재지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25.2%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 학교주변폭력 중 금품갈취 유형의 폭력은 강남보다는江北 소재지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신 장

신장에 따른 금품갈취 피해율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확한 신장을 아는데 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응답문항을 '키가 작은 편, 중간인 편, 큰 편'으로 구성하였다.

〈표 7〉 신장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 : 초등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작은 편	중 간	큰 편	작은 편	중 간	큰 편
없 다	16 (50.0)	43 (66.2)	16 (57.1)	33 (84.6)	50 (89.3)	26 (86.7)
있 다	16 (50.0)	22 (33.8)	12 (42.9)	6 (15.4)	6 (10.7)	4 (13.3)

〈표 7〉의 결과와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키가 작을 경우 가장 많은 금품갈취 피해를 당하며, 다음으로 키가 큰 편 > 중간인 편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키가 중간인 학생들이 금품갈취 피해를 가장 적게 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신장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 : 중학생 ()안은 %

	남 자					여 자				
	154이하	155-160	161-165	166-170	170이상	152이하	153-157	158-160	161-162	163이상
없다	15 (53.6)	14 (42.4)	19 (67.9)	20 (69.0)	18 (69.2)	16 (76.2)	18 (75.0)	24 (92.3)	15 (88.2)	14 (93.3)
있다	13 (46.4)	19 (57.6)	9 (32.1)	9 (31.0)	8 (30.8)	5 (23.8)	6 (25.0)	2 (7.7)	2 (11.8)	1 (6.7)

〈표 9〉 신장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 : 고등학생 ()안은 %

	남 자					여 자				
	166이하	167-170	171-173	174-177	178이상	157이하	158-160	161-163	164-167	168이상
없다	20 (64.5)	34 (81.0)	18 (75.0)	25 (89.3)	26 (83.9)	40 (97.6)	24 (92.3)	43 (91.5)	34 (89.5)	34 (94.4)
있다	11 (35.5)	8 (19.0)	6 (25.0)	3 (10.7)	5 (16.1)	1 (2.4)	2 (7.7)	4 (8.5)	4 (10.5)	2 (5.6)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각각 본인의 신장을 직접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 집단의 평균신장을 중심으로 각각 다섯 범주로 부호화 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신장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는 <표 8>과 <표 9>과 같다.

먼저 중학생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신장이 평균보다 작을 경우 금품갈취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학생은 160cm 이하일 때 절반 가량의 학생이 금품갈취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166cm 이하인 학생들, 다시 말하면 키가 작은 학생들의 피해율이 가장 높으며(35.5%), 다음으로는 171-173cm 학생의 피해율(25%)이 높다. 그러나, 여학생은 오히려 키가 아주 작거나 큰 학생을 제외한 보통 키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피해율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체 중

체중과 각 집단의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는 <표 10> <표 11> <표 12>에 제시하였다. 신장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마른 편, 보통, 뚱뚱한 편’으로 응답하게 했으며, 중학생 이상은 본인의 체중을 기록하게 하여 부호화 하였다.

<표 10> 체중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 : 초등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마른 편	보 통	뚱뚱한 편	마른 편	보 통	뚱뚱한 편
없 다	19 (54.3)	39 (56.5)	15 (78.9)	24 (85.7)	71 (87.7)	12 (85.7)
있 다	16 (45.7)	30 (43.5)	4 (21.1)	4 (14.3)	10 (12.3)	2 (14.3)

〈표 11〉 체중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 : 중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40이하	41-48	49-53	54-60	61이상	40이하	41-44	45-47	48-50	51이상
없 다	14 (50.0)	19 (61.3)	17 (63.0)	22 (62.9)	16 (66.7)	17 (89.5)	13 (92.9)	16 (76.2)	10 (66.7)	14 (87.5)
있 다	14 (50.0)	12 (38.7)	10 (37.0)	13 (37.1)	8 (33.3)	2 (10.5)	1 (7.1)	5 (23.8)	5 (33.3)	2 (12.5)

〈표 12〉 체중과 금품갈취 피해와의 관계 : 고등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51이하	52-55	56-60	61-67	68이상	47이하	48-49	50-52	53-55	56이상
없 다	21 (70.0)	25 (73.5)	23 (82.1)	33 (97.1)	22 (71.0)	36 (94.7)	47 (94.0)	32 (88.9)	41 (97.6)	32 (91.4)
있 다	9 (30.0)	9 (26.5)	5 (17.9)	1 (2.9)	9 (29.0)	2 (5.3)	3 (6.0)	4 (11.1)	1 (2.4)	3 (8.6)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뚱뚱한 편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금품갈취 피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학생은 모든 체중에서 유사한 정도의 금품갈취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남학생은 체중이 40kg 이하일 때 50%가 금품갈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마른 학생들이 금품갈취 피해자로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학생은 45에서 50kg에 해당하는 평균 이상의 몸무게를 갖는 학생들의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남학생은 마른 편이거나 아주 뚱뚱한 편에 속하는 학생들이 금품갈취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이 61-67kg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피해율은 약 3%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적음을 볼 수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과는 달리 평균적인 체중을 갖는 집단의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피해상황

1) 피해정도

금품갈취 피해를 당했을 경우 빼앗긴 돈과 물건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표 13〉 빼앗긴 돈의 액수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700원 미만	17 (40.5)	2 (16.7)	12 (24.0)	3 (17.6)	5 (13.9)	0 (0.0)	39 (22.8)
700--1000원	9 (21.4)	4 (33.3)	8 (16.0)	6 (35.3)	8 (22.2)	2 (14.3)	37 (21.6)
1000--4000원	8 (19.0)	1 (8.3)	13 (26.0)	4 (23.5)	8 (22.2)	4 (28.6)	38 (22.2)
4000--8000원	8 (19.0)	5 (41.7)	8 (16.0)	1 (5.9)	7 (19.4)	0 (0.0)	29 (17.0)
8000원 이상	0 (0.0)	0 (0.0)	9 (16.0)	3 (17.6)	8 (22.2)	8 (57.1)	28 (16.4)

남자 초등학생은 피해를 당한 40.5%가 700원 이하의 돈을 빼긴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0원에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여자 초등학생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4000원에서 8000원 가량의 돈을 빼긴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700원에서 1000원 미만의 돈을 빼긴 경우가 그 다음인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남학생일 때 1000원에서 4000 미만인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학생은 700원에서 1000원 미만이 35.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과는 달리 8000원 이상의 돈을 빼긴 경우도 제법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700원 미만 범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른 분포를 나

타내는데, 중학생과 비교하여 8000원 이상의 돈을 뺏긴 비율이 높은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더 두드러져 피해자의 57.1%가 8000원 이상의 돈을 뺏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수준이 높을수록 뺏기는 돈의 액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수준에 따라 받는 용돈의 양과 지니고 다니는 돈의 양이 다른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14〉 빼앗긴 물건의 액수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700원 미만	8 (50.0)	0 (0.0)	3 (12.0)	0 (0.0)	2 (15.4)	0 (0.0)	13 (21.0)
700-1000원	3 (18.8)	2 (40.0)	0 (0.0)	0 (0.0)	2 (15.4)	0 (0.0)	7 (11.3)
1000-4000원	5 (31.3)	3 (60.0)	5 (20.0)	0 (0.0)	1 (7.7)	0 (0.0)	14 (22.6)
4000-8000원	0 (0.0)	0 (0.0)	3 (12.0)	0 (0.0)	0 (0.0)	1 (100.0)	4 (6.5)
8000원 이상	0 (0.0)	0 (0.0)	14 (56.0)	2 (100.0)	8 (61.5)	0 (0.0)	24 (38.7)

〈표 14〉는 빼앗긴 물건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의 액수를 의미한다.

남자 초등학생의 경우는 700원 미만인 경우가 50.0%에 해당해 고가의 물건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격의 비싸고 싼 것이 금품갈취 피해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물론 금액의 많고 적음이 체감 피해도에 전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빼앗긴 돈이나 물건의 액수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는 공포감을 가질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가의 물건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여 금품갈취 폭력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자 초등학생은 반면에 60.0%가 10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물건을 빼앗겼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은 56.0%가, 여학생은 100%가 8000원 이상의 물건을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고등학생도 8000원 이상의 물건을 빼앗긴 비율이 6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학생 이상은 제법 비싼 물건을 빼앗기는 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피해장소

〈표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금품갈취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피해 학생 중의 24.8%가 이 곳에서 금품갈취를 당한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소는 학교 근처 골목길(12.1%)이며, 그 다음은 교실안(11.5%)이다. 따라서 학교 내, 그것도 다름 아닌 교실안이 학교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학교 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7.3%)과 학교 화장실(1.8%)의 비율까지 합하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금품갈취의 비율은 20.6%에 해당하여, 학교 내 폭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피해장소를 초, 중, 고등학교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 금품갈취를 가장 많이 당한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29.8%)인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등의 장소가 높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으며(19.1%), 학교 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14.9%)도 남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금품갈취가 행해지는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역시 주택가 골목길이 금품갈취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로는 학교 근처 골목길이나 지하철역, 지하도 안, 버스 정류장과 같은 장소가 피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만화가게나 전자오락실 등과 같은 장소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피해장소였으나 여학생은 이곳에서의 피해를 보고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까닭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러한 장소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장 빈번하게 피해를 당하는 곳은 주택가 골목길과 학교 근처 골목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교실 안

에서의 피해가 12.2%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주택가 골목길과 학교 근처 골목길 두 장소 다음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은 초등학교 여학생과 동일하게 지하철역이나 지하도안, 육교아래, 버스 정류장과 같은 장소에서 금품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금품갈취 피해 장소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교실 안	0 (0.0)	1 (7.7)	6 (12.2)	0 (0.0)	11 (34.4)	1 (6.7)	19 (11.5)
학교 화장실	0 (0.0)	1 (7.7)	0 (0.0)	0 (0.0)	2 (6.3)	0 (0.0)	3 (1.8)
학교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	7 (14.9)	1 (7.7)	3 (6.1)	0 (0.0)	1 (2.1)	0 (0.0)	12 (7.3)
학교 근처 큰 길	2 (4.3)	0 (0.0)	2 (4.1)	1 (11.1)	0 (0.0)	1 (6.7)	6 (3.6)
학교 근처 골목길	5 (10.6)	2 (15.4)	8 (16.3)	2 (22.2)	1 (3.1)	2 (13.3)	20 (12.1)
학원, 독서실	1 (2.1)	1 (7.7)	2 (4.1)	0 (0.0)	0 (0.0)	0 (0.0)	4 (2.4)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분식집	1 (2.1)	0 (0.0)	1 (2.0)	0 (0.0)	1 (3.1)	1 (6.7)	4 (2.4)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9 (19.1)	0 (0.0)	3 (6.1)	0 (0.0)	2 (6.3)	0 (0.0)	14 (8.5)
주택가 노상	3 (6.4)	1 (7.7)	2 (4.1)	0 (0.0)	0 (0.0)	1 (6.7)	8 (4.8)
주택가 골목길	14 (29.8)	4 (30.8)	9 (18.4)	2 (22.2)	6 (18.8)	6 (40.0)	41 (24.8)

변화한 노상	1 (2.1)	0 (0.0)	1 (2.0)	0 (0.0)	1 (3.1)	0 (0.0)	3 (1.8)
유원지, 공원, 고수부지	1 (2.1)	0 (0.0)	1 (2.0)	0 (0.0)	1 (3.1)	0 (0.0)	3 (1.8)
지하철역, 지하도안, 기차역 버스정류장, 육교아래	1 (2.1)	2 (15.4)	1 (2.0)	1 (11.1)	3 (9.4)	0 (0.0)	8 (4.8)
극장, 콘서트장, 공연장	0 (0.0)	0 (0.0)	1 (2.0)	1 (11.1)	0 (0.0)	0 (0.0)	2 (1.2)
디스코장, 락카페	0 (0.0)	0 (0.0)	1 (2.0)	0 (0.0)	1 (3.1)	0 (0.0)	2 (1.2)
소주방, 호프집, 술집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1 (0.6)
기타	2 (4.3)	0 (0.0)	4 (8.2)	1 (11.1)	1 (3.1)	3 (20.0)	11 (6.7)

고등학교 여학생은 피해학생의 약 40%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다른 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교실 안에서 금품갈취를 당했다는 비율이 3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내의 폭력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시기

학생들이 금품갈취 피해를 언제 주로 당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피해 요일을 조사해 보았다. <표 16>에서 보이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말이나 공휴일보다는 주중, 즉 평일에 금품갈취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66.9%).

특히 중학교 남학생과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피해자들의 거의 80%에 가까운 수가 평일에 금품갈취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로지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만이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주말이나 공휴일에 피해를 더 많이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6〉 금품갈취와 피해요일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평일	25 (52.1)	9 (69.2)	38 (79.2)	4 (40.0)	24 (80.0)	9 (64.3)	109 (66.9)
주말, 공휴일	23 (47.9)	4 (30.8)	10 (20.8)	6 (60.0)	6 (20.0)	5 (35.7)	54 (33.1)

〈표 17〉 금품갈취와 피해시간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등교길에서	2 (4.3)	0 (0.0)	4 (8.2)	0 (0.0)	1 (3.3)	2 (16.7)	9 (5.6)
학교에 있는 동안	2 (4.3)	3 (21.4)	9 (18.4)	0 (0.0)	13 (43.3)	1 (8.3)	28 (17.4)
하교길에서	38 (82.6)	8 (57.1)	30 (61.2)	5 (50.0)	8 (26.7)	4 (33.3)	93 (57.8)
방과 후 밤에	4 (8.7)	3 (21.4)	6 (12.2)	5 (50.0)	8 (26.7)	5 (41.7)	31 (19.3)

〈표 16〉의 결과 금품갈취 피해를 전체적으로 볼 때 주로 평일에 많이 입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주로 어느 시간대에 이러한 피해를 입는지는 다음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교길에서의 피해율이 총 57.8%에 이르러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금품갈취에 많이 노출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두드러져 피해를 입은 학생의 82.6%가 하교길에서의 피해를 보고하고 있다.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도 하교길에서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의 피해율도 18.4%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 더 심화되어 이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길에서의 금품갈취 피해보다는 학교에 있는 동안의 피해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선 <표 15>의 금품갈취와 피해장소의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금품갈취를 당한 장소가 교실 안이라는 비율이 다른 기타 장소보다도 높게 나타났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피해를 당하는 시간대도 역시 학교에 있는 동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43.3%). 따라서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학교 밖의 폭력보다는 학교 내부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더 빈번하게 입는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방과 후 밤에 금품갈취 피해를 당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이할 만 하다. 여학생은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대에 폭력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 가해자 특성

1) 가해자 상태

가해자가 금품갈취시 어떠한 상태에 있었나를 알아보기 위해 음주와 흥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8> 금품갈취 가해자 음주 여부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예	3 (5.9)	1 (10.0)	1 (3.3)	1 (7.1)	6 (5.7)
아니오	41 (80.4)	9 (90.0)	24 (80.0)	12 (85.7)	86 (81.9)
모르겠다	7 (13.7)	0 (0.0)	5 (16.7)	1 (7.1)	13 (12.4)

먼저 금품갈취 피해를 당할 당시 가해를 가하는 상대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중·고등학생에 한정함)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약 80% 이상이 가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학교폭력이 술기운을 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표 19〉 금품갈취 가해자 흥기 소지 여부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예	4 (8.3)	2 (15.4)	7 (13.7)	3 (30.0)	5 (16.7)	1 (7.1)	22 (13.3)
아니오	36 (75.0)	5 (38.5)	28 (54.9)	6 (60.0)	16 (53.3)	10 (71.4)	101 (60.8)
모르겠다	8 (16.7)	6 (46.2)	16 (31.4)	1 (10.0)	9 (30.0)	3 (21.4)	43 (25.9)

또한 가해자가 금품갈취시 흥기를 갖고 있었느냐의 질문에는 금품갈취 피해자의 약 13.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여자 중학생인 경우 30%가 흥기를 소지한 가해자에 의해 금품갈취를 당했으며,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약 17%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상대방이 흥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흥기 소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율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는 46.2%나 되며 전체적으로는 약 26%에 이른다. 따라서 경황이 없는 중에 금품갈취 피해를 입어 상대방이 흥기를 갖고 있나조차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명확하게 가해자가 흥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율은 전체적으로는 60.8%이며, 상대적으로 피해율이 높은 남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약 54%만이 가해자가 흥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 가해자의 폭력써클 가입 여부

금품갈취 가해자가 폭력써클에 속해 있는지를 중·고등학생에게 응답하게끔 했

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상급학교 학생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폭력써클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판단되어 이 항목을 질문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표 20〉 가해자의 폭력써클 가입 여부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모르겠다	30 (61.2)	8 (72.7)	17 (58.6)	12 (85.7)	67 (65.0)
그런 것 같다	11 (22.4)	3 (27.3)	7 (24.1)	2 (14.3)	23 (22.3)
확실히 그렇다	8 (16.3)	0 (0.0)	5 (17.2)	0 (0.0)	13 (12.6)

남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폭력써클에 가입한 것이 확실하다고 응답한율이 각각 16.3%와 17.2%로 금품갈취를 하는 가해자가 폭력써클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그런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까지를 합한다면, 가해자의 폭력써클 가입 비율은 더 높아진다. 금품갈취 피해자 중 남자 중학생의 38.7%가, 남자 고등학생의 약 41.3%가 폭력써클에 가입한 것과 같이 보이는 자에게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3) 가해자 동일인 여부

금품갈취를 할 때 가해자들이 특정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가해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금품갈취를 여러 번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동일한 사람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21〉 금품갈취 가해자 동일인 여부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매번 다른 사람	15 (48.4)	3 (33.3)	19 (61.3)	3 (50.0)	9 (36.0)	4 (66.7)	53 (49.1)
어쩌다 같은 사람	10 (32.3)	1 (11.1)	6 (19.4)	1 (16.7)	4 (16.0)	1 (16.7)	23 (21.3)
주로 같은 사람	2 (6.5)	1 (11.1)	3 (9.7)	1 (16.7)	10 (40.0)	1 (16.7)	18 (16.7)
항상 같은 사람	4 (12.9)	4 (44.4)	3 (9.7)	1 (16.7)	2 (8.0)	0 (0.0)	14 (13.0)

〈표 21〉의 전체 응답을 보면, 매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갈취를 당했다고 응답한 율은 금품갈취 피해의 약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나머지 50%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받은 확률을 의미한다. 그 50% 중 어쩌다 같은 사람의 비율을 제외한 ‘주로 같은 사람’과 ‘항상 같은 사람’의 비율은 약 30%에 해당하여 열명 피해자 중 세명은 동일인으로부터 금품갈취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으로부터 금품갈취를 당하는 피해율은 특히 초등학교 여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는 44.4%가 항상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했으며 여기에 주로 같은 사람의 비율을 합한다면 약 70%가량이 동일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도 주로 같은 사람이 금품갈취를 했다고 한 비율이 40%로 가해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반 수 가량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번 금품갈취를 당했고 그 가해자가 주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는 일회성 적인 폭력보다 더 많은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다.

4) 가해자 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구 대상자 전체의 금품갈취 가해자의 수는 2명에서 4명 가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8.2%). 단독금품갈취와 집단금품갈취로 구분해 보면, 가해자 수가 1명인 경우는 전체의 29.5%이며 2명 이상인 경우는 70.5%로 가해자가 단독인 경우보다 다수인 경우가 약 2.4배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금품갈취 가해자 수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1명	14 (29.8)	5 (38.5)	12 (30.0)	1 (11.1)	10 (37.0)	1 (10.0)	43 (29.5)
2명 -- 4명	28 (59.6)	6 (46.2)	23 (57.5)	7 (77.8)	13 (48.1)	8 (80.0)	85 (58.2)
5명 이상	5 (10.6)	2 (15.4)	5 (12.5)	1 (11.1)	4 (14.8)	1 (10.0)	18 (12.3)

가해자 집단화 경향은 특히 피해자가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일 경우에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피해학생 중 금품갈취 가해자 수가 2명 이상이었다고 한 비율이 높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역으로 금품갈취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다수가 함께 모여 가해를 하는 경향이 많음을 엿볼 수 있다.

5) 가해자 성별

가해자의 성별은 가해자의 수가 1명이었는지, 다수였는지에 의해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가해자 성별에 대한 질문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① 1명일 경우

〈표 23〉 금품갈취 가해자 성별 : 1명일 경우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 자	18 (85.7)	2 (50.0)	17 (100.0)	3 (100.0)	40 (88.9)
여 자	3 (14.3)	2 (50.0)	0 (0.0)	0 (0.0)	5 (11.1)

전반적으로 금품갈취를 하는 가해자의 성별은 여자 약 11% 가량에 비해 남자가 89%로 약 8배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가해자가 모두 남자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여성 가해자로부터 금품갈취를 당한 비율도 전체 응답의 14.3%에 해당한다. 이는 남자 중학생의 경우는 남자 고등학생과는 달리 아직 신체적으로 왜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의 경우도 가해자의 성별이 남녀 반반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여성 가해자로부터도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명 이상일 경우

〈표 24〉 금품갈취 가해자 성별 : 2명 이상일 경우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부 남자	32 (84.2)	4 (30.8)	19 (82.6)	5 (35.7)	60 (68.2)
전부 여자	1 (2.6)	5 (38.5)	0 (0.0)	7 (50.0)	13 (14.8)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다	5 (13.2)	4 (30.8)	3 (13.0)	1 (7.1)	13 (14.8)
모르겠다	0 (0.0)	0 (0.0)	1 (4.3)	1 (7.1)	2 (2.3)

전체 응답자의 68.2%가 금품갈취 가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가해자의 성별을 '전부 남자'였던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전부 여자'와 '남녀 혼합'이 동일한 비율로 그 다음 순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금품갈취의 가해자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금품갈취 가해자의 성별이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가해자의 성별은 피해자의 성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먼저 피해자가 남자인 남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성별이 전부 남자 > 남녀 혼합 순으로 나타나며, 가해자가 전부 여자였다는 비율은 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전부 여자인 경우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이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가해자의 성별이 전부 여자 > 전부 남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첫째, 피해자가 남자일 경우 금품갈취의 가해자는 주로 동성이다. 또한 가해자가 전부 여자일 확률은 극히 적다. 둘째, 피해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동성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성인 남자가 가해자가 될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여자일 경우 남자와 다른 점은 동성이 가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성으로부터의 가해피해마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가해자 신분

① 1명일 경우

〈표 25〉 금품갈취 가해자 신분 : 1명일 경우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같은 반 학생	0 (0.0)	1 (20.0)	2 (10.0)	0 (0.0)	7 (41.2)	0 (0.0)	10 (15.6)
같은 학교 선배	2 (14.3)	0 (0.0)	4 (20.0)	0 (0.0)	4 (23.5)	0 (0.0)	10 (15.6)

다른 반 학생	2 (14.3)	0 (0.0)	2 (10.0)	0 (0.0)	2 (11.8)	0 (0.0)	6 (9.4)
다른 학교 동급생	2 (14.3)	0 (0.0)	1 (5.0)	2 (40.0)	1 (5.9)	1 (33.3)	7 (10.9)
다른 학교 선배	4 (28.6)	2 (40.0)	4 (20.0)	1 (20.0)	0 (0.0)	1 (33.3)	12 (18.8)
동네 동년배	1 (7.1)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
동네 선배	2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2 (3.1)
모르겠다	1 (7.1)	2 (40.0)	7 (35.0)	2 (40.0)	3 (17.6)	1 (33.3)	16 (25.0)

금품갈취 가해자가 누구 같아 보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 대상자의 25%가 '모르겠다'로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모르겠답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 선배'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18.8%). 이는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상급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금품갈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초등학교 학생에게서 두드러진다. 초등학교 남자 피해자의 28.6%, 여자 피해자의 40.0%가 다른 학교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금품갈취를 하는 다른 학교 선배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신체적으로도 왜소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학교주변 폭력이 중·고등학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초등학교에까지도 만연되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중학교 남자는 역시 가해자가 1명일 경우 가해자의 신분이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학교에 다니는 상급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20%). 따라서 중학교 남자의 경우도 본인보다 학년이 높은 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부터 금품갈취를 당

하는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과 다른 학교 선배가 가해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상급생으로부터 입는 피해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학교수준에 있고 연령이 높은 고등학생은 누구로부터 금품갈취를 당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예측컨대 고등학생의 경우는 상급생이 가해자인 경우보다는 동급생이 가해자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표 25>의 결과는 이러한 예측에 대한 확증이다.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금품갈취 가해자의 41.2%가 같은 반 학생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학교 선배인 경우가 23.5%로 다음을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상급자인 고등학생은 같은 또래로부터 금품갈취를 당하는 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로 갈수록 금품갈취는 학교 내의 폭력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해자의 64.7%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같은 반 학생 : 41.2%, 같은 학교 선배 : 23.5%)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자 고등학생의 학교 내 폭력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가해자가 모두 다른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나 상급생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내의 금품갈취는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는 학교 밖에서의 금품갈취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 고등학생의 응답자는 남녀공학이 아닌 여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여자 고등학생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는 <표 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남자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② 2명 이상일 경우

〈표 26〉 금품갈취 가해자 신분 : 2명 이상일 경우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같은 반 학생	2 (6.1)	1 (12.5)	2 (5.3)	0 (0.0)	7 (30.4)	1 (7.1)	13 (10.1)
같은 학교 선배	3 (9.1)	1 (12.5)	2 (5.3)	2 (15.4)	0 (0.0)	0 (0.0)	8 (6.2)
다른 반 학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른 학교 동급생	1 (3.0)	0 (0.0)	0 (0.0)	1 (7.7)	1 (4.3)	1 (7.1)	4 (3.1)
다른 학교 선배	19 (57.6)	5 (62.5)	22 (57.9)	5 (38.5)	2 (8.7)	2 (14.3)	55 (42.6)
동네 선배	2 (6.1)	0 (0.0)	0 (0.0)	0 (0.0)	0 (0.0)	0 (0.0)	2 (1.6)
모르겠다	6 (18.2)	1 (12.5)	12 (31.6)	5 (38.5)	13 (56.5)	10 (71.4)	47 (36.4)

가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전체 응답자의 42.6%가 '다른 학교 선배'가 가해자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교 남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른 학교 선배에게 금품갈취를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남녀와 중학교 남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약 60%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의 금품갈취는 피해자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허다해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고등학교 여자에게도 동일하나, 고등학교 남자만은 제외된다. 고등학교 남자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금품갈취를 당하는 경우가 30%를 넘어서 교외보다는 교내 폭력이 더 심각함을 보여준다.

7) 가해자 면식정도

① 1명일 경우

〈표 27〉 금품갈취 가해자의 면식정도 : 1명일 경우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잘 안다	1 (5.3)	0 (0.0)	4 (28.6)	0 (0.0)	5 (12.5)
약간 아는 사람	3 (15.8)	0 (0.0)	4 (28.6)	0 (0.0)	7 (17.5)
얼굴만 아는 사람	5 (26.3)	0 (0.0)	2 (14.3)	2 (66.7)	9 (22.5)
모른다	10 (52.6)	4 (100.0)	4 (28.6)	1 (33.3)	19 (47.5)

가해자와의 면식정도는,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금품갈취를 당한 비율이 47.5%로 약 절반에 가까운 피해자가 안면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뺏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학교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집단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여자는 100%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였으며, 고등학교 여자의 경우에는 '얼굴만 아는 사람'(66.7%), 중학교 남자는 '얼굴만 아는 사람'(26.3%)과 '약간 아는 사람'(15.8%)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서 금품갈취를 당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고등학교 남자의 경우는 가해자를 '약간 아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율이 약 29%에 이르며, 더 나아가 '잘 안다'라고 대답한 율도 마찬가지로 약 28%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비율을 합하면 절반 이상의 피해자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금품갈취를 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선 결과와 종합하면 남자 고등학교의 금품갈취는 교내에서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명 이상일 경우

가해자가 집단일 경우에는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이 있는가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아는 사이인가를 세분하여 보았다.

〈표 28〉 금품갈취 가해자의 면식정도 : 2명 이상일 경우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모두 아는 사람	1 (2.6)	2 (18.2)	5 (22.7)	1 (7.1)	9 (10.6)
모두 모르는 사람	31 (81.6)	6 (54.5)	13 (59.1)	13 (92.9)	63 (74.1)
몇 명만 아는 사람	4 (10.5)	3 (27.3)	3 (13.6)	0 (0.0)	10 (11.8)
기억나지 않음	2 (5.3)	0 (0.0)	1 (4.5)	0 (0.0)	3 (3.5)

먼저 면식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품갈취를 당한 경우가 74.1%에 해당한다. 특히 이 비율은 중학교 남자와 고등학교 여자에 걸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남자의 경우는 가해자가 1명일 경우와 유사하게 가해자 모두를 아는 사람이라고 보고한 비율이 약 23%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남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1명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표 29〉 금품갈취 가해자 친숙정도 : 2명 이상일 경우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잘 안다	0 (0.0)	1 (16.7)	4 (28.6)	1 (33.3)	6 (18.2)
약간 안다	3 (30.0)	2 (33.3)	5 (35.7)	0 (0.0)	10 (30.3)
얼굴만 안다	7 (70.0)	5 (50.0)	5 (35.7)	2 (66.7)	17 (51.5)

금품갈취 가해자가 집단일 경우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와의 친숙 정도를 질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해자와 안면이 있는 경우의 약 절반 가량이 그저 얼굴만 아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고등학교 남자 집단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잘 아는 사이였던 경우도 28%가 넘으며, 여기에 약간 아는 사이까지 합하면, 약 64%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얼굴을 아는 것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폭 행

가. 피해경험

1) 폭행의 피해정도

폭행피해율은 지난 일년동안 학교 안이나 밖에서 누군가가 돈이나 물건과는 상관없이 시비를 걸며 때린 적이 있는지에 관한 응답에 의해 산출하였다.

〈표 30〉 폭행 피해율 ()안은 %

피해유형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X ²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폭 행	140 (15.5)	36 (28.6)	14 (15.2)	35 (22.6)	5 (4.4)	38 (22.5)	7 (3.3)	63.38***

전체적으로 볼 때 표본의 15.5%가 폭행 피해를 보고하고 있어, 50명이 한 반일 때 50명 중 3.2명 꼴로 지난 일년 동안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숫치는 50명 당 10여명 꼴로 피해를 입은 금품갈취 피해율보다는 적은 수치이나, 15.5%의 폭행 피해율은 절대적으로 보았을 때 우려할 만한 수치임에 분명하다.

폭행 피해율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금품갈취의 경우에는 중학생의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폭행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의 피해율이 다른 집단의 피해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폭행이 신체적인 폭력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면이 열등한 초등학생들이 폭행의 피해자로 지목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의 높은 피해율은 학교주변 폭력의 범위가 이미 초등학교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부터의 초등학생들에 보호와 지도가 시급한 실정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폭행 피해율을 살펴보면, 역시 남학생이 전반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폭행을 많이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5내지 7배 가량 폭행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수준과 성별을 모두 고려했을 때, 폭행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집단은 초등학교 남학생이며, 남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이 거의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집단과 폭행피해율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2) 중복피해 횟수

〈표 31〉

폭행 중복피해 횟수

단위 : 횟수

피해유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폭행	1.60	1.66	1.61	1.83	1.83	1.14	1.66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63회의 폭행 중복 피해를 입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세분화해 볼 때, 여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이 금품갈취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중복 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형태

고등학교의 학교 형태와 폭행 피해에 노출되는 정도는 서로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피해율이 12.4%, 실업계 고등학생의 피해율이 11.6%로 두 집단이 거의 유사한 정도의 폭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2> 학교형태와 폭행 피해율과의 관계 ()안은 %

피해유형	고 등 학 교		X ²
	인문계	실업계	
금품갈취	30 (12.8)	21 (13.5)	04 N.S

4) 학교소재지

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폭행 피해가 서로 관련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3> 학교소재지와 폭행 피해율과의 관계 ()안은 %

	강 남	강 북	X ²
폭행	53 (12.1)	88 (19.0)	7.97**

강남 소재지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12.1%, 강북 소재지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19.0%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북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금품갈취와 마찬가지로 폭행 피해도 더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소재지와 폭행 피해율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5) 신장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키가 작다라고 응답한 학생 중 폭행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비율이 43.8%로 상대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키가 큰 편인 학생들이며(32.1%), 키가 중간인 편인 학생은 가장 낮은 폭행피해율을 나타낸다. 여학생은 키가 큰 편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 신장과 폭행 피해와의 관계 : 초등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작은 편	중 간	큰 편	작은 편	중 간	큰 편
없 다	18 (56.3)	53 (81.5)	19 (67.9)	32 (82.1)	47 (83.9)	27 (90.0)
있 다	14 (43.8)	12 (18.5)	9 (32.1)	7 (17.9)	9 (16.1)	3 (10.0)

〈표 35〉 신장과 폭행 피해와의 관계 : 중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154이하	155-159	161-165	166-170	170이상	152이하	153-157	158-160	161-162	163이상
없 다	19 (67.9)	28 (84.8)	20 (71.4)	24 (82.8)	20 (76.9)	20 (95.2)	22 (91.7)	25 (96.2)	17 (100.0)	14 (93.3)
있다	9 (32.1)	5 (15.2)	8 (28.6)	5 (17.2)	6 (23.1)	1 (4.8)	2 (8.3)	1 (3.8)	0 (0.0)	1 (6.7)

〈표 36〉 신장과 폭행 피해와의 관계 : 고등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166이하	167-170	171-173	174-177	178이상	157이하	158-160	161-163	164-167	168이상
없 다	25 (80.6)	34 (81.0)	17 (70.8)	22 (78.6)	25 (80.6)	41 (100.0)	25 (96.2)	44 (93.6)	37 (97.4)	35 (97.2)
있다	6 (19.4)	8 (19.0)	7 (29.2)	6 (21.4)	6 (19.4)	0 (0.0)	1 (3.8)	3 (6.4)	1 (2.6)	1 (2.8)

남자 중학생은 키가 154cm 이하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편인 학생들이 폭행을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2.1%). 다음으로는 보통에 해당하는 161-165cm 학생들의 피해율이 높으며(28.6%), 기타 다른 집단의 피해율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은 폭행을 당하는 울 자체가 남학생에 비해 낮으나,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폭행 피해율을 보이는 집단은 153-157cm인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키를 갖고 있는 집단(8.3%)과 키가 가장 큰 집단에 속하는 163cm 이상인 학생들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난다(6.7%).

고등학교 학생들은 남녀 모두 중간키의 학생이 폭행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학생은 171-173cm인 학생들이, 여학생은 161-163cm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6) 체 중

초등학교 남학생은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폭행을 가장 적게 당한 것으로 보인다(15.8%). 이 결과는 금품갈취 피해율과 유사한 것으로 금품갈취 피해 역시 뚱뚱한 편에 해당하는 학생이 가장 적게 입었음을 알 수 있다(표 37 참조). 따라서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갈 때 주로 상급생들에 의한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 대상으로 주목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 체중과 폭행 피해와의 관계 : 초등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마른 편	보 통	뚱뚱한 편	마른 편	보 통	뚱뚱한 편
없다	23 (65.7)	50 (72.5)	16 (84.2)	25 (89.3)	66 (81.5)	14 (100.0)
있다	12 (34.3)	19 (27.5)	3 (15.8)	3 (10.7)	15 (18.5)	0 (0.0)

〈표 38〉 체중과 폭행 피해와의 관계 : 중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40이하	41-48	49-53	54-60	61이상	40이하	41-44	45-47	48-50	51이상
없다	18 (64.3)	25 (80.6)	23 (85.2)	28 (80.0)	18 (75.0)	18 (94.7)	13 (92.9)	21 (100.0)	13 (86.7)	15 (93.8)
있다	10 (35.7)	6 (19.4)	4 (14.8)	7 (20.0)	6 (25.0)	1 (5.3)	1 (7.1)	0 (0.0)	2 (13.3)	1 (6.3)

〈표 39〉 체중과 폭행 피해와의 관계 : 고등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51이하	52-55	56-60	61-67	68이상	47이하	48-49	50-52	53-55	56이상
없다	26 (86.7)	27 (79.4)	22 (78.6)	29 (85.3)	20 (64.5)	37 (97.4)	49 (98.0)	36 (100.0)	39 (92.9)	33 (94.3)
있다	4 (13.3)	7 (20.6)	6 (21.4)	5 (14.7)	11 (35.5)	1 (2.6)	1 (2.0)	0 (0.0)	3 (7.1)	2 (5.7)

중학교 남학생은 초등학생과 동일하게 체중이 가장 적게 나가는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피해율이 높았다. 그러나 뚱뚱한 집단의 폭행 피해율도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의 경우 뚱뚱한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적게 당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여학생은 오히려 체중이 48-50kg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체중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는 달리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집단의 폭행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더 두드러진다.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68kg이상, 즉 가장 뚱뚱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폭행 피해율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도 53-55kg 일 때 7.1%, 56kg 이상일 때 5.7%로 평균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학생들이 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 피해상황

1) 피해정도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안이나 밖에서 돈이나 물건과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시비를 걸며 때리는 폭행을 당한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나를 질문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0) 폭행 피해 정도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상처는 없었다	26 (74.3)	14 (77.8)	23 (63.9)	2 (33.3)	20 (51.3)	6 (75.0)	91 (64.1)
상처는 있었으나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7 (20.0)	3 (16.7)	8 (22.2)	2 (33.3)	16 (41.0)	1 (12.5)	37 (26.1)
병원에 갈 정도로 상처가 있었다	2 (5.7)	1 (5.6)	3 (8.3)	2 (33.3)	3 (7.7)	1 (12.5)	12 (8.5)
입원할 정도였다	0 (0.0)	0 (0.0)	2 (5.6)	0 (0.0)	0 (0.0)	0 (0.0)	2 (1.4)

전반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약 64%가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에 갈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도 폭행 피해자의 8.5%인데, 이러한 수치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주변 폭력 중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는 경우가 피해자의 약 36%에 이르므로 학교주변 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여자의 경우는 상처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그 외 집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비율이 낮고 상처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등학교 남자와 중학교 여자에게서 두드러진다.

2) 피해장소

전반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피해장소는 금품갈취와 동일하게 주택가 골목길(17.6%) > 교실 안(16.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율을 합하면(교실 안, 학교 화장실, 학교 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 30%에 이르른다. 이것은 폭행의 약 1/3이 학교 내에서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내 폭력의 심각성과 지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41〉 폭행 피해 장소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교실 안	0 (0.0)	3 (27.3)	5 (20.0)	0 (0.0)	8 (25.0)	2 (25.0)	18 (16.7)
학교 화장실	0 (0.0)	0 (0.0)	1 (4.0)	0 (0.0)	4 (12.5)	0 (0.0)	5 (4.6)
학교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	4 (14.8)	1 (9.1)	4 (16.0)	1 (20.0)	0 (0.0)	0 (0.0)	10 (9.3)
학교 근처 큰 길	0 (0.0)	1 (9.1)	0 (0.0)	1 (20.0)	2 (6.3)	0 (0.0)	4 (3.7)
학교 근처 골목길	2 (7.4)	1 (9.1)	1 (4.0)	0 (0.0)	1 (3.1)	1 (12.5)	6 (5.6)
학원, 독서실	0 (0.0)	1 (9.1)	1 (4.0)	0 (0.0)	0 (0.0)	2 (25.0)	4 (3.7)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분식집	0 (0.0)	0 (0.0)	0 (0.0)	0 (0.0)	0 (0.0)	1 (12.5)	1 (0.9)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6 (22.2)	1 (9.1)	1 (4.0)	1 (20.0)	1 (3.1)	1 (12.5)	11 (10.2)
주택가 노상	2 (7.4)	1 (9.1)	2 (8.0)	0 (0.0)	1 (3.1)	0 (0.0)	6 (5.6)

주택가 골목길	7 (25.9)	1 (9.1)	5 (20.0)	1 (20.0)	5 (15.6)	0 (0.0)	19 (17.6)
변화한 노상	0 (0.0)	0 (0.0)	1 (4.0)	0 (0.0)	0 (0.0)	0 (0.0)	1 (0.9)
유원지, 공원, 고수부지	1 (3.7)	0 (0.0)	1 (4.0)	0 (0.0)	3 (9.4)	0 (0.0)	5 (4.6)
지하철역, 지하도안, 기차역 버스정류장, 육교아래	1 (3.7)	1 (9.1)	0 (0.0)	0 (0.0)	2 (6.3)	0 (0.0)	4 (3.7)
디스코장, 락카페	0 (0.0)	0 (0.0)	0 (0.0)	0 (0.0)	1 (3.1)	0 (0.0)	1 (0.9)
커피 전문점, 카페	0 (0.0)	0 (0.0)	0 (0.0)	0 (0.0)	0 (0.0)	1 (12.5)	1 (0.9)
소주방, 호프집, 술집	0 (0.0)	0 (0.0)	2 (8.0)	0 (0.0)	1 (3.1)	0 (0.0)	3 (2.8)
기타	4 (14.8)	0 (0.0)	1 (4.0)	1 (20.0)	3 (9.4)	0 (0.0)	9 (8.3)

집단별로 피해장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주택가 골목길과 만화가게가 폭행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중학생들이 의해 폭행을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로 초등학생들이 출입하는 만화가게가 폭행 피해 장소로 사용된다고 생각된다. 여학생의 경우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금품갈취를 당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폭행은 주로 교실 안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교실 안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한율이 27.3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주택가 골목길과 학교 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에서 폭행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음 순으로 남학생은 교

실 안에서의 폭행 피해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여학생은 남학생과는 달리 학교 근처 큰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율이 높다. 또한 여학생(교실 안, 학교 화장실, 학교 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 : 20%)에 비해 남학생의 교내 폭행 발생율(교실 안, 학교 화장실, 학교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 : 40%)이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생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교실 안에서 폭행을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이 당하는 폭행의 1/4이 바로 교실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실 내의 공공연한 폭행에 대한 지도가 요망된다.

3) 피해시기

〈표 42〉 〈표 43〉에 의하면 폭행 피해의 약 68%가 평일에 발생하며, 학교 길에서 반수 가량이 피해를 입는다. 또한 학교에 있는 동안에 폭행을 당하는 비율도 22.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 폭행과 피해요일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주 중	16 (59.3)	9 (69.2)	17 (68.0)	5 (100.0)	22 (71.0)	4 (57.1)	73 (67.6)
주말, 공휴일	11 (40.7)	4 (30.8)	8 (32.0)	0 (0.0)	9 (29.0)	3 (42.9)	35 (32.4)

그 중 중·고등학교의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학교에 있는 동안 폭행 피해를 입는 비율이 높다. 이 중에서도 특히 남자 고등학생은 오히려 학교 길에서의 폭행율보다도 학교에 있는 동안의 폭행율이 높아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교내 폭력이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폭행과 피해시간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등교 길에서	2 (7.4)	1 (7.1)	1 (4.0)	0 (0.0)	2 (6.5)	0 (0.0)	6 (5.6)
학교에 있는 동안	1 (3.7)	3 (21.4)	7 (28.0)	0 (0.0)	12 (38.7)	1 (16.7)	24 (22.2)
하교 길에서	21 (77.8)	8 (57.1)	10 (40.0)	4 (80.0)	7 (22.6)	5 (83.3)	55 (50.9)
방과 후 밤에	3 (11.1)	2 (14.3)	7 (28.0)	1 (20.0)	10 (32.3)	0 (0.0)	23 (21.3)

다. 가해자 특성

1) 가해자 상태

아래의 결과는 폭행 발생시 가해자의 상태에 대한 것이다.

〈표 44〉

폭행 가해자 음주 여부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예	2 (8.3)	0 (0.0)	0 (0.0)	0 (0.0)	2 (3.1)
아니오	18 (75.0)	6 (100.0)	26 (89.7)	6 (100.0)	56 (86.2)
모르겠다	4 (16.7)	0 (0.0)	3 (10.3)	0 (0.0)	7 (10.8)

〈표 45〉 폭행 가해자 흉기 소지 여부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예	4 (14.3)	3 (25.0)	5 (21.7)	2 (33.3)	13 (10.3)	1 (16.7)	18 (17.3)
아니오	19 (67.9)	8 (66.7)	14 (60.9)	4 (66.7)	19 (65.5)	5 (83.3)	69 (66.3)
모르겠다	5 (17.9)	1 (8.3)	4 (17.4)	0 (0.0)	7 (24.1)	0 (0.0)	17 (16.3)

폭행 가해자는 86.2%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여기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수치마저 더하면 가해자의 약 3%만이 음주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60% 이상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20% 미만의 가해자가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가해자의 폭력씨클 가입 여부

폭행 가해자가 폭력 씨클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를 묻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0%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율은 금품갈취 가해자의 12.6%가 폭력 씨클에 확실히 가입해 있다는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표 47 참조), 학교 폭력 중 폭행을 하는 가해자가 금품갈취를 하는 가해자보다는 폭력 씨클에 연루된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응답한 율을 합치면 폭행 가해자의 반 수 이상이 폭력 씨클에 가담되어 있는 학생이라 볼 수 있다.

〈표 46〉 가해자의 폭력씨클 가입 여부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모르겠다	9 (37.5)	2 (33.3)	18 (62.1)	3 (50.0)	32 (49.2)
그런 것 같다	9 (37.5)	3 (50.0)	6 (20.7)	2 (33.3)	20 (30.8)
확실히 그렇다	6 (25.0)	1 (16.7)	5 (17.2)	1 (16.7)	13 (20.0)

3) 가해자 동일인 여부

폭행을 여러 번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동일한 사람이었는지를 질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7〉 폭행 가해자 동일인 여부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매번 다른 사람	8 (34.8)	1 (9.1)	7 (41.2)	0 (0.0)	10 (52.6)	1 (50.0)	27 (36.5)
어쩌다 같은 사람	5 (21.7)	3 (27.3)	3 (17.6)	0 (0.0)	2 (10.5)	0 (0.0)	13 (17.6)
주로 같은 사람	3 (13.0)	5 (45.5)	6 (35.3)	1 (50.0)	5 (26.3)	1 (50.0)	21 (28.4)
항상 같은 사람	7 (30.4)	2 (18.2)	1 (5.9)	1 (50.0)	2 (10.5)	0 (0.0)	13 (17.6)

전반적으로 폭행 가해자가 동일인이었는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번 다른 사람(36.5%) > 주로 같은 사람(28.4%) > 항상 같은 사람, 어쩌다 같은 사람(각각 17.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의 금품갈취 가해자 동일인 여부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선 매번 다른 사람이었다는 비율이 폭행 가해자의 경우(36.5%)가 금품갈취 가해자(49.1%)보다 떨어짐에 주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폭행 가해자의 경우는 두 번째로 주로 같은 사람(28.4%)인 경우가 많았으나, 금품갈취는 어쩌다 같은 사람(16.7%)이 다음을 차지했었다. 또한 항상 같은 사람이었다는 비율도 폭행 가해자(17.6%)가 금품갈취(13%)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금품갈취를 당하는 것보다는 폭행을 당할 때 동일인에게서 반복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4) 가해자 수

전반적으로 폭행 가해자는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43.3%), 가해

자가 2-4명인 경우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갖는다(42.3%).

〈표 48〉 폭행 가해자 수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1 명	12 (41.4)	4 (28.6)	13 (61.9)	0 (0.0)	13 (46.4)	3 (42.9)	45 (43.3)
2 - 4 명	14 (48.3)	7 (50.0)	5 (23.8)	4 (80.0)	11 (39.3)	3 (42.9)	44 (42.3)
5명 이상	3 (10.3)	3 (21.4)	3 (14.3)	1 (20.0)	4 (14.3)	1 (14.3)	15 (14.4)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경우는 폭행 피해자가 2-4명이 많았으나 중학교 이상의 남자는 오히려 1명이 폭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의 경우에는 단독가해자에 의한 금품갈취 비율이 29.5% 〈표 49참조〉에 해당했으나, 폭행은 가해자가 1명인 경우가 43.3%나 되어 금품갈취에 비하면 단독으로 가해를 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 가해자 성별

① 1명일 경우

〈표 49〉 폭행 가해자 성별 : 1명일 경우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 자	21 (100.0)	0 (0.0)	20 (100.0)	0 (0.0)	41 (91.1)
여 자	0 (0.0)	1 (100.0)	0 (0.0)	3 (100.0)	4 (8.9)

〈표 50〉은 성별에 따라 폭행 가해자의 성별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모두 남자이며, 피해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가해자도 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성과 이성이 모두 가해자일 수 있는 금품갈취와는 달리 폭행은 주로 가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동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2명 이상일 경우

〈표 50〉 폭행 가해자 성별 : 2명 이상일 경우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부 남자	8 (80.0)	1 (16.7)	17 (89.5)	0 (0.0)	26 (66.7)
전부 여자	0 (0.0)	3 (50.0)	0 (0.0)	4 (100.0)	7 (17.9)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다	2 (20.0)	2 (33.3)	1 (5.3)	0 (0.0)	5 (12.8)
모르겠다	0 (0.0)	0 (0.0)	1 (5.3)	0 (0.0)	1 (2.6)

가해자 수가 2명 이상일 경우의 가해자의 성별도 가해자 수가 1명일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표 50〉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모두 여자인 경우는 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80% 이상이 모두 동성인 남자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가 여자일 경우에도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는 가해자가 남자였던 적은 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만 가해자가 모두 이성이었던 비율이 16.7%로 나타났으나, 이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따라서 신체적인 무력 행사가 동반되는 폭행의 경우는 동성이 피해의 상대가 되며 곧 가해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6) 가해자 신분

① 1명일 경우

〈표 51〉 폭행 가해자 신분 : 1명일 경우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같은 반 학생	0 (0.0)	2 (50.0)	7 (33.3)	0 (0.0)	8 (40.0)	0 (0.0)	17 (27.4)
같은 학교 선배	3 (25.0)	0 (0.0)	3 (14.3)	2 (100.0)	3 (15.0)	1 (33.3)	12 (19.4)
다른 반 학생	0 (0.0)	0 (0.0)	1 (4.8)	0 (0.0)	3 (15.0)	0 (0.0)	4 (6.5)
다른 학교 동급생	1 (8.3)	0 (0.0)	1 (4.8)	0 (0.0)	1 (5.0)	1 (33.3)	4 (6.5)
다른 학교 선배	4 (33.3)	1 (25.0)	3 (14.3)	0 (0.0)	3 (15.0)	1 (33.3)	12 (19.4)
동네 동년배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1 (1.6)
동네 선배	1 (8.3)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
모르겠다	3 (25.0)	1 (25.0)	5 (23.8)	0 (0.0)	2 (10.0)	0 (0.0)	11 (17.7)

전반적으로 가해자가 1명일 경우 폭행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인 경우(27.4%)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금품갈취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 선배(18.8%)가 가해자였던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폭행 가해자는 동년배인 같은 반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 가해자가 동년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보다 상급자인 같은 학교 선배와 다른 학교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도 약 39%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남학생은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보여준다. 피해자의 33.3%가 다른 학교 선배로부터, 25%는 같은 학교 선배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중학교 이상의 남학생은 같은 반 학생이 폭행 가해자였던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어릴수록 상급생들에 의한 폭행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일 경우

〈표 52〉 폭행 가해자 신분 : 2명 이상일 경우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같은 반 학생	2 (11.8)	1 (10.0)	0 (0.0)	1 (16.7)	1 (5.3)	0 (0.0)	5 (7.6)
같은 학교 선배	3 (17.6)	4 (40.0)	1 (10.0)	3 (50.0)	3 (15.8)	1 (25.0)	15 (22.7)
다른 반 학생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1 (1.5)
다른 학교 동급생	2 (11.8)	0 (0.0)	1 (10.0)	1 (16.7)	4 (21.1)	1 (25.0)	9 (13.6)
다른 학교 선배	6 (35.3)	3 (30.0)	3 (30.0)	1 (16.7)	6 (31.6)	1 (25.0)	20 (30.3)
동네 선배	3 (17.6)	1 (10.0)	0 (0.0)	0 (0.0)	0 (0.0)	0 (0.0)	4 (6.1)
모르겠다	1 (5.9)	1 (10.0)	5 (50.0)	0 (0.0)	5 (26.3)	0 (0.0)	12 (18.2)

단독 가해가 아닌 집단 가해일 경우에도 폭행 가해자의 신분이 변함없이 없는지를 알아본 결과, 가해자의 수에 따라 가해자의 신분이 달라짐을 발견했다.

〈표 52〉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가해자의 신분은 다른 학교 선배인 경우가 가장 많고(30.3%), 다음이 같은 학교 선배(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초등학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중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같은 반 학생이 가해자였던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가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 두 집단 역시 다른 학교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가해자의 수에 따라 가해자의 신분이 다른 것은 어떤 성격의 폭행이었느냐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가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남성다움의 표상에 의해 허용되는 중·고등학교 남학생간의 주먹다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반 학생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말 그대로의 집단 폭행의 성격을 띠는 폭력일 가능성이 높아 상급생으로부터의 폭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가해자 면식정도

① 1명일 경우

폭행 가해자가 1명일 경우 피해를 당한 전체 응답자의 31.1%가 가해자를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안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2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약 69%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폭행은 금품갈취보다는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금품갈취 : 모른다 47.5%).

<표 53> 폭행 가해자의 면식정도 : 1명일 경우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잘 안다	3 (15.0)	2 (100.0)	5 (25.0)	1 (33.3)	11 (24.4)
약간 아는 사람	6 (30.0)	0 (0.0)	2 (10.0)	1 (33.3)	9 (20.0)
얼굴만 아는 사람	4 (20.0)	0 (0.0)	7 (35.0)	0 (0.0)	11 (24.4)
모른다	7 (35.0)	0 (0.0)	6 (30.0)	1 (33.3)	14 (31.1)

② 2명 이상일 경우

〈표 54〉 폭행 가해자의 면식정도 : 2명 이상일 경우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잘 안다	0 (0.0)	2 (50.0)	2 (16.7)	0 (0.0)	4 (16.0)
약간 안다	2 (33.3)	1 (25.0)	5 (41.7)	0 (0.0)	8 (32.0)
얼굴만 안다	4 (66.7)	1 (25.0)	5 (41.7)	3 (100.0)	13 (52.0)

가해자가 집단일 경우에 이들 중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에 해당한다. 금품갈취의 경우에는 74.1%가 모두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폭행 가해자가 금품갈취 가해자에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해자를 이전부터 알고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친숙한 사이인가에 대한 질문에 절반 정도가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폭행 가해자 친숙정도 : 2명 이상일 경우 ()안은 %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잘 안다	0 (0.0)	2 (50.0)	2 (16.7)	0 (0.0)	4 (16.0)
약간 안다	2 (33.3)	1 (25.0)	5 (41.7)	0 (0.0)	8 (32.0)
얼굴만 안다	4 (66.7)	1 (25.0)	5 (41.7)	3 (100.0)	13 (52.0)

3. 괴롭힘

가. 피해경험

1) 괴롭힘의 피해정도

괴롭힘은 학교주변 폭력의 하나로 누군가가 괜히 놀리고, 건드리거나, 속제를 시키는 등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경험을 의미한다.

〈표 56〉

괴롭힘 피해율

()안은 %

피해유형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X ²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괴롭힘	157 (17.4)	36 (28.6)	34 (27.2)	38 (24.5)	9 (8.0)	32 (18.9)	8 (3.8)	59.55***

〈표 56〉에 의하면, 괴롭힘의 피해율은 전체적으로 17.4%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숫치는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등의 학교 폭력 중 금품갈취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서, 학교 폭력의 피해율은 금품갈취(21.8%) > 괴롭힘(17.4%) > 폭행(15.5%) 순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남녀를 불문하고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피해율을 보여(남자 : 28.6%, 여자 : 27.2%), 괴롭힘이라는 유형의 폭력이 초등학교에 만연되고 있는 폭력의 한 형태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수준과 성별을 모두 고려한 여섯 집단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집단은 초등학교 남학생인 것으로 보이며(28.6%), 초등학교 여학생과 중학교 남학생이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또한 가장 적은 피해를 입는 집단은 고등학교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3.8%). 각 집단과 괴롭힘 피해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p < .001$).

2) 학교형태

고등학교의 학교 형태와 괴롭힘은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서로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피해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피해율보다 다소 높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표 57> 학교형태와 괴롭힘 피해율과의 관계 ()안은 %

피해유형	고등학교		X ²
	인문계	실업계	
괴롭힘	21(9.0)	18(11.6)	71 N.S

3) 학교소재지

<표 58> 학교소재지와 괴롭힘 피해율과의 관계 ()안은 %

피해유형	강남	강북	X ²
괴롭힘	72(16.5)	84(18.1)	41 N.S

괴롭힘에 대한 피해율과 학교의 위치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주변 폭력 중 금품갈취와 폭행의 경우에는 모두 강북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피해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괴롭힘의 경우에는 소재지에 따른 피해율의 차가 근소하다. 이러한 피해율의 근소한 차이를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괴롭힘 유형의 폭력이 학교주변 폭력 발생을 증 차지하는 비율이 강북에 비해 강남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다.

4) 신 장

금품갈취와 폭행은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키가 작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키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의 피해율이 가장 작았다. 그러나, 괴롭힘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키가 중간이라고 대답한 학생의 피해율이 3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키가 중간에 해당하는 집단에 소속된 학생의 괴롭힘 피해율이 32.1%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9〉 신장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 : 초등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작은 편	중 간	큰 편	작은 편	중 간	큰 편
없 다	23 (71.9)	42 (64.6)	24 (85.7)	31 (79.5)	38 (67.9)	22 (73.3)
있 다	9 (28.1)	23 (35.4)	4 (14.3)	8 (20.5)	18 (32.1)	8 (26.7)

중학교 남학생 역시 신장이 평균인 학생들의 피해율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은 평균보다 작은 학생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남학생은 키가 가장 큰 178cm 이상인 학생의 피해율과 평균에 해당하는 키인 171-173cm의 학생의 피해율이 비슷하다. 여학생은 키가 작은 157cm 이하의 학생과 평균보다 키가 큰 164-167cm 학생의 피해율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60〉 중학생의 신장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 : 중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154이하	155-160	161-165	166-170	170이상	152이하	153-157	158-160	161-162	163이상
없다	21 (75.0)	26 (78.8)	17 (60.7)	22 (75.9)	23 (88.5)	19 (90.5)	21 (87.5)	25 (96.2)	17 (100.0)	14 (93.3)
있다	7 (25.0)	7 (21.2)	11 (39.3)	7 (24.1)	3 (11.5)	2 (9.5)	3 (12.5)	1 (3.8)	0 (0.0)	1 (6.7)

〈표 61〉 고등학생의 신장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 : 고등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166이하	167-170	171-173	174-177	178이상	157이하	158-160	161-163	164-167	168이상
없다	26 (83.9)	34 (81.0)	18 (75.0)	26 (92.9)	23 (74.2)	38 (92.7)	25 (96.2)	47 (100.0)	35 (92.1)	35 (97.2)
있다	5 (16.1)	8 (19.0)	6 (25.0)	2 (7.1)	8 (25.8)	3 (7.3)	1 (3.8)	0 (0.0)	3 (7.9)	1 (2.8)

종합적으로 남학생의 경우는 신장이 평균에 해당할 때 괴롭힘을 상대적으로 많이 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여학생은 일반적인 양상을 찾기 어렵다.

5) 체 중

초등학생의 체중과 괴롭힘 피해율과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학생은 체중이 보통 이하일 경우 상대적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학생은 이와 반대로 체중이 보통 이상일 경우 괴롭힘을 당하는율이 많다. 따라서 남학생은 왜소할수록, 여학생은 뚱뚱할수록 놀림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여자인 경우에는 말라야만 예쁘다고 하며 뚱뚱한 것을 혐오하는 문화가 현재 팽배 중이어서 초등학교에서마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것이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발미거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62> 체중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 : 초등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마른 편	보 통	뚱뚱한 편	마른 편	보 통	뚱뚱한 편
없다	24 (68.6)	48 (69.6)	16 (84.2)	23 (82.1)	56 (69.1)	10 (71.4)
있다	11 (31.4)	21 (30.4)	3 (15.8)	5 (17.9)	25 (30.9)	4 (28.6)

<표 63> 체중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 : 중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40이하	41-48	49-53	54-60	61이상	40이하	41-44	45-47	48-50	51이상
없다	22 (78.6)	25 (80.6)	20 (74.1)	27 (77.1)	15 (62.5)	17 (89.5)	12 (85.7)	20 (95.2)	14 (93.3)	16 (100.0)
있다	6 (21.4)	6 (19.4)	7 (25.9)	8 (22.9)	9 (37.5)	2 (10.5)	2 (14.3)	1 (4.8)	1 (6.7)	0 (0.0)

〈표 64〉 체중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 : 고등학교 ()안은 %

	남 자					여 자				
	51이하	52-55	56-60	61-67	68이상	47이하	48-49	50-52	53-55	56이상
없다	22 (73.3)	28 (82.4)	25 (89.3)	29 (85.3)	24 (77.4)	37 (97.4)	48 (95.0)	36 (100.0)	41 (97.6)	31 (88.6)
있다	8 (26.7)	6 (17.6)	3 (10.7)	5 (14.7)	7 (22.6)	1 (2.6)	2 (4.0)	0 (0.0)	1 (2.4)	4 (11.4)

중학교 남학생은 모든 체중에서 괴롭힘의 피해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61kg 이상인 학생들, 즉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집단이 괴롭힘 피해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이 보여주는 결과는 다소 의외다.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여학생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체중이 평균 미만일 때 괴롭힘을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이 보여주는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다. 남학생의 경우는 51kg 이하의 집단과 68kg 이상의 집단이 높은 피해율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너무 말랐거나 너무 뚱뚱한 것이 피해 대상자로서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학생은 일반적인 통념과 맞게 56kg 이상인 집단, 즉 상대적으로 가장 뚱뚱한 집단이 가장 많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은 마를수록, 중·고등학생은 뚱뚱할수록 괴롭힘의 대상이 되며, 여학생은 중학생을 제외하고는 뚱뚱할수록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피해 상황

1) 피해 형태

괴롭힘은 금품갈취나 폭행과는 또 다른 학교주변 폭력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등한시되어 왔던 괴롭힘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상징하고 그에 따른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기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 만연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65〉

괴롭힘 피해 형태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특별한 이유 없이 놀림	23 (60.5)	17 (50.0)	11 (26.2)	3 (33.3)	9 (25.0)	5 (62.5)	68 (40.7)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8 (21.1)	13 (39.4)	4 (9.8)	1 (11.1)	3 (8.3)	2 (25.0)	31 (18.8)
공연히 툭툭 치며 괴롭힘	14 (36.8)	11 (33.3)	25 (61.0)	5 (55.6)	19 (51.4)	2 (25.0)	76 (45.8)
심부름을 시킴	2 (5.3)	4 (12.1)	5 (12.2)	0 (0.0)	17 (45.9)	1 (12.5)	29 (17.5)
가방, 물건을 들고 가라함	3 (7.9)	2 (6.1)	1 (2.4)	0 (0.0)	0 (0.0)	0 (0.0)	6 (3.6)
시험지 보여 달라함	2 (5.3)	5 (15.2)	2 (4.9)	0 (0.0)	2 (5.6)	0 (0.0)	11 (6.7)
숙제시킴	1 (2.6)	4 (12.1)	11 (26.9)	0 (0.0)	12 (32.4)	1 (12.5)	29 (17.5)
기타	0 (0.0)	7 (21.9)	3 (7.5)	2 (22.2)	3 (8.3)	0 (0.0)	15 (9.3)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초, 중,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형태의 괴롭힘은 45.8%의 '공연히 툭툭 치며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 순위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놀림'의 형태가 차지했다. 따라서 피해 학생들은 가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툭툭침을 당하거나 놀림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먼저 남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놀림'을 당한 경우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남학생은 공연히 툭툭 치며 괴롭힘(36.8%) >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21.1%)이, 여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39.4%) > 공

연히 툭툭 치며 괴롭힘(33.3%) 인 것으로는 나타났다.

중학생은 초등학생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놀림을 많이 당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공연히 툭툭치는 형태’의 괴롭힘을 남녀 모두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남자 : 61%, 여자 : 55.6%).

고등학생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어, 남학생의 경우는 ‘공연히 툭툭치는 형태’가, 여학생은 ‘특별한 이유 없이 놀리는 형태’의 괴롭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형태의 각 항목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특별한 이유 없이 놀리는 형태’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리는 형태’의 괴롭힘은 초등학생과 고등학교 여학생에게서 월등히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공연히 툭툭치는 형태’의 괴롭힘은 중학생과 고등학교 남학생에게서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경험되고 있으나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

다음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형태’의 괴롭힘은 고등학교 남학생에게서 타집단에 비해 거의 4배에서 9배 가량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가방이나 물건을 들고 가라고 시킴’의 피해 형태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한 유형임을 알 수 있으며, ‘시험지를 보여달라는 괴롭힘’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입는 피해형태이다.

숙제를 대신 하라고 강요당하는 형태의 괴롭힘은 주로 남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많이 당하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9.3%로서 여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피해반복정도

남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66〉 괴롭힘 피해반복 정도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거의 매일	13 (33.3)	12 (37.5)	15 (40.5)	0 (0.0)	15 (40.5)	4 (50.0)	59 (36.6)
일주일에 한두번	12 (30.3)	8 (25.0)	11 (29.7)	3 (37.5)	14 (37.8)	3 (37.5)	51 (31.7)
한 달에 서너번	3 (7.7)	1 (3.1)	3 (8.1)	1 (12.5)	2 (5.4)	0 (0.0)	10 (6.2)
한 달에 한두번	6 (15.4)	6 (18.8)	2 (5.4)	1 (12.5)	1 (2.7)	1 (12.5)	17 (10.6)
두세 달에 한두번	5 (12.8)	5 (15.6)	6 (16.2)	3 (37.5)	5 (13.5)	0 (0.0)	24 (14.9)

〈표 66〉에 의하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 중 중학교 여학생만을 제외한 초, 중, 고학생들의 많은 숫자가 거의 매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주일에 한두번 괴롭힘을 당한다는 비율마저 고려한다면 여자 중학생을 제외한 다른 집단의 경우에는 적게는 약 60%에서부터 많게는 약 88%에 이른다. 따라서 괴롭힘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폭력 유형임을 알 수 있다.

3) 피해정도

이상의 여러 형태의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어떠한 상태에 놓이는지에 관해 질문하여 보았다.

초등학교 남학생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수가 괴롭힘의 피해 정도를 ‘신경이 좀 쓰였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응답자의 37.5%가 ‘별 것 아니었다’라고 하여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보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괴롭힘 피해정도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별 것 아니었다	15 (37.5)	8 (23.5)	9 (23.1)	2 (22.2)	5 (13.5)	2 (25.0)	41 (24.6)
신경이 좀 쓰였다	12 (30.0)	14 (41.2)	19 (48.7)	5 (55.6)	17 (45.9)	3 (37.5)	70 (41.9)
참기 좀 힘들었다	10 (25.0)	8 (23.5)	7 (17.9)	2 (22.2)	8 (21.6)	1 (12.5)	36 (21.6)
참기 상당히 힘들었다	1 (2.5)	2 (5.9)	1 (2.6)	0 (0.0)	1 (2.7)	0 (0.0)	5 (3.0)
참기 매우 힘들었다	2 (5.0)	2 (5.9)	3 (7.7)	0 (0.0)	6 (16.2)	2 (25.0)	15 (9.0)

그러나, 사소한 금품갈취나 폭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의 학교폭력이지만 참기 힘들었다고 응답한 상당수의 비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기 좀 힘들었다’와 ‘참기 상당히 힘들었다’ ‘참기 매우 힘들었다’의 비율을 합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피해 남학생 32.5% 여학생 35.3%, 중학교 피해 남학생 28.2% 여학생 22.2%가 된다.

특히 괴롭힘의 폭력에 힘들어하는 집단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피해남학생의 40.5% 여학생의 37.5%나 되는 학생이 참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두 집단의 경우에는 참기 매우 힘들었다고 보고하는 율도 가장 높아 남학생의 16.2%, 여학생의 25%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피해학생들이 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나타낸다.

제 2 절 신 고

1. 타인인지상황

1) 타인인지여부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과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이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표 68〉 피해경험과 타인인지여부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그렇다	25 (61.0)	20 (64.5)	61 (87.1)	13 (76.5)	43 (76.8)	18 (85.7)	180 (76.3)
그렇지 않다	16 (39.0)	11 (35.5)	9 (12.9)	4 (23.5)	13 (23.2)	3 (14.3)	56 (23.7)

학교주변 폭력을 당했을 경우 응답자의 약 76%가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타인의 인지도는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가 가장 낮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 타인인지상황

타인인지상황은 학교주변 폭력을 당한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표 69〉 피해경험과 타인인지상황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부모님	9 (28.1)	14 (63.6)	24 (39.3)	9 (69.2)	9 (20.0)	10 (55.6)	75 (39.3)
형제	5 (15.6)	3 (13.6)	17 (27.9)	5 (38.5)	7 (15.6)	4 (22.2)	41 (21.5)
친척	1 (3.1)	1 (14.5)	5 (8.2)	2 (15.4)	0 (0.0)	1 (5.6)	10 (5.2)
친구	15 (46.9)	11 (50.0)	51 (85.0)	11 (84.6)	39 (86.7)	16 (88.9)	143 (75.3)
선생님	1 (3.1)	2 (9.1)	3 (5.0)	2 (15.4)	3 (6.7)	0 (0.0)	11 (5.8)
경찰	1 (3.1)	0 (0.0)	1 (1.7)	1 (7.7)	0 (0.0)	2 (11.1)	5 (2.6)
기타	2 (6.3)	1 (4.5)	1 (1.7)	2 (15.4)	2 (4.4)	0 (0.0)	8 (4.2)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친구(75.3%)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모님(약 39%), 형제(21.5%)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생님과 경찰의 인지도는 극히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여학생은 유일하게 부모님이 친구보다도 피해사실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기타 다른 집단은 모두 상대적으로 친구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

집단에 따라 타인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형제, 친척, 선생님, 경찰, 기타일 경우에는 각 집단간의 인지율이 유사하나, 부모님과 친구가 알고 있을 경우에는 집단에 따라 인지율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중 부모님이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고 계시는 인지율은 초, 중, 고등학교

모두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학생의 부모님 인지율이 남학생에 비해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구는 피해사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타인인데(단 초등학교 여학생 제외), 각 집단의 친구 인지율을 비교해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집단의 친구 인지율이 초등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의 더욱 밀접해지며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타인인지시기

친구나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70) 타인인지시기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피해 당한 즉시	21 (70.0)	14 (66.7)	53 (91.4)	12 (92.3)	38 (88.4)	16 (100.0)	154 (85.1)
한참 시달린 후	9 (30.0)	7 (33.3)	5 (8.6)	1 (7.7)	5 (11.6)	0 (0.0)	27 (14.9)

타인의 인지시기는 학교수준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 초등학생들은 남녀 모두 한참을 시달린 후 타인이 그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응답한 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피해를 당한 즉시 타인이 그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4) 타인인지원인

본인의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말함’ ‘물어봐서 말함’ ‘문제가 생겨 자연히 알게 됨’ ‘피해시 같이 있었음’ 등으로 나타냈다.

〈표 71〉

타인인지원인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내가 스스로 말함	13 (46.4)	18 (85.7)	33 (58.9)	7 (58.3)	25 (58.1)	12 (75.0)	108 (61.4)
때 맞은 상자를 보거나, 대 청문을 보고 물어봐서 말함	4 (14.3)	2 (9.5)	4 (7.1)	3 (25.0)	4 (9.3)	2 (12.5)	19 (10.8)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 자연히 알게 됨	6 (21.4)	0 (0.0)	5 (8.9)	0 (0.0)	8 (18.6)	1 (6.3)	20 (11.4)
같이 있었음	5 (17.9)	1 (4.8)	14 (25.0)	2 (16.7)	6 (14.0)	1 (6.3)	29 (16.5)

피해학생 전체 응답의 결과로는 본인이 스스로 말해서 타인이 알게 됐다는 경우가 61.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피해를 당할 때 친구와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16.5%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 자연히 알게 된 경우와 물어봐서 말했다는 경우가 비슷한 정도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각 집단이 모두 '내가 스스로 말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기타 문항에 대한 응답율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 알게 된 경우와 물어봐서 말했다는 경우의 응답분포는 상대적으로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초·중·고등학교의 남학생들은 모두 문제가 생겨 자연히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율이 물어봐서 말한 율보다 더 높고, 여학생들은 이와는 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의로 타인에게 알린 경우가 가장 많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학생들은 타인이 수상히 여겨 물어보아 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남학생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남이 알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를 친구와 함께 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구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율도 여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자발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경우는 피해학생의 반수 조금 넘는 학생들 만이고, 기타 학생들은 피해사실의 노출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 2의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숨기려는 태도에 대한 지도와 홍보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2. 타인에 대한 보고여부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사실을 본인 스스로 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타인을 부모님, 선생님, 경찰로 세분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1)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이유

피해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해가 심하지 않아, 창피해서, 알려봤자라서, 야단 맞을까봐, 보복 당할까봐, 비겁한 것 같아서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표 72>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	18 (51.4)	11 (57.9)	27 (61.4)	4 (40.0)	20 (40.8)	4 (50.0)	84 (50.9)
창피해서	0 (0.0)	0 (0.0)	0 (0.0)	0 (0.0)	4 (8.2)	0 (0.0)	4 (2.4)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4 (11.4)	2 (10.5)	10 (22.7)	3 (30.0)	8 (16.3)	1 (12.5)	28 (17.0)
야단 맞을지도 몰라서	4 (11.4)	1 (5.3)	2 (4.5)	2 (20.0)	3 (6.1)	0 (0.0)	12 (7.3)
보복 당할까봐	7 (20.0)	4 (21.1)	4 (9.1)	1 (10.0)	10 (20.4)	2 (25.0)	28 (17.0)
비겁한 것 같아서	2 (5.7)	1 (5.3)	1 (2.3)	0 (0.0)	4 (8.2)	1 (12.5)	9 (5.5)

전체적으로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학생들의 절반 가량이 ‘피해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보복 당할까봐’와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차지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첫째,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둘째, 뒤이은 보복에의 두려움이며, 셋째,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려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부모가 제시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남학생 집단에서 고등학교 여학생에 이르기까지 전체 집단이 모두 첫 번째 이유로 ‘피해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을 꼽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집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초등학교생의 경우는 피해사실을 남에게 알린 것을 가해자가 알면 다시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약 20% 정도 된다. 이와 동일하게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보복을 당할까봐’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한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는 남녀 모두 부모님이 아서봤자 뽀족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남녀의 응답을 보면 피해 당한 일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비겁하다고 판단되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율이 남학생 8.2%, 여학생 12.5%의 분포를 보여,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타집단에 비해 스스로를 더 성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피해 당한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그 일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른스럽지 못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는 학교주변 폭력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덮어버리는 폭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허용 문화의 존재이다. 또한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폭력 앞에서 부모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힘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피해 당한 사실을 누구에겐가 알리는 것은 무척이나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토마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주변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상의 이유들에 대한 계몽과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2) 선생님께 알리지 않은 이유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 사실을 선생님께 이야기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로는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이유의 동일하게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48.4%). 다음으로는 알려봤자 교사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가 차지했으며(20.8%), 보복을 당할까봐도 19.8%로 세번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선생님께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	21 (58.3)	14 (60.9)	30 (54.5)	4 (30.8)	19 (36.5)	5 (38.5)	93 (48.4)
창피해서	2 (5.6)	0 (0.0)	1 (1.8)	1 (7.7)	4 (7.7)	0 (0.0)	8 (4.2)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3 (8.3)	2 (8.7)	14 (25.5)	5 (38.5)	12 (23.1)	4 (30.8)	40 (20.8)
야단 맞을지도 몰라서	0 (0.0)	1 (4.3)	0 (0.0)	1 (7.7)	3 (5.8)	0 (0.0)	5 (2.6)
보복 당할까봐	8 (22.2)	5 (21.7)	9 (16.4)	2 (15.4)	11 (21.2)	3 (23.1)	38 (19.8)
비겁한 짓 같아서	2 (5.6)	1 (4.3)	1 (1.8)	0 (0.0)	3 (5.8)	1 (7.7)	8 (4.2)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피해자의 약 60%에 해당하는 학생과 중학교 남학생의 약 55% 가량이 피해가 심하지 않아 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중학교 여학생과 고등학생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피해가 심하지 않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른 이유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와 ‘말했다는 것을 가해 학생이 알면 더 큰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이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보복을 우려해서 교사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야기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교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비율은 약 8% 남짓으로 적으며,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알리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2% 정도로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에게는 교사에 대한 불신보다는 보복의 두려움이, 중학교 이상의 학생에게는 보복의 두려움보다는 교사에 대한 불신이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된다.

3)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 심하지 않아서,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신고 방법을 몰라서, 공연히 경찰이 두려워서, 신고하면 오라 가라 할까봐 귀찮아서, 경찰에 신고한 것을 가해 학생이 알면 더 큰 보복을 할까 두려워서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표 74〉 경찰에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	20 (57.1)	20 (76.9)	35 (63.6)	4 (30.8)	21 (40.4)	6 (42.9)	106 (54.4)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3 (8.6)	2 (7.7)	11 (20.0)	2 (15.4)	10 (19.2)	5 (35.7)	33 (16.9)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서	2 (5.7)	0 (0.0)	0 (0.0)	1 (7.7)	4 (7.7)	0 (0.0)	7 (3.6)
공연히 경찰이 두려워서	1 (2.9)	0 (0.0)	1 (1.8)	2 (15.4)	3 (5.8)	0 (0.0)	7 (3.6)
신고하면 오라 가라 할까봐 귀찮아서	1 (2.9)	0 (0.0)	3 (5.5)	2 (15.4)	2 (3.8)	0 (0.0)	8 (4.1)
보복 당할까봐	8 (22.9)	4 (15.4)	5 (9.1)	2 (15.4)	12 (23.1)	3 (21.4)	34 (17.4)

피해자 전체의 응답 결과를 보면 약 반수 정도가 피해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보복을 당할까 봐(17.4%) >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16.9%) 순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 경찰을 막론하고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의 절반 가량은 본인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복의 두려움과 현실적인 해결책의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도 교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와 유사한 집단별 경향을 보인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교 남학생은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초등학생은 신고하지 않은 두번째 이유로 보복당할까봐를 들고 있으며, 중학교 이상 학생의 경우는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를 드는 경향을 보인다.

3. 신고와 예방에 대한 태도

1) 신 고

지금까지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알렸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과거 피해 경험을 알렸는지의 여부가 아닌 전반적인 신고에 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신고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첫째는 앞으로 피해를 당한다면 신고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둘째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현실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고할 것인가를 질문하였다.

본 질문은 여덟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다면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면 2점, 대체로 그렇다면 3점, 그렇다면 4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내도록 부호화 하였다.

〈표 75〉 신고에 관한 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신고해서 해결만 된다면 신고할 것이다	3.47	.98	3.59	.93	3.32	.97	3.43	.91	3.36	.90	3.48	.91	3.43	.95
보복이 없다면 신고할 것이다	3.10	1.20	3.51	.97	3.23	1.08	3.49	.94	3.17	1.13	3.34	1.05	3.28	1.08
만일 친구가 피해를 당한다면 나라도 알릴 것이다	3.51	.84	3.42	.97	2.95	1.02	3.11	1.02	2.99	.96	3.05	.94	3.13	.99
앞으로 배를 맞거나 돈, 물건	3.34	1.01	3.58	.86	3.07	1.06	3.29	1.00	2.37	1.11	3.05	1.10	3.06	1.11

등을 빼앗긴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경찰에 신고전하나 신고함이 있다면 신고할 것이다	3.09	1.10	3.16	1.10	2.77	1.09	2.95	1.16	2.53	1.07	2.75	1.09	2.83	1.12
앞으로 매를 맞거나 돈, 물건등을 빼앗긴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3.22	1.06	3.48	.94	2.72	1.13	3.10	1.03	2.33	1.05	2.58	1.10	2.82	1.13
학교에 신고전하나 신고함에 따라 설치된다면 신고할 것이다	3.14	1.07	3.28	1.02	2.72	1.11	2.88	1.15	2.43	1.09	2.66	1.12	2.80	1.13
앞으로 매를 맞거나 돈, 물건등을 빼앗긴다면 경찰에게 신고할 것이다	2.93	1.19	3.26	1.09	2.73	1.10	2.95	1.10	2.39	1.05	2.66	1.09	2.77	1.13

〈표 75〉에 제시된 결과는 여덟 항목에 대한 응답 평균과 표준편차를 전체별로,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예제 항목의 순서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을 토대로 하여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편집한 것이다.

먼저, 전체 응답을 보면 신고를 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조건은 '해결 여부'인

것을 알 수 있다. ‘신고해서 해결만 된다면 신고할 것이다’라는 항목의 응답 평균값은 3.43으로 이 값은 대체로 그렇다와 그렇다의 중간 값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결이 될 것이 보장된다면 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용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이제까지 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얘기해 봤자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표 75, 76, 77)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님과 선생님,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로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기억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고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 항목은 ‘보복이 없다면 신고할 것이다’인 것으로 나타나,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율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남에게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어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것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다음의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피해자가 내가 아닐 경우 다시 말해 친구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알리겠다고 한 항목에 3.13의 평균 응답값이 나왔다. 이 결과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보다는 친구의 피해를 알리는 것이 심적 부담이 적음을 보여준다. 본인이 피해를 당한다면, 즉 매를 맞거나,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긴다면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를 알아 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부모님, 교사, 경찰 중 상대적으로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것이다의 평균값이 3.0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사에게 알린다는 항목의 평균값은 2.82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에게 신고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질문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균값인 2.77로 나타나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다 사이를 차지했다. 따라서 남에게 알릴 경우 그 타인은 부모, 교사, 경찰 중에서 부모가 될 확률이 가장 높으며 경찰이 될 확률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신고에 대한 태도를 집단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과 유사하게 신고해서 해결만 된다면 신고할 것이다 항목의 평균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친한 친구가 피해를 당한다면 나라도 알릴 것이다’의 대립신고항목의 평균값은 남학생 3.51, 여학생 3.42로 전체응답자의 평균 3.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부

모님께 말씀드리겠다 항목의 평균값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남녀 모두 유사한 응답값을 나타낸다. 이 중 고등학교 남녀 학생은 피해사실을 교사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경찰에 신고전화나 신고함이 있다면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평균값은 모두 3.0미만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다 사이에 위치하나 특히 교사에게 말씀드릴 것이다의 평균값이 남학생은 2.33, 여학생은 2.58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인 2.8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욕은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할 수 있겠다.

2) 예 방

응답자에게 학교주변 폭력 예방방안에 관한 문항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에 이르기까지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 응답하게끔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제시된 예방방안이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표 76>는 예방에 관한 태도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과 각집단별 평균, 표준편차로 구성되었다. 항목제시는 신고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전체응답자에 의한 평균값이 높은 순서이다.

<표 76> 예방에 관한 태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M	SD
	M	SD	M	SD	M	SD	M	SD		
경찰이 학교에 상주한다면 학교주변 폭력은 예방될 것이다	2.60	1.15	2.44	1.08	2.52	1.07	2.17	0.98	2.41	1.08
경찰이 학교 주변을 순찰한다면 학교주변 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2.52	1.14	2.44	1.05	2.41	1.01	2.29	0.98	2.40	1.04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등하교 길에 순찰한다면 학교주변 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2.45	1.14	2.46	1.07	2.31	1.06	2.09	0.95	2.30	1.06
학교에서 수시로 조사를 한다면 학교주변 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2.59	1.14	2.38	1.08	2.33	1.06	2.01	0.94	2.30	1.07
시험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괴롭히는 것과 같은 폭력은 예방될 것이다	2.44	1.18	2.37	1.16	2.29	1.08	2.12	1.01	2.28	1.10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순시를 한다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2.47	1.16	2.23	1.07	2.46	1.05	1.89	0.94	2.24	1.08
경찰에 신고 전화가 있다면 학교주변 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2.21	1.07	2.24	1.11	2.06	1.01	2.00	0.98	2.10	1.04
학교에 신고함이 있다면 학교주변 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2.15	1.07	2.31	1.18	1.85	0.96	1.85	0.92	2.00	1.03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다면 학교주변 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1.74	1.01	1.90	0.95	1.52	0.77	1.57	0.77	1.66	0.87

예방방안은 9개 항목이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66에서 2.41의 평균값을 갖는다. 1.66은 그렇지 않다에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고, 2.41은 대략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대체로 그렇다의 중간 값이다. 2.41이 가장 높은 평균값이라는 것은 예방방안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도가 낮으며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예방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9개의 예방방안 중 상대적으로 예방방안으로 효율적이라고 평가받은 항목은 '경찰의 도움'이라 할 수 있다. 경찰

이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주변을 순찰한다면 학교주변 폭력이 예방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제도적인 면에 해당하는 경찰의 신고전화나 학교의 신고함 설치는 현실적으로 학교주변 폭력 예방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전화나 신고함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해 학교주변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신고에 대한 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고의 효율성과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도의 확충 및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학생들에게 신고에 대한 신뢰감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다.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나 알리고 드러내면 더 이상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시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책임감 있는 대책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전체 응답자가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다면 학교주변 폭력이 예방될 것이다'는 항목이다. 이 항목의 평균값은 1.66으로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중간 값에 해당한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상담교사 존재 자체의 무용론이다. 이 경우에는 학교에 상담교사라는 직책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학교에서 정해놓은 극히 형식적인 것이며 학생 편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둘째, 상담교사 역할에 대한 부정이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상담교사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미 학교주변 폭력은 상담교사의 능력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학교주변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상담교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어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형식적인 상담교사 제도의 개선과 문제 발생시 상담교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확대가 요망된다.

각 집단별 응답은 전체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는 등하교길의 학부모나 교사의 순찰이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데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것을 볼 수 있다.

제 3 절 피해의 원인

범죄 피해자학에 의하면 범죄 피해란 사회적 진공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양한 특성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피해자학으로부터 학교 범죄 피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그 첫째는 피해자의 생활양식이론과 근접성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등에 기초하여 피해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이다. 둘째는 피해 청소년들의 비행 성향을 살펴보았다. 비행 성향은 동일집단 이론에 입각하여 비행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가해 역시 많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성적, 부모-자녀간의 관계와 가정의 수입, 비행 친구 등 일반적인 요인들과 범죄 피해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관계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나누어 보았으며, 다시 남녀로 나누었다. 중·고등학교를 하나의 범주로 같이 묶은 주된 이유는 분석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1. 생활 양식

생활양식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교 주변에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술집 등 유흥업소’가 있는지 여부(학교주변), 등하교시에 유흥가나 우범지역을 지나게 되는가(우범지역), 야간에 외출을 자주 하는가(저녁외출), 본인의 옷차림이 유명메이커의 옷이라든지, 눈에 띄는 특이한 옷 등 옷차림이 어떠한가(옷차림), 그리고 범죄에 대한 보호능력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등하교길을 혼자 다니는가 혹은 동반자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동반여부). 그러나 괴롭힘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학교주변 환경이나 우범지역 통과여부, 동반 여부 등과의 관계는 제외하였다.

〈표 77〉을 보면 초등학교 남자의 경우 생활양식과 범죄 피해 사이에는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의 경우 옷차림만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

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괴롭힘과 폭행의 경우에는 어떠한 생활양식 관련변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옷차림의 경우를 보면 눈에 띄는 옷차림, 유명 메이커의 옷이나 유행하는 옷, 원색의 옷 등을 자주 입고 다니는 학생이 금품갈취를 당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괴롭힘은 등하교길에 우범지역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이나 저녁외출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옷차림이 화려하거나 고가의 옷을 입는 학생이 금품갈취의 피해가 높다는 것만으로 생활양식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이 검증되었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 아울러 동반 여부는 어떠한 범죄피해와도 관련이 없어 '보호능력' 역시 금품갈취 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7〉 생활 양식과 범죄 피해 : 초등학교 남학생

	학교주변	우범지역	동반여부	용 돈	옷 차 림	저녁외출
금품갈취	-.0116 P= .898	-.1319 P= .143	-.0410 P= .650	-.0214 P= .817	.1880 P= .040	.0786 P= .384
폭 행	.0555 P= .539	.1014 P= .260	.0318 P= .725	.0876 P= .343	.1472 P= .109	.1064 P= .238
괴 롭 힘				.0919 P= .320	.1343 P= .144	.0887 P= .325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자에 비해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 많다. 금품갈취를 보면 등하교길에 우범지역을 통과하는 학생이 피해를 더 많이 당한 반면에 동반자가 있는 학생은 피해를 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근접성(proximity)과 보호능력(guardianship)의 영향이 더 강하게 밝혀진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우범지역의 불량학생이 신체적인 힘이 약한 여학생을 금품갈취의 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다니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78〉 생활 양식과 범죄 피해 : 초등학교 여학생

	학교주변	우범지역	동반여부	용 돈	옷 차 립	저녁외출
금품갈취	.1595 P= .077	.2084 P= .021	-.2075 P= .020	.0160 P= .866	-.0127 P= .889	.1636 P= .071
폭 행	.1911 P= .034	.1538 P= .091	.1131 P= .209	.1695 P= .071	.2455 P= .006	.1719 P= .057
괴 롭 힘				.0855 P= .366	.1147 P= .206	.0166 P= .856

폭행 피해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오락실 등 유흥업소가 많거나 옷차림이 화려한 학생이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학생이 학교 주변 오락실 등에 자주 출입하면 폭행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옷차림의 경우를 보면 남학생은 금품갈취, 여학생은 폭행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면 화려한 옷차림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주변 폭력 피해와 가장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보인다. 남학생은 물론이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생활양식과 범죄 피해 사이에는 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9〉 생활 양식과 범죄 피해 : 중·고등학교 남학생

	학교주변	우범지역	동반여부	용 돈	옷 차 립	저녁외출
금품갈취	-.0288 P= .608	.0787 P= .160	-.0163 P= .771	.0174 P= .759	.0781 P= .161	.1095 P= .049
폭 행	.0713 P= .204	.1240 P= .027	-.0611 P= .273	.0814 P= .151	.1587 P= .004	.1772 P= .001
괴 롭 힘				-.0776 P= .171	-.1376 P= .013	-.0119 P= .831

생활양식과 범죄피해간의 관계는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도 그다지 강한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금품갈취 피해를 보면 저녁 외출을 자주 하는 학생이 더

많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폭행 경우는 옷차림을 화려하게 하거나 저녁 외출이 많은 학생, 그리고 등하교길에 우범지역을 지나는 학생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괴롭힘은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은 학생이 피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폭행과 비교해 볼 때, 폭행은 화려한 옷차림을 한 학생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하는데 반하여 괴롭힘은 화려하지 않은 학생이 더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결과는 폭행은 불량학생들의 눈에 띄는 학생이 당할 확률이 높은 반면, 괴롭힘은 힘이 약하고 초라한 학생이 피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80>는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범죄피해와 생활양식간의 상관관계이다. 여학생 역시 생활양식과 범죄피해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관계는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금품갈취와 괴롭힘은 어떠한 생활양식 관련 변인과 관련이 없으나 폭행의 경우에는 우범지역을 등하교길에 통과하는 학생과 옷차림이 화려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옷차림이 화려한 여학생이 눈에 띄는 가능성이 높으며, 우범지역을 통과할 때 여학생이기 때문에 보호능력이 없어 불량 학생의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보인다.

<표 80> 생활 양식과 범죄 피해 : 중·고등학교 여학생

	학교주변	우범지역	동반여부	용 돈	옷 차 립	저녁외출
금품갈취	-.0403 P= .472	.0490 P= .380	-.0833 P= .134	-.0220 P= .699	.0966 P= .085	.0525 P= .347
폭 행	-.0002 P= .998	.1678 P= .002	-.0279 P= .616	-.0598 P= .293	.1741 P= .002	.0874 P= .117
괴 롭 힘				-.0285 P= .617	.0514 P= .360	.0927 P= .096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사이에는 그다지 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옷차림과 관련된 범죄피해가 많으나 괴롭

힘의 경우와 폭행의 경우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관정도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설명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아울러 우범지역 통과 여부는 여학생에게는 관련이 있으나 남학생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보호능력은 주로 여학생의 범죄피해를 설명하여 주는 요인으로 보인다. 범죄피해와 생활양식 간에 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은 범죄피해가 피해자가 조심함으로 예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2. 피해자의 비행 성향

동일집단 이론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Matza가 주장한대로 인습적 가치와 일탈적 가치를 표유하는 경향이 강하여 비행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이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해를 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주로 피해만 당하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보복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인의 비행 성향과 범죄피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인의 비행 성향의 하위 변인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다르게 규정하였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비행정도를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그리고 질서비행으로 나누었으나 초등학생은 지위비행을 제외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지위비행이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있는 비행일 뿐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에게 술이나 담배 경험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한다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비행 정도에 더하여 비행 생활 양식으로서 불량써클 가입 여부, 경찰이나 학교에서 공식처벌을 받은 경험 등 역시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묻지 않았다.

〈표 81〉은 초등학교 남학생의 비행 성향과 범죄피해 간의 관계를 상관계수(Pearson-r)를 통해 알아 본 결과이다. 괴롭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본인의 비행과 범죄피해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관계가 없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폭력비행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학생이 괴롭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동일집단 가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해석된다.

〈표 81〉 비행 성향과 범죄 피해 : 초등학교 남학생

	재산비행	폭력비행	질서비행
금품갈취	.0310 P= .733	.1396 P= .122	.1121 P= .215
폭행	.0567 P= .532	.1268 P= .161	.0100 P= .912
괴롭힘	-.0271 P= .765	.2259 P= .012	.0426 P= .639

〈표 82〉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이다. 여학생도 남학생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질서비행과 금품갈취 뿐이다. 이 역시 질서비행을 많이 하는 학생이 금품갈취의 피해가 높다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인의 비행 성향이 높을수록 금품갈취의 피해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집단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82〉 비행 성향과 범죄 피해 : 초등학교 여학생

	재산비행	폭력비행	질서비행
금품갈취	.0340 P= .710	.0489 P= .590	.1886 P= .038
폭행	.0141 P= .878	.0569 P= .530	.0837 P= .361
괴롭힘	-.0719 P= .431	.1634 P= .070	-.1038 P= .257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비행 성향과 범죄 피해간의 관계 중

폭행피해는 모든 변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금품갈취와 괴롭힘은 어떠한 변인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성의 방향을 보면 모든 변인 즉 본인의 비행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폭행을 당할 확률이 높으며 그 정도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주변 폭력 중 폭행은 금품갈취나 괴롭힘과는 다른 성격이 있다는 점이며, 특히 폭행의 경우에는 비행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다른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불량 학생이 힘이 약한 선량한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부연하면, 폭행은 동일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비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 83) 비행 성향과 범죄 피해 : 중·고등학교 남학생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절서비행	공식처벌	씨클가입
금품갈취	-.0596 P= .285	.0825 P= .139	.0144 P= .797	.0035 P= .950	-.0154 P= .783	-.0616 P= .270
폭행	.2375 P= .000	.1888 P= .001	.2839 P= .000	.2098 P= .000	.2348 P= .000	.2321 P= .000
괴롭힘	-.0987 P= .076	-.0336 P= .546	-.1056 P= .058	-.1070 P= .054	-.0949 P= .088	-.1147 P= .039

이러한 경향은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 역시 금품갈취와 괴롭힘은 본인의 비행 성향과 관련이 없으나, 폭행은 상당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위비행과 재산비행 정도와는 관련이 없으며, 폭력비행, 경찰에 연행된 경험이나 학교에서 처벌 경험(공식처벌), 그리고 불량씨클 가입 등 폭력적인 비행 성향을 보여주는 변인들만이 폭행 피해와 관련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동일집단 가설의 타당성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폭행은 폭력 성향이 있는 학생들 특히 불량 씨클에서 선배가 후배를 구타한다든가,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폭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84〉 비행 성향과 범죄 피해 : 중·고등학교 여학생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질서비행	공식처벌	씨클가입
금품갈취	-.0786 P= .157	.0175 P= .752	.0757 P= .173	-.0393 P= .480	-.0585 P= .295	.0389 P= .484
폭행	.0891 P= .108	.0927 P= .095	.1718 P= .002	.2207 P= .000	.1938 P= .000	.1810 P= .001
괴롭힘	-.0279 P= .616	.0493 P= .375	.0491 P= .377	-.0153 P= .784	-.0327 P= .558	.0141 P= .800

3. 가정, 학교, 친구

마지막으로 가정, 학교, 친구와 학교주변 폭력 피해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 학교, 친구와 같은 요인은 주로 가해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변인이자 피해와 관련지은 이론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피해와 가해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없다는 점이 강하게 시사된다는 점에 더하여, 가정의 수입과 같은 변인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비추어 볼 때 부유한 가정 출신 청소년들이 피해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불량 학생에게 시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어 관계를 살펴보았다. 역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면, 성적이 비교적 나쁜 학생이 피해를 더 많이 당하거나, 불량 친구와 접촉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주변 폭력에 더 많이 시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정 관련 변인은 부모의 감독과 결혼가정, 그리고 가구 수입을 살펴보았으며, 학교는 성적, 그리고 친구는 비행 친구와 사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본인의 비행 성향과 마찬가지로 가정 변인 중 수입과 친구변인(비행친구 유무)은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질문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정의 수입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힘들어 제외하였으며, 비행 친구 여부 역시 그 신뢰성이 의심되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조사하였다.

〈표 85〉 가정환경, 성적과 범죄피해 : 초등학교 남학생

	부모감독	결손가정	학교성적
금품갈취	-.0508 P= .574	-.0173 P= .848	.0165 P= .857
폭행	-.0478 P= .596	.0119 P= .895	-.0106 P= .907
괴롭힘	-.0132 P= .884	-.0078 P= .931	-.1231 P= .175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 가정환경을 위시한 주위 환경과 범죄 피해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여학생 역시 〈표 85〉를 보면 남학생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교주변 폭력 피해가 적어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정환경을 위시한 주위 환경과도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감독이 소홀한 학생이 밖에 나가 비행 친구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며, 결손 가정 출신 학생들이 놀림을 더 받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86〉 가정환경, 성적과 범죄피해 : 초등학교 여학생

	부모감독	결손가정	학교성적
금품갈취	-.0891 P= .329	.0805 P= .372	-.0031 P= .973
폭행	-.0335 P= .714	.0889 P= .324	-.1401 P= .119
괴롭힘	-.0724 P= .428	.0255 P= .778	-.0544 P= .547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결과를 보면 동일집단 가설의 타당성이 폭행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87〉 가정환경, 성적과 범죄피해 : 중·고등학교 남학생

	비행친구	부모감독	결손가정	학교성적	수입
금품갈취	-.0560 P= .315	-.0566 P= .313	-.0136 P= .808	-.0232 P= .690	.0214 P= .719
폭행	.1768 P= .001	-.0819 P= .144	-.0478 P= .391	.1837 P= .001	-.0377 P= .526
괴롭힘	-.1010 P= .069	-.0100 P= .858	-.0373 P= .504	.0055 P= .925	-.0595 P= .317

금품갈취와 괴롭힘의 경우에는 가정환경이나 비행친구, 성적 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폭행은 비행친구와 학교 성적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비행친구와 교제를 하는 학생이, 그리고 성적이 나쁜 학생이 폭행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성적이 나쁘거나 비행친구를 사귀고 있는 학생이 학교주변 폭력을 위시한 기타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폭행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차이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고등학교 여학생은 남학생과는 달리 폭행보다는 괴롭힘과 주위환경 관련 변인간에 상관성이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모의 감독이 소홀한 학생과 수입이 적은 집안 출신의 여학생이 괴롭힘이나 놀림의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모의 감독 소홀과 비행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으나 수입은 상관성이 약하다는 기존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해석하여 보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동일집단 가설이 그다지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오히려 남학생은 비행성향이 강한 학생들 사이에서 때에 따라서는 폭행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여학생은 집안이 가난하고 집안에서도 부모의 감독을 받지 못하는 약한 학생들이 괴롭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88〉 가정환경, 성적과 범죄피해 : 중·고등학교 여학생

	비행친구	부모감독	결손가정	학교성적	수 입
금품갈취	-.0568 P= .306	-.0455 P= .415	-.0106 P= .849	.0978 P= .096	-.0407 P= .504
폭 행	.0559 P= .315	-.0940 P= .092	.0598 P= .282	.0230 P= .696	.0306 P= .616
괴 롭 힘	-.0173 P= .755	-.1223 P= .028	.0716 P= .197	.0237 P= .687	-.1396 P= .022

지금까지의 결과를 변인별 그리고 남녀 학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활양식 관련 변인을 보면 남학생은 옷차림 여학생은 옷차림과 우범지역 통과 여부, 동반 여부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 여학생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나,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상관이 나타난 변인이 조금 많아 금품갈취와는 저녁외출빈도, 폭행과는 우범지역 통과여부, 옷차림 등이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옷차림이 화려하고 저녁외출을 자주 하거나 우범지역을 등하교길에 통과하는 학생들이 금품갈취와 폭행의 피해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상관성의 정도가 그다지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비행성향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관계가 없었으나 중·고등학교는 남녀 모두 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강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피해와 가해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가정환경을 위시한 주위환경과 범죄피해 사이에서도 그다지 강한 관계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남녀 모두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중·고등학교에서도 비행친구와 성적만이 남학생의 폭행 피해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학생은 가정의 수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괴롭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요인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금품갈취는 옷차림이 화려하고 저녁외출을 자주 하는 학생이 당할

확률이 조금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여러 요인들이 설명력이 크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피해학생의 생활양식이나 비행성향 주위환경에 따라 피해율이 의미 있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금품갈취는 대부분 피해자의 탓이라기 보다는 우연히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폭행은 금품갈취에 비해 조금은 강한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 남자의 경우에는 비행성향을 비롯하여 생활양식, 성적, 비행친구 등이 발견되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저녁에 우범지역을 자주 다니며 비행성향이 있으며, 비행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성적이 비교적 좋지 않은 학생이 더 자주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폭행의 피해자는 우리가 고정 관념으로 생각하는 가해자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폭행의 경우에는 동일집단 가설의 설명력이 중·고등학교 학생에서는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괴롭힘은 초·중·고등학교 남녀 모두 한두 변인(중·고등학교 남학생 : 옷차림, 중·고등학교 여학생 : 수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변인들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괴롭힘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히 나타났다.

피해자와 특성이 가해자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동일집단 가설이 강하게 시사된다는 점을 볼 때,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일 동일집단 가설이 설명력이 우리 나라 학교주변 폭력을 상당한 수준에서 설명한다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은 "피해 - 가해" 구도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즉 "소수의 불량한 가해 학생으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라는 구도에서 접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절에서 가해와 관련이 있는 변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4 절 가해의 원인

전 절에서 학교주변 폭력의 원인을 살펴 본 결과 생활양식이론보다는 동일집단이론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주변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본 절에서는 학교주변 폭력을 가해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

확률이 조금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여러 요인들이 설명력이 크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피해학생의 생활양식이나 비행성향 주위환경에 따라 피해율이 의미 있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금품갈취는 대부분 피해자의 탓이라기 보다는 우연히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폭행은 금품갈취에 비해 조금은 강한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 남자의 경우에는 비행성향을 비롯하여 생활양식, 성적, 비행친구 등이 발견되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저녁에 우범지역을 자주 다니며 비행성향이 있으며, 비행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성적이 비교적 좋지 않은 학생이 더 자주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폭행의 피해자는 우리가 고정 관념으로 생각하는 가해자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폭행의 경우에는 동일집단 가설의 설명력이 중·고등학교 학생에서는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괴롭힘은 초·중·고등학교 남녀 모두 한두 변인(중·고등학교 남학생 : 옷차림, 중·고등학교 여학생 : 수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변인들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괴롭힘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히 나타났다.

피해자와 특성이 가해자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동일집단 가설이 강하게 시사된다는 점을 볼 때,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일 동일집단 가설이 설명력이 우리 나라 학교주변 폭력을 상당한 수준에서 설명한다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은 "피해 - 가해" 구도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즉 "소수의 불량한 가해 학생으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라는 구도에서 접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절에서 가해와 관련이 있는 변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4 절 가해의 원인

전 절에서 학교주변 폭력의 원인을 살펴 본 결과 생활양식이론보다는 동일집단이론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주변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본 절에서는 학교주변 폭력을 가해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

교주변 폭력의 가해는 주로 가정, 학교, 그리고 비행친구라는 관점에서 조명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생활양식과 폭력에 대한 태도가 추가되었다. 범죄피해를 설명하는데 주로 도입되는 생활양식 관련변인을 가해에도 추가한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피해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었던 생활양식 관련 변인이 가해와는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비행적 생활양식 중 "씨름가입"을 제외한 다른 변인은 가해에서는 제외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비행적 생활양식의 하위 변인의 하나가 "가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위비행을 위시한 기타 비행 역시 비행적 생활양식의 다른 하위 차원이기 때문에 비행으로써 비행을 설명한다는 동어 반복적인 순환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제외하였다. 씨름가입 여부는 본인의 비행적 생활양식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비행친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폭력에 대한 태도가 추가된 이유는 하위문화이론과 차별적 접촉이론 등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학교주변 폭력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폭력 역시 사회적 진공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습득한 결과라고 한다면(Sutherland, 1943), 폭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형성되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차원에서 형성되었는가를 폭력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설문 문항이 조금 추상적이어서 초등학교 학생의 응답 신뢰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이다.

가해는 주로 금품갈취와 폭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괴롭힘을 제외한 이유는 이 유형에서는 가해와 피해에서 다르게 그리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놀리는 학생은 장난 삼아 친구를 놀렸으나 놀림을 받는 학생은 매우 괴로울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을 놀리거나 괴롭힌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해석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학교주변 폭력은 주로 금품갈취와 폭행이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가 많은 괴롭힘은 제외하였다.

1. 가해의 실태

다음의 <표 89>은 금품갈취 가해 경험에 대한 표이다. 금품갈취의 피해 경험에 비해 가해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체 학생의 91.2%가 금품갈취의 경험이 없으며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서도 대부분은 한두번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금품갈취 유형은 소수의 가해자와 다수의 피해자간에 일어나는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체로 보면 10% 미만의 학생에게 20%에 달하는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비율이 더 심해진다. 초등학교 남자의 가해-피해율은 4% : 39.7%, 중학교 남자는 12.3% : 41.3%, 고등학교 남자는 21.3% : 21.3%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남학생이 가해자일 경우, 그 피해자는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가해자가 초등학교라면 피해자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89> 금품갈취 가해 경험 : 전체 ()안은 %

	초등 남	초등 여	중등 남	중등 여	고등 남	고등 여	전체
한적이 없다	120 (96.0)	122 (98.4)	136 (87.7)	106 (93.8)	135 (79.9)	201 (94.4)	820 (91.2)
한두번 있다	3 (2.4)	2 (1.6)	10 (6.5)	6 (5.3)	21 (12.4)	10 (4.7)	52 (5.8)
가끔 있다	2 (1.6)		3 (1.9)		5 (3.0)	1 (.5)	11 (1.2)
여러번 있다			6 (3.9)	1 (.9)	8 (4.7)	1 (.5)	16 (1.8)
합 계	125 (13.9)	124 (13.8)	155 (17.2)	113 (12.6)	169 (18.8)	213 (23.7)	899 (100.0)

한편 폭행의 경우는 금품갈취와는 달리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아 전체의 50%가 넘는다. 초등학교 남학생의 75%가 경험이 있으며, 남자 중학생은 55%, 남자 고등학생의 62%가 남을 때려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생은 57%가 되나 이 비율은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25% 정도의 여학생이 남을 때려 본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폭행 경험이 있는 학생의 70% 가까운 학생이 한두번 정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는 하였으나, 폭행 가해 경험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 사이의 폭행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표 90〉 폭행 가해 경험 : 전체 ()안은 %

	초등 남	초등 여	중등 남	중등 여	고등 남	고등 여	전체
한적이 없다	29 (23.0)	53 (42.7)	69 (44.5)	83 (73.5)	64 (37.9)	166 (77.9)	464 (51.6)
한두번 있다	62 (49.2)	54 (43.5)	65 (41.9)	25 (22.1)	71 (42.0)	37 (17.4)	314 (34.9)
가끔 있다	24 (19.0)	16 (12.9)	12 (7.7)	3 (2.7)	20 (11.8)	8 (3.8)	83 (9.2)
여러번 있다	11 (8.7)	1 (.8)	9 (5.8)	2 (1.8)	14 (8.3)	2 (.9)	39 (4.3)
합 계	126 (14.0)	124 (13.8)	155 (17.2)	113 (12.6)	169 (18.8)	213 (23.7)	900 (100.0)

전반적으로 볼 때 금품갈취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해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폭행은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해 경험이 생활양식을 비롯한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해경험과 변인들간의 관계는 금품갈취와 폭행을 합하여 가해경험으로 단일화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분석결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 생활양식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생활 양식 관련변인 중 우범지역 통과여부와 저녁외출이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 의미 있게 연관되어 있으며, 옷차림은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절의 피해에 대한 결과인 <표 77>과 비교하여 보면 생활양식은 피해보다는 가해와 더 관련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이다. 피해에서는 금품갈취만 옷차림과 관련되었으나, 등학교길에 우범지역을 통과하는 학생이 피해를 많이 당하기보다는 가해를 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녁외출을 자주 하는 학생 역시 피해보다는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옷차림이 화려한 학생은 가해와 피해의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에서도 동일집단 이론의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금품갈취의 경우를 보면, 가해의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저녁외출을 하거나 등학교길에 자기보다는 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갈취하거나, 자기보다 더 힘이 센 불량학생에게 금품을 갈취 당하기도 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91> 생활양식과 폭력 가해 : 초등학교 남학생

	학교주변	우범지역	동반여부	용 돈	옷 차 림	저녁외출
가해 경험	.0868	.2163	.0529	.0652	.1756	.3246
	P= .338	P= .016	P= .559	P= .483	P= .056	P= .000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우범지역과 관련이 있는 반면, 학교주변의 유흥업소 수와 관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지역과 학교주변의 유흥업소 수는 결국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이 불량한 경우에 학생들은 피해와 가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적어도 학교주변의 환경정화가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옷차림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강한 관계가 발견된 반면에 저녁외출은 남학생이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초등학교 여학생은 저녁외출의 기회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된다. 결론적으로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학생들이 학교주변 유흥업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92〉 생활양식과 폭력 가해 : 초등학교 여학생

	학교주변	우범지역	동반여부	용 돈	옷 차 립	저녁외출
가해 경험	.1794	.0882	.0216	.1731	.3195	.1753
	P= .046	P= .334	P= .812	P= .066	P= .000	P= .052

아래 〈표 93〉은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생활양식과 학교주변 폭력 가해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등하교길에 동반자가 있는가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폭력 가해와 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활양식은 범죄피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지 가해를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주변 폭력 피해보다는 가해와 더 강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면 동일집단 가설의 설득력을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의 경우를 보면 주로 폭행피해와 생활양식이 관련이 있었다는 결과를 상기해 보면, 폭행 피해 학생은 학교주변 폭력의 가해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옷차림이 화려하고, 저녁외출을 자주하며, 등하교길에 우범지역을 통과하는 학생이 급품갈취를 비롯한 학교 주변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폭행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이 급품갈취나 괴롭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한편 용돈과의 관계를 보면 용돈을 많이 쓰는 학생이 피해와는 연관이 없으나 가해와는 강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이 역시 합리적 선택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용돈을 많이 쓰는 학생은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이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보다는 가해와 연관이 더 강하는 결과는 용돈을 많이 쓰는 학생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해를 할 가능성은 시사해 주고 있으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선정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우범지역이나 야간에 다니는 학생을 무작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표 93〉 생활양식과 폭력 가해 : 중·고등학교 남학생

	학교주변	우범지역	동탄여부	용 돈	옷 차 립	저녁외출
가해 경험	.2164	.1622	-.0742	.3454	.4979	.4665
	P= .000	P= .004	P= .183	P= .000	P= .000	P= .000

〈표 94〉를 보면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으며, 상관 정도가 남학생에 비하여서는 조금 약한 것으로 보인다.

〈표 94〉 생활양식과 폭력가해 : 중·고등학교 여학생

	학교주변	우범지역	동탄여부	용 돈	옷 차 립	저녁외출
가해 경험	.0903	.1469	.0752	.1385	.2478	.2708
	P= .106	P= .008	P= .176	P= .015	P= .000	P= .00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용돈을 많이 쓰며, 저녁외출을 자주 하거나 우범지역에 자주 드나드는 학생이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에서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폭행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특히 폭행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생활양식을 갖는 집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정적 태도는 "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등의 문항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물었으며, 긍정적 태도는 "말로 해결되지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일은 폭력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등의 설문을 통해 폭력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태도를 물었다. 다음의 〈표 95〉은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학교주변 폭력 가해와의 연관성을 살펴 본 결과이다.

〈표 95〉 폭력에 대한 태도와 폭력 가해 :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남 학생		여 학생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가해 경험	-.2641	.2256	-.2374	.1545
	P= .000	P= .000	P= .000	P= .006

예상한 대로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는 부적의 관계, 긍정적인 태도와는 정적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남녀의 구별 없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검증되고 있다. 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거부하며 긍정적인 태도는 수용하는 학생이 학교주변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비록 본 조사에서는 누구를 통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태도를 배우며 강화되는가를 조사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태도가 친밀한 집단을 통해 습득된다는 Sutherland의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친구나 가족, 더 나아가 학교 교사, 일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에 대한 태도가 학생들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대화의 광장, 1996)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물었을 때, 부모와 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집에서 부모로부터 체벌이 아닌 구타를 자주 당하는 학생이나 학교에서도 교사로부터 체벌이라기보다는 구타를 당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폭력적 행위를 통해 폭력에 대한 태도를 배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가정하여 본다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관행이 학교 주변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가정, 학교, 친구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비행에 관한 다양한 이론의 귀착점은 결국 가정과 친구, 그리고 학교와 비행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를 보면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보면 남녀 모두 매우 강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나 가해 모두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론이 그다지 설명하지 못하나, 중·고등학교 학생 즉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6〉 주위 환경과 폭력 가해 : 초등학교 남학생

	부모 감독	결혼 가정	학교 성적
가해 경험	-.1050	-.0259	.1677
	P= .246	P= .775	P= .065

〈표 97〉 주위 환경과 폭력 가해 : 초등학교 여학생

	부모 감독	결혼 가정	학교 성적
가해 경험	-.1662	.1362	.0636
	P= .067	P= .131	P= .483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 모두 가정 관련 변인은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이 가해와 연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가정이나 가정의 수입 즉 가난과 비행은 적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성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부모의 감독은 남녀 모두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성이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이 소홀한 집안의 자녀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거나 부유한 가정이라고 하여도 자녀가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가난한 결혼가정 출신 자녀라 하여도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있으면 가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성적과 가해 사이의 관계 역시 예상한 대로 검증되었다. 성적이 나쁘면 나쁠수록 가해를 하기 쉽다는 결과는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소외된 학생들이 비행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비행친구를 사귀거나 불량집단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가해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표 98〉 주위 환경과 폭력 가해 : 중·고등학교 남학생

	씨름가입	비행친구	부모감독	결손가정	학업성적	가구수입
가해 경험	.5606	.5854	-.3430	-.0763	.2244	.0291
	P= .000	P= .000	P= .000	P= .171	P= .000	P= .625

〈표 99〉 주위 환경과 폭력 가해 : 중·고등학교 여학생

	씨름가입	비행친구	부모감독	결손가정	학업성적	가구수입
가해 경험	.1083	.3158	-.2270	-.0120	.1620	-.0063
	P= .051	P= .000	P= .000	P= .829	P= .006	P= .918

학교주변 폭력 피해와 가정 등의 변인과의 관계를 상기하여 보면 폭행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피해와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폭행은 특히 동일집단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 의해 피해와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변인별, 학교별, 성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활양식 관련변인은 초등학교 경우에는 남녀 모두 저녁외출, 옷차림 등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강한 관계가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녀 모두 동반여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강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범죄 피해를 설명할 변인들이 가해와 더 강한 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폭력에 대한 태도 역시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의 폭력 가해 경험과 예상한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환경을 비롯한 주위 환경 관련변인과 가해 경험 역시 초등학교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녀 모두 가정의 수입과 결손가정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매우 강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손가정과 가정의 수입이 가해경험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즉 "비행청소년은 가난한 결손가정 출신"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가해 경험에 대한 결과와 전 절에서 분석한 피해 경험과를 연관지어 그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학생은 피해, 가해 모두 본 연구에

서 설명 변수로 도입한 변인들과 그다지 강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즉 이러한 변인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가해나 피해를 설명하여 주기는 하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피해나 가해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피해와 가해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그에 따른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초등학생들의 학교주변 폭력은 피해와 가해 모두 통계적인 의미에서 무작위성이 강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주변 폭력 피해와 가해는 본 연구에 도입된 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다. 특히 동일집단 가설의 설명력이 생활양식 가설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피해와 가해가 교차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음절에서는 피해와 가해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 5 절 피해와 가해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대책은 피해와 가해에 대한 실태와 원인의 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보면 피해의 특성과 가해자의 특성이 매우 유사하며,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은 남녀 모두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피해와 가해 사이의 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와 가해가 모두 없는 학생이다. 두 번째 유형은 피해 경험만 있는 학생이며, 세 번째 유형은 가해 경험만 있는 학생이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이다.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눈 뒤, 각 유형별 실태와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피해-가해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금품갈취와 폭행에 대해 피해와 가해 경험을 각각 "있다"와 "없다"로 나누기 위해서는 "있다"와 "없다"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전 절의 가해 실태에 대한 결과를 보면 금품갈취 경험은 10% 정도이나, 폭행 경험은 50%를 상회하

서 설명 변수로 도입한 변인들과 그다지 강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즉 이러한 변인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가해나 피해를 설명하여 주기는 하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피해나 가해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피해와 가해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그에 따른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초등학생들의 학교주변 폭력은 피해와 가해 모두 통계적인 의미에서 무작위성이 강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주변 폭력 피해와 가해는 본 연구에 도입된 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다. 특히 동일집단 가설의 설명력이 생활양식 가설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피해와 가해가 교차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음절에서는 피해와 가해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 5 절 피해와 가해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대책은 피해와 가해에 대한 실태와 원인의 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보면 피해의 특성과 가해자의 특성이 매우 유사하며,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은 남녀 모두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피해와 가해 사이의 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와 가해가 모두 없는 학생이다. 두 번째 유형은 피해 경험만 있는 학생이며, 세 번째 유형은 가해 경험만 있는 학생이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이다.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눈 뒤, 각 유형별 실태와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피해-가해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금품갈취와 폭행에 대해 피해와 가해 경험을 각각 "있다"와 "없다"로 나누기 위해서는 "있다"와 "없다"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전 절의 가해 실태에 대한 결과를 보면 금품갈취 경험은 10% 정도이나, 폭행 경험은 50%를 상회하

고 있다. 주관적이기는 하나 50% 이상의 학생을 폭행 가해자로 규정한다는 문제가 있어 폭행은 "없다"와 "한두번 있다"를 같은 범주로 하여 가해 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가끔 있다"와 "여러 번 있다"만을 가해 경험자에 포함시켰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쩌다 친구와 싸움을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문화라 본다면 이러한 구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각 유형별로 그 실태를 알아보자.

1. 유형별 실태

피해-가해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그 첫째는 금품갈취나 폭행의 피해를 하나로 묶었으며, 가해 역시 금품갈취와 폭행의 경험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가해 경험으로 간주하였다. 즉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가해 유형이라 볼 수 있다. 그런 뒤에 전체적인 유형을 금품갈취와 폭행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주된 이유는 전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행과 금품갈취가 가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피해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가해 유형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남녀 별로 알아보았다. 중·고등학교를 한 범주로 묶은 것은 커다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해석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먼저 금품갈취와 폭행에 대하여 살펴 본 뒤, 전반적인 유형의 실태를 알아보기로 하자.

아래의 <표 100>은 금품갈취의 피해-가해 유형을 학교·남녀 별로 알아 본 결과이다. 전체 표본에서 금품갈취의 피해나 가해 모두 경험이 없는 비율은 57.7%로 나타났으나 성별, 학교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고등학교가,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비율이 낮다. 즉 중·고등학교 여자의 비율이 약 80% 피해나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초등학교 남자의 비율은 약 40%로서 거의 1/2 정도이다. 역으로 말하면 남자의 60% 정도가 금품갈취의 피해나 가해 중 하나 혹은 둘 다 경험하였다는 결과는 우리 나라 학교주변 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한 학생들에게 피해만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급품갈취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표 101〉 폭행 피해-가해 유형 ()안은 %

	초등 남	초등 여	중고 남	중고 여	
없 음	40 (31.7)	68 (54.4)	133 (41.0)	265 (81.3)	506 (56.2)
피 해	51 (40.5)	39 (31.2)	136 (42.0)	46 (14.1)	272 (30.2)
가 해	11 (8.7)	9 (7.2)	25 (7.7)	11 (3.4)	56 (6.2)
피해-가해	24 (19.0)	9 (7.2)	30 (9.3)	4 (1.2)	67 (7.4)
	126 (14.0)	125 (13.9)	324 (36.0)	326 (36.2)	901 (100.0)

폭행의 경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고 있으나 가해 경험자의 비율이 급품갈취에 비하여 조금 높으며, 가해 경험자 중 피해 경험의 비율도 급품갈취에 비해 조금 높다. 즉 학교 주변 폭력 중 급품갈취보다는 폭행에서 가해와 피해가 교차되는 비율이 조금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급품갈취는 가해와 피해의 구별이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반면에 폭행은 싸움이라는 형태로 쌍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고려하여도 우리 나라 학교주변 폭력 중 폭행의 이러한 특수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폭력에 대한 문화적인 허용성, 즉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커가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중고등학교 남학생에게 만연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폭행은 "한두번 있다"를 가해 경험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상기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그다지 무리한 해석을 아닐 것이다.

〈표 102〉 금품갈취, 폭행 피해-가해 유형 ()안은 %

	초등 남	초등 여	중고 남	중고 여	
없 음	40 (31.7)	68 (54.4)	120 (37.0)	253 (77.6)	481 (53.4)
피 해	47 (37.3)	38 (30.4)	121 (37.3)	44 (13.5)	250 (27.7)
가 해	11 (8.7)	9 (7.2)	38 (11.7)	23 (7.1)	81 (9.0)
피해-가해	28 (22.2)	10 (8.0)	45 (13.9)	6 (1.8)	89 (9.9)
	126 (14.0)	125 (13.9)	324 (36.0)	326 (36.2)	901 (100.0)

금품갈취와 폭행을 한데 묶어 전체적인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간의 교차 정도를 본 〈표 102〉 보면 이러한 특성이 더 뚜렷이 나타난다. 중·고등학교 남자의 37%만이 피해나 가해 경험이 모두 없다고 응답하였다. 역으로 피해나 가해의 경험 중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학생의 비율은 63%이다. 이러한 비율은 단일 폭행 가해 경험을 "한두번 있었다"까지 포함시키고 폭력 유형에 "괴롭힘"을 포함시킨다면 더 증가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학교주변 폭력이 법적인 개념보다는 훨씬 느슨하게 정의되어 사소한 폭력까지 모두 포함시키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학교주변 폭력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비율이 1/3 정도라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남학생에 있어서 가해와 피해가 교차되는 비율은 매우 높다. 2/3 가까운 피해나 가해 중 하나라도 경험한 학생(224명) 중에서 피해만 받은 학생은 피해만 받은 학생은 121명으로 약 50%에 달한다. 한편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5명이며 이중 가해 경험도 있는 학생은 45명으로 약 25%이다. 한편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83명 중 피해 경험도 있는 학생 수는 45명으로 54%에 이

르고 있다. 가해자의 과반수가 피해 경험이 있는 반면에 피해자의 1/4 정도가 가해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서 우리 나라 학교주변 폭력의 특수성을 알아보며 그에 따른 대책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2. 유형별 특성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가해-피해 중 특성은 전체적인 학교주변 폭력 유형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비록 금품갈취와 폭행이 피해자 특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가해자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각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해석에 중복이 있기 때문에 피하였다. 아울러 특성 비교에는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을 남녀를 한데 묶어 비교하였다. 초등학교를 제외한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가해"와 "피해-가해"를 경험한 학생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여러 변인들이 그다지 설명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남녀를 한데 묶은 이유 역시 해석의 간결성을 위해서이다.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사전 분석 결과를 보면 유형간의 차이가 남녀에서 발견되지 않아 묶어서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포함된 변인들은 피해와 가해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변인들이다. 생활양식 관련 변인, 비행성향 관련 변인, 가정환경과 비행친구를 비롯한 주위환경 관련 변인, 그리고 폭력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분석의 초점은 "피해-가해" 유형이 "피해"만 있는 학생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가 아니면 "가해"만 있는 학생들과 더 유사한가를 중심으로 각 유형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이용된 통계적 기법은 비교적 단순한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은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변인들간의 일차적인 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연구의 수준

이 일천하여 복잡한 통계를 적용한 가설의 검증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해 일차적인 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유형간의 차이가 대부분 명증적으로 분명하여 사후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103〉 생활 양식과 피해-가해 유형 :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변 인	없 음	피 해	가 해	피해 가해	F
학교 주변	1.53	1.46	1.65	1.66	3.19**
우범 지역	1.18	1.28	1.36	1.33	5.14**
동반 여부	1.78	1.70	1.73	1.68	N.S.
용돈 액수	4.78	4.53	5.82	5.31	7.44***
옷차림	5.36	5.49	6.98	6.60	22.69***
저녁 외출	4.73	5.24	6.55	6.44	28.28***

생활양식 관련 6개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동반 여부뿐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범죄의 피해-가해 유형은 상당히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4가지 유형에서 모두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가해" 유형과 "피해-가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이 거의 동일한 특성을 보이며 "없음"과 "피해"만 경험한 집단이 유사한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피해는 피해자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가해자의 선택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보다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만일 피해자의 생활양식이 범죄피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가해는 물론이고 피해도 경험하지 않은 "없음" 집단과 피해만 경험한 "피해"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집단간에 차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는다는 결과는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사이에 강한 관계가 없고 해석된다. 아울러 '가해'만 한 집단과 "피해-가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차이가 발견되는 집단은 "피해" 집단과 "피해-가해" 집단이다. 즉 학교주변 폭력 피해자에는 상이한 두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한 집단은 피해나 가해 경험 모두 없는 집단과 성격이 유사한 "피해"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가해" 집단과 성격이 유사한 "피해-가해" 집단에 속해 있는 학생

들이다. 양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 집단의 숫자가 "피해-가해" 집단의 약 3배 정도 많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는 재수가 없어(?)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1/3 가까운 피해자는 가해 학생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며, 그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서 때로는 피해를 당하기도 때로는 가해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표 104〉 비행성향과 피해-가해 유형 :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변 인	없 음	피 해	가 해	피해 가해	F
지위 비행	4.06	3.65	11.03	10.41	55.68***
재산 비행	0.53	1.07	2.63	4.00	60.96***
질서 비행	0.28	0.30	1.90	1.80	75.84***
공식 처벌	1.04	1.14	2.11	1.88	45.36***
서클 가입	1.01	1.02	1.14	1.17	17.59***

이러한 결과는 비행성향과 관련 변인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위비행을 비롯한 세 가지 유형의 비행에서도 <"없음"과 "피해"> 집단과 <"가해"와 "피해-가해"> 집단 사이의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나 "없음"과 "피해" 그리고 "가해"와 "피해-가해" 사이에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재산비행에 있어서는 "피해-가해" 집단이 "가해" 집단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어도 비행 성향에 있어서는 "피해-가해" 집단이 "가해" 집단보다 덜하다는 해석을 내릴 수 없다. 공식처벌 경험은 "가해" 집단이 조금 높은 반면 서클가입은 "피해-가해" 집단 조금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가정환경을 위시한 주위 환경 및 비행친구, 성적 등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유심히 보면 "피해-가해" 집단의 성격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다. 우선 비행친구를 사귀는 정도를 보면 "가해"만 하는 집단 보다 조금 높다. 아울러 부모 감독 정도를 보면 "가해"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집단이 바로 네 집단 중 부모의 감독이 가장 소홀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나 이 집단의 가정의 수입은 가장 낮고 본인의 학교 성적 역시 가장 나쁘다. 이러한 점을 보면 "가해" 집단에 비해 주위환경이 좋지 않다고 보인다. 집안은 가난하며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으며 비

행친구를 많이 사귀고 있고 성적은 나쁜 학생들이 이 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수업에 있어서는 "가해" 집단이 네 집단 중 가장 평균점이 높다는 사실은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더라도 가난과 비행 사이의 고정관념을 버리는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

〈표 105〉 주위환경과 피해-가해 유형 :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변 인	없 음	피 해	가 해	피해 가해	F
비행 친구	1.45	1.35	2.53	2.70	35.95***
부모 감독	11.58	10.66	8.54	5.45	21.85***
수 입	5.68	5.43	5.74	5.21	N.S
결 손	0.90	0.89	0.88	0.84	N.S
성 적	3.97	4.92	5.62	6.78	9.36***

한편 "피해" 집단과 "없음" 집단의 차이는 주위환경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무리한 비교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조금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성적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없음" 집단에 비해 성적이 조금 떨어지나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서는 잘하는 편이다. 만일 "없음" 집단이 상위권 학생이라면 "피해" 집단은 중위권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가해" 집단은 중하위권, "피해-가해" 집단은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 감독 정도와 수입이 "없음" 집단에 비해 조금 떨어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비행친구와 교제 정도가 "없음" 집단에 비해서도 적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표 106〉 폭력에 대한 태도와 피해-가해 유형 :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변 인	없 음	피 해	가 해	피해 가해	F
부정적	12.43	12.87	10.15	11.56	16.89**
긍정적	8.49	9.24	8.91	10.21	6.95***

마지막으로 폭력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우선 부정적 태도(폭력의 부당성)와 긍정적 태도(폭력의 효율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네 집단간에 차

이를 보이고 있다. 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가해" 집단이며, 그 다음으로 "피해-가해"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는 "피해-가해" 집단이 가장 높으며, "피해" 집단이 그 다음으로 "가해" 집단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 집단은 폭력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피해-가해" 집단은 나쁘기는 하나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피해 집단은 나쁘기는 하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 집단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도 폭력 피해에 대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피해-가해" 집단이 "피해" 집단과는 유사성이 거의 없는 반면에 "가해" 집단과 유사할 뿐 아니라, 여러 변인에서 "가해" 집단보다도 더 비행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피해" 집단은 피해나 가해가 모두 없는 "없음" 집단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교주변 폭력의 가해고려와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가해" 집단은 "피해-가해" 집단과 "피해" 집단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으며, "피해-가해" 집단 역시 자기들 사이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피해" 집단이 그들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피해" 집단의 피해는 금품갈취가 많은 반면에 "피해-가해" 집단의 피해는 폭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실상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제 4 장 결론과 대책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아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장에서는 대책을 제시하려 한다.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대책 역시 일반적인 범죄 대책의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에 관한 대책은 일반적으로 예방과 교정이라는 맥락에서 접근되고 있다.

예방 범죄가 발생하기 전의 조치를 말한다면, 교정이란 범죄가 발생한 후에 범죄자를 교화하는 여러 정책을 의미한다. 예방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본다. 장기적인 예방과 단기적인 예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예방이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근본적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라면, 단기적인 예방은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하여 그러한 상황을 제거함으로써 예방하려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장기적 예방과 단기적 예방의 차이를 구별하여 보자. 많은 경우에 범죄는 사회 부조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권력이 남용되고 도덕성이 위협을 받는 나라, 기기에 더하여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권력의 남용을 막아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도덕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경제를 안정시키기 전에는 범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부조리를 제거함으로써 범죄 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은 장기적인 예방일 것이다. 한편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를 조사하여 그러한 장소의 순찰을 강화한다면, 마약범들이 돈 세탁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돈 세탁 루트를 철저히 차단하여 마약범들의 활동무대를 제거하는 노력을 단기적인 예방이란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철저히 수사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엄격히 처벌하는 것도 단기적인 예방책의 하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정이란 일단 범죄가 일어난 후에 취해지는 일련의 대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범죄인에 대한 처벌은 응보에서 교정과 교화로

변화되었다. 범인을 가혹히 처벌만 하였던 19세기 이전과는 달리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발전된 교정과 교화 이념은 적어도 오늘날의 행형의 기본이 되고 있다.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정과 교화를 통해 사회에 재통합시키려는 사상은, 비록 그 효과는 의심되고 있으며 얼마나 철저히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행형의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다.

사실 교정과 교화 역시 소극적인 예방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못하여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발생한 후라도 범죄자를 교도소 같은 곳에 격리함으로써 그 동안 다른 범죄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특별 예방), 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다른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경고를 줌으로 범죄를 지지를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효과(일반 예방), 그리고 이러한 범죄자를 교정 교화하여 새 사람을 만들어 다른 범죄에 빠져들지 않게 만든다면 결국 모든 범죄가 예방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범죄에 대한 모든 대책은 결국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의 피해자학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기존의 범죄 예방이 주로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라면, 피해자학은 피해자 중심에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론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학의 출발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습관 등이 범죄 피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피해자의 특성 중 어떠한 것이 피해를 야기하는지를 알아내어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출발되었다. 피해자학의 출발 역시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한 범죄 대책과 이러한 면에서 그 중심축을 같이 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학은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심된 주장은 피해자 보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대책 역시 이러한 광의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학교주변 폭력을 위시한 청소년 비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없는 어떠한 대책도 사

상누각이 될 뿐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만들 수도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만을 모색한다면 그 동안 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 예방책도 동시에 세워야 한다. 학교주변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찾아내어 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 역시 장기적 대책만큼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경찰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단기적인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열 사람이 도둑 한 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범죄는 어느 정도 발생한다. 발생한 후의 대책 역시 중요하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체포하고 공정한 법에 의해 적절한 심판을 받은 후 효과적인 교정 정책에 의해 교화를 시키는 것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예방책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예방 대책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이론에 근거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이론에 입각한 대책이라고 해도 실태를 무시하고 세워진 것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론 기존의 경험적인 연구를 기반 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을 제시하려 한다. 그 첫째는 학교 주변 폭력을 야기시키는 우리 나라 사회구조적인 부조리를 짚어 본 뒤,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려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는 없었으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 연구자들의 평상시 학술적 관심에 기초하여 원인과 대책을 논하려 한다. 둘째는 단기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적 대책은 경찰의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가장 자세히 언급되었으나 본 연구자들은 단기적 대책의 담당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다. 즉 경찰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더 나아가 효과적일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하여도 범죄는 발생한다. 일단 학교주변 폭력이 발생한 후의 대책을 보다 더 세분화하여 알아보자. 그 첫째는 인지 단계이다. 주지하다시피 발생한 범죄 중 사법당국이 인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즉 범죄암수(dark figure) 혹은 숨은 범죄(hidden crime)가 학교주변 폭력에도 적지 않다. 본 연구

에서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매우 낮아 5% 정도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면 인지를 높일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논의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수사법인 검거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연구자들의 전공 분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전문분야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사법과 체포에 관한 논의는 불가능하나 수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할 것이다. 검거된 범인, 그러나 학교주변 폭력의 범인 역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정 교화하며,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역시 논의될 것이다. 어찌면 가장 어려우나 무엇보다 중요한 대책일 것이다. 물론 경찰의 주된 업무가 좁은 의미의 청소년 선도 즉 청소년에 대한 행형은 아니며 법무부 보호국의 문제이기도 하나 넓은 의미의 선도는 경찰의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급될 것이며,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 당국을 중심으로 한 대책은 물론이며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전 사회의 대책이 논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질 것이다. 이 역시 경찰의 주된 업무라 보기 힘들으나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일을 누구의 일인가를 따져가며 할 일은 아닐 것이다.

1. 청소년 비행의 사회 구조적 원인과 장기적 대책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제안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 기반을 두지 않은 모든 후속 대책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우리 사회의 어떠한 부분이 청소년 비행을 야기시키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주변 폭력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표본 중 금품갈취나 폭행, 그리고 괴롭힘 중 하나라도 당한 비율이 37.6%나 되며 특히 중학교 남학생은 61.3%가 피해를 입었다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을 초래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학교주변 폭력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된다. 물질문명과 황금만능주의, 그에 따른 사회 윤리의 붕괴, 그리고 인간 경

에서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매우 낮아 5% 정도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면 인지를 높일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논의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수사법인 검거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연구자들의 전공 분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전문분야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사법과 체포에 관한 논의는 불가능하나 수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할 것이다. 검거된 범인, 그러나 학교주변 폭력의 범인 역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정 교화하며,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역시 논의될 것이다. 어찌면 가장 어려우나 무엇보다 중요한 대책일 것이다. 물론 경찰의 주된 업무가 좁은 의미의 청소년 선도 즉 청소년에 대한 행형은 아니며 법무부 보호국의 문제이기도 하나 넓은 의미의 선도는 경찰의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급될 것이며,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 당국을 중심으로 한 대책은 물론이며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전 사회의 대책이 논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질 것이다. 이 역시 경찰의 주된 업무라 보기 힘들으나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일을 누구의 일인가를 따져가며 할 일은 아닐 것이다.

1. 청소년 비행의 사회 구조적 원인과 장기적 대책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제안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 기반을 두지 않은 모든 후속 대책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우리 사회의 어떠한 부분이 청소년 비행을 야기시키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주변 폭력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표본 중 금품갈취나 폭행, 그리고 괴롭힘 중 하나라도 당한 비율이 37.6%나 되며 특히 중학교 남학생은 61.3%가 피해를 입었다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을 초래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학교주변 폭력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된다. 물질문명과 황금만능주의, 그에 따른 사회 윤리의 붕괴, 그리고 인간 경

시 풍조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도덕성의 현주소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무분별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퇴폐향락풍조는 이제 학교 주변까지 침투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의 선정성과 더불어 일본만화, 저질 비디오, 불량 잡지 등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지어는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 청소년에게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폭력을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 나라 교육 문제이다. 부모가 바라는 대학에 합격하기 힘든 청소년은 학교와 가정에서 소외되기 쉽다. 학교와 가정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뭉쳐 사소한 비행을 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점차 보다 더 심각한 비행에 빠져들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유희비를 충당하기 위해 친구들의 금품을 갈취하게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에 정신차리면 된다면 때는 벌써 30년전 이야기이고 이제는 초등학교 시절도 모자라 모터에서부터 공부바람이 시작되는 사회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는 25%의 학생을 위해 나머지 75%의 학생은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고등학교에도 진학할 가능성이 없는 중학생은 십대 초반부터 사회적인 낙오자가 된다. 교육은 뒷전이고 성적이 인간의 가치를 깨는 척도가 되었다. 대부분의 교사들도 처음에는 이러한 현실에 개탄을 하고 참교육을 실천하려 하나 날이 갈수록 역부족을 느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을 강조하는 현실적 직업인이 되어 간다.

부모의 기대만큼 공부를 못하는 자녀는 극심한 부담을 느끼게 되며 결국은 가정으로부터 심리적·물리적 소외를 맛보게 된다. 공부를 못하여 대학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학생들은 결국 학교와 집으로부터 추방을 당한다. 그러나 이들이 건전하게 숨 쉴 곳은 어디에도 없다. 사회 도처에 우후죽순 식으로 만연된 퇴폐향락업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집과 학교로부터 추방된 아이들은 이러한 장소에서 모이게 된다. 이들은 패거리를 이루어 사소한 비행에서부터 출발하여 서서히 범죄로 다가간다.

퇴폐향락업소 이외에는 건전히 놀 장소가 우리의 자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공부를 게을리 하면 곧 「불효」이며 더 나아가 「죄」가 되는 세상에서 놀 시간

이 어디 있겠는가? 「3당 4락」 즉 3시간 자면 불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세상에서 놀 장소가 어디 필요하단 말인가? 아이들이 건전히 뛰어 놀 장소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며, 출세할 가능성이 없는 「초기 낙오자」들에게는 이러한 배려가 더욱 필요 없으며 한심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퇴폐향락업소가 그들이 선택하는 놀이터이며, 이러한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청소년화된 퇴폐향락업소가 판을 치고 있다.

청소년이 이성과 성(sex)을 비롯한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발달 단계에서 당연한 것이다. 다만 그들이 아직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그들의 유혹과 호기심을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선도의 가장 빠른 길은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어른들은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더 호화스럽고 비싼 향락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사회적 출세의 상징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러한 호기심을 이용해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청소년만 나무랄 수가 있는가? 학교주변 폭력 중 급류갈취의 주요한 원인은 “유홍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 주변에도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유홍업소가 즐비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학교주변 폭력이 단절되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에 만연된 폭력문화를 거둔하지 않을 수 없다. 추상적인 의미에서 폭력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현대사를 보면 정치적 강제적 폭력이 난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총칼에 의해 국민주권이 침탈되었으며, 광주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두명이 법정에서 신 현실이 우리의 어두운 현대사를 용변적으로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경제적인 폭력 역시 정경유착이라는 형태로 자행되었다. 재벌총수가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으며, 땅투기 증권투기 등을 통해 축재를 한 사람과 그들에 의해 손해를 본 서민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학교주변 폭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힘이란 많은 경우에서 물리적인 힘이다. 힘과 배짱이 센, 그리고 폭력씨클이라는 집단의 힘이 있는 학생이 그 힘을 남용하여 힘이 없는 학생을 괴롭히는 것과 정치적·경제적 힘을 남용하여 서민을 울리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더구나 힘만 있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면 힘이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 아닌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비가시적 폭력이 근절되기 전에 가시적인 폭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힘있는 어른들이 그들의 힘을 공정하게 사용하기 전, 설사 한두 사람이 남용을 한 경우에는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사회정의라는 형태로 실현되기 전에 청소년들의 혐의 남용인 학교폭력이 없어지리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학교 집에서 체벌만 해도 그렇다. 체벌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체벌과 폭력은 구별되어야 한다. 자식에게 발길질하는 부모, 심한 욕을 하는 부모, 학생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선생은 사실 힘의 논리에 의한 폭력이다. 부모나 교사도 화가 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것이라면 ‘나도 내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힘없고 조그만 녀석을 왜 때리지 못하는가’라는 논리가 무의식중에 강화되는 것이다. 좋은 것 역시 배우듯 나쁜 것도 배우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 즉 부모나 형제 친구 선생님 등을 통해 배운다. 만일 우리 나라의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전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때리거나 욕지거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주변 폭력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 사회에서는 온갖 종류의 비가시적 가시적 폭력이 난무하며, 더 나아가 합리화되면서 아이들 사이의 폭력이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면 고목에서 새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학교주변 폭력과 관련이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세 가지라고 본다. 공부에 대한 부담과 그에 따른 소외, 이러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건전한 놀이공간도 없이 우후죽순처럼 돌아난 온갖 퇴폐향락업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문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학교주변 폭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쉽지 않으며, 특히 경찰이 주도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더욱 없다. 교육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으나 퇴폐향락업소 문제만 하여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단속”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속만 한다고 퇴폐업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수요가 있는 한 아무리 단속을 하여도 범망을 피해, 때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형태로 둔갑한 퇴폐업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폭력문화 역시 경찰의 힘으로 해결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 하여도 경찰이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야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라도 몇 가지 대책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교육의 문제는 교육부, 학교와 가정 더 나아가 전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언급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퇴폐업소와 폭력문화는 잡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퇴폐업소가 판을 치는 것이 경찰의 단속미비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근절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물론 이 의지는 경찰 차원의 의지이기보다는 소위 더 고위층의 의지이다. 우리의 경찰력이 퇴폐업소를 비롯한 음란퇴폐를 자행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한총련 사태를 진압할 수 있는 경찰, 현대 노조의 물리력을 능가할 수 있는 경찰이라면 퇴폐업소와 음란물 등 기타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조장하는 업소들을 쉽게 근절할 수 있다고 본다. 설사 경찰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음란물을 팔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음란물을 위시한 유해 물질을 만들어 팔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상당한 부분은 이미 학생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알려진 사실이며, 설사 모른다고 해도 온 수사력을 동원하면 알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는 아니다.

일제 단속기간에는 조금 단속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는 현실이 이들을 부추기고 있다. 더 나아가 단속은 하면서도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사회에 단연된 퇴폐풍조, 힘있는 사람일수록 더 호화스러운 퇴폐업소에 출입하는 사회에서 경찰의 힘으로 근절되기는 역부족이기는 하나 정말 이것이 문제라고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폭력문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 역시 경찰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경찰이라도 민주경찰로서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제하의 “순사”가 아니라 미국 서부활극에 나오는 “보안관”, 악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안관이 되어야 한다. 경찰청 앞을 지나가려면 “죄도 없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경찰청이 가장 편안한 곳으로 국민들

에게 다가설 때, 폭력문화는 없어질 것이다. 경찰이 앞장 서 폭력문화 추방 운동을 벌이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자제하는 자세를 보일 때, 설사 죄인이라고 하여도 인간적으로 대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 학교주변 폭력 역시 수그러들 것이다. 물론 경찰보다는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이 사라져야 할 것이나, 경찰이 앞장을 선다면 사회적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2. 학교주변 폭력 발생 상황과 단기적 대책

단기적 대책은 학교주변 폭력의 발생 상황과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예방대책을 모색해 보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근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 나라 학교 폭력이 “가해 - 피해” 구도 즉 소수의 불량학생들이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해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생활양식이나 기타 변인이 피해와 관련이 있다면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를 교육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구별이 모호하다면 즉 동일집단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면 이러한 구도는 잘못된 출발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피해를 입은 학생 중 2/3는 피해만 당했으며, 이들의 특성은 피해나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학생들과 유사하다. 따라서 다수의 피해 학생이 소수의 문제학생에게 피해를 당하는 구도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나 이들의 특성과 피해와는 생활양식 즉 화려한 옷차림이나 저녁외출, 우범지역 출입에서도 가해나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과 차별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를 교육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 중 1/3이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폭행의 경우, 한두번 남을 때려본 학생은 제외한 피해 경험이다. 이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며, 이들이 가해한 정도는 가해만 한 학생에 비해 적지 않다. 이들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우범지역을 드나들며 저녁외출이 많다. 지우비행을 비롯한

에게 다가설 때, 폭력문화는 없어질 것이다. 경찰이 앞장 서 폭력문화 추방 운동을 벌이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자제하는 자세를 보일 때, 설사 죄인이라고 하여도 인간적으로 대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 학교주변 폭력 역시 수그러들 것이다. 물론 경찰보다는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이 사라져야 할 것이나, 경찰이 앞장을 선다면 사회적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2. 학교주변 폭력 발생 상황과 단기적 대책

단기적 대책은 학교주변 폭력의 발생 상황과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예방대책을 모색해 보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근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 나라 학교 폭력이 “가해 - 피해” 구도 즉 소수의 불량학생들이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해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생활양식이나 기타 변인이 피해와 관련이 있다면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를 교육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구별이 모호하다면 즉 동일집단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면 이러한 구도는 잘못된 출발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피해를 입은 학생 중 2/3는 피해만 당했으며, 이들의 특성은 피해나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학생들과 유사하다. 따라서 다수의 피해 학생이 소수의 문제학생에게 피해를 당하는 구도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나 이들의 특성과 피해와는 생활양식 즉 화려한 옷차림이나 저녁외출, 우범지역 출입에서도 가해나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과 차별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를 교육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 중 1/3이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폭행의 경우, 한두번 남을 때려본 학생은 제외한 피해 경험이다. 이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며, 이들이 가해한 정도는 가해만 한 학생에 비해 적지 않다. 이들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우범지역을 드나들며 저녁외출이 많다. 지우비행을 비롯한

비행 역시 가해만 경험한 학생에 비해 적지 않으며, 폭력에 대한 태도 역시 다를 바 없다. 즉 피해를 당하기는 하였으나 문제성향이 있는 청소년이다. 이들에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밤에 외출을 삼가라고 교육을 해보아도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결국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대책은 가해자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이라는 좁은 주제에서가 아니라 청소년비행, 너 나아가 청소년문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경찰이 가능한 한 학교폭력 발생을 많이 인지하여야 한다. 둘째는 학교 폭력 발생 상황, 언제 어디서 누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연에 방지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가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구별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도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가. 신고율 제고 방안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딸 수 있듯이 일단 인지한다는 것이 출발이다. 경찰의 자체 단속으로 인한 인지는 사실 쉽지 않다. 특히 우리 나라의 도로 사정이나 경찰의 관행으로 보아 순찰을 통한 인지는 많지 않다. 결국 신고에 의한 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매우 낮다. 물론 신고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피해가 사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생들간의 사소한 폭력이 경찰이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학생들간의 사소한 폭력은 학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낮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개설하는 것이 신고율을 높이는 첩경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사실 신고전화는 지금도 있다. 112 신고전화가 있으며 119도 있다. 신고할 의지만 있다면 동네 파출소에 신고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신고함 설치도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신고전화보다 더 못하다. 신고할 의지가 없는 것이지 신고할 전화나 신고함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신고를 하려하

지 않는가? 피해가 신고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결국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두된다. 본 연구 결과를 보아도 “신고해 보아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막연한 불신과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분명치 않다면, 선불리 신고했다가 본인의 잘못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면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모든 학교주변 폭력이 경찰에 신고된다는 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경찰에 일단 신고되면 경찰은 현행법에 의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심각한 폭력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식처벌을 통한 선도의 효과는 전세계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역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을 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지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학교주변 폭력은 일차적으로 학교 교사에게 신고되어야 하며, 학교 교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경찰과 협조하에서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선도하는 방향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에게는 물론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말하는 학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역시 선불리 말했다가 해결도 되지 못하고 말한 것이 가해학생에게 알려지면 보복만 당할 것 같아 친구에게나 말하고 병어리 냉가슴 앓는 학생이 많아지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도 상담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매우 낮다. 즉 상담교사가 학교에 있다고 해도 학교주변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매우 적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상담교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현재와 같은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의견대로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일반교사가 형식적인 교육을 받은 후 일반 업무(수업이나 기타 잡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단속이나 한다면 그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교사가 상담만 전담한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이 불량학생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상담교사, 즉 무서운 선생님이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며 해결하여주는 고마운 선생

님으로 비워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보인다.

아울러 「학교 폭력 예방 재단」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된다는 것은 경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며, 설사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여도, 예산문제는 물론이고 훈련기관 및 자격여부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실시할 수도 없다. 이러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전문적 상담기관을 육성하여 경찰, 학교, 민간주도 상담기관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단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학부모를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부모 중에서 교육학이나 사회학, 심리학등을 전공한 사람을 자원 봉사의 형태로 상담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아버지 보다는 전업 주부인 어머니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으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어머니들을 대화의 광장이나 YMCA등 상담교육 훈련기관에서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배정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거 상담원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면 각 대학교에서도 훈련과정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만 확보되면 최소한의 시간과 경비로 실시될 수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는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등교육을 받은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홍보와 관리만 잘 되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사료된다. 물론 이러한 일은 성격상 경찰보다는 교육부나 문화체육부에서 관장해야 할 것이나 경찰이 앞장서서 전개해 나감으로 경찰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인다.

현재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담반은 이러한 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만으로 구성될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편 성되어야 한다. 청소년문제는 일종의 뜨거운 감자이다. 가해자 역시 우리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선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담전문가, 청소년문제를 전공한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담반의 성격을 띄울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마약 전담반, 조직폭력 전담반 등 범죄를 소탕한다는 위상으로 학교폭력 전담반이 구성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가능

성이 있다고 본다.

피해 학생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믿고 말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설사 피해가 알려져 가해학생이 알게된다고 하여도 보복만큼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신고전화나 신고함은 아니다. “선불리 말했다가 본전도 찾기 힘들다”면 말할 사람은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나. 순찰 활동의 강화

학교주변 폭력을 위시한 모든 사회문제는 시간과 공간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다. 이러한 장소를 경험적 연구와 기존 사건을 중심으로 밝혀내고 그 장소에 경찰은 물론이며 어떠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상당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상식에서 출발하자.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주변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를 학교내부와 학교외부로 나누어 볼 때, 20:80 정도이다. 다른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하나 많은 경우라고 하여도 40:60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상담자료를 보면 학교내부에서 발생한 폭력이 신고되는 비율이 더 높다. 즉 신고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은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높으나 전반적인 폭력은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생장소만으로 학교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같은 학교 학생이 다른 학생을 학교밖 으속한 장소로 강제로 데려가서 심하게 폭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발생장소만으로 학교 외부의 폭력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아울러 불량씨들의 선배가 후배에게 정기적인 상납을 받은 장소가 학교 밖이라고 하여서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규정한다는 것도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발생장소와 관계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며,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폭력은 발생장소와 관련 없이 학교 내부 폭력이라 규정하여야 한다. 좁은 의미의 학교 외부란 전혀 알지 못하는 불량배한테 금품을 갈취 당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괴롭힘이나 사소한 폭행은 학교 내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으로 학교 내부 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를 누가 일차적으로 담당해야 하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담당할 문제이지 경찰의 힘으로도 어찌하기 힘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 안에서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학교에 따라 다를 것이다. 화장실이나 학교 건물 뒤 후미진 곳은 막연한 장소이다. 학교 교사들이 학교 내부는 물론이고 학교 주변에서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철저히 조사하고 발생하는 시간대를 알아보아 순시를 하는 것이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일반교사들이 교대로 순찰을 돈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학교주변 당구장이나 오락실 만화가게 노래연습실 등에서 피해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여도 그 시간대는 방과 후이며 으스스한 밤에 심각한 피해는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시간대에 교사가 순찰을 돈다는 것은 위험부담 등 문제가 많다. 여기에 경찰이 할 일이 있다고 본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가 주택가 골목길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금품갈취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학교나 집근처 골목길에서 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이 모든 골목길에 배치되어 순찰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부모를 위시한 민간인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웃 나라 일본만 하여도 은퇴한 노인들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의자에 앉아 있음으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이러한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등교길보다는 하교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면,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학교 주변에 우범지역이 있어 상당수의 학생이 지나가야 집으로 갈 수 있는 경우라면 학부모라도 나서서 그 지역에 나가 자녀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경찰과 학교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그러한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앞장선다면 상당한 부분의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학교 당국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지 경찰의 힘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범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폭력을 보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미발간 보고서인 “유해환경과 청소년비행”을 보면 유해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청

소년들이 학교주변의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로 집근처라든지 아니면 소위 유흥가나 우범지역에 있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강고수부지, 대학로를 비롯하여 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이 있다. 아울러 용산 전자상가, 청계천 전자상가 등은 금품갈취를 일삼는 불량청소년에게는 좋은 장소가 된다. 게임이나 기타 컴퓨터와 관련된 물건을 사기 위해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한다. 적어도 게임을 사러 온 학생이라면 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장소에서 불량 음란물, 불량 CD 등이 팔리고 있다면 이러한 장소에 대한 철저한 순찰을 통한 예방은 경찰의 주된 업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학교에 경찰이 상주한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못할뿐더러 그 역효과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를 포함한다면 우리 나라 학교 수가 얼마인데 학교마다 경찰이 상주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경찰 인력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말인가? 물론 본 연구자들은 그러한 면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지 못하나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되나 그 역효과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경찰 인력이 학교에 배치될 때 예상되는 기타 치안문제를 비롯하여, 학교에 경찰이 상주한다는 것이 필요성을 따지기 전에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학교 내부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학교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경찰이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경찰이 개입함으로써 더 문제가 복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일단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순찰을 강화할 곳은 우범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만큼은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학교내부는 물론이고 학교 주변까지도 학교 당국이 주도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여기에 학부모와 경찰이 긴밀한 협조를 이룰 때 그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학교에게 미루고, 학교는 경찰에게, 그러나 경찰은 인력과 기타 여건으로 인하여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관여하

고,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화될 때만 일시적으로 관여하면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마디로 경찰, 학교, 그리고 학부모가 입으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지를 갖고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어느 정도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법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강화와 더불어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의 하나로 요즘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200개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청소년들의 야간 통행을 제한하는 도시는 146개에 달해 70% 이상의 도시가 야간 통행금지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도시를 합하면 1,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야간 통행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도시에 따라 다르다. 가장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를 보면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여름에는 밤 9시, 겨울에는 밤 8시 이후에 통행을 할 수 없게 했으나 대부분 다른 도시에서는 주중에는 11시, 주말에는 자정을 통행금지 시작 시간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 법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를 동반한 청소년이나 학술, 직업, 종교 활동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통행금지 위반 청소년에 대한 제재 역시 도시별로 차이가 있다. 뉴올리언스시에서는 경찰에 적발된 청소년은 “통행금지 위반자 보호소”에 수용되며 부모들은 청소년문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자녀를 데려갈 수 있으며, 한달에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벌금이 최고 5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아리조나 주 피닉스시에서는 위반을 한 청소년은 시에서 운영하는 레크레이션 센터에 수용되며 부모들이 출두하기만 하면 자녀를 데려갈 수 있다. 최근 뉴욕시에서 입안을 고려하고 있는 법안을 보면 최초 적발시에는 25시간, 그 후에는 매번 5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 부모 역시 최초 위반시에는 75달러, 그 후에는 250달러의 벌금을 매번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통행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은 미국에서도 치열하다. 최근 워싱턴의

통행금지법이 연방법원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이 내려져 이 여파가 다른 주에 미칠 파급 효과와 주목되고 있다. 위헌 판결을 내린 설리번 판사는 이 법이 문명사회의 시민에게 허용된 가장 중요한 가치들 가운데 하나인 자유를 강제할 만큼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한편 뉴욕주에서 청소년 통금법안을 제안한 오그니빈 의원은 야간 통금은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으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피해를 감수케 할 수도 있다”는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에서 이 법을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는 야간 통행금지법의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뉴올리언스시를 보면 이 법 시행 후 청소년범죄가 약 27% 가량 줄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비교적 느슨하게 실시하고 있는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약 10% 정도의 청소년범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텍사스 달라스시에서도 94년 5월에 통금법이 시행된 후 청소년범죄가 약 20% 정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작년에는 청소년 강력범죄가 3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법이 시행된다면 학교 주변 폭력을 위시한 청소년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통행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의 기본권인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이외에도 과연 이러한 극한적인 처방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가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미성년자의 유흥장 출입을 제한하는 「미성년자보호법」이 있으며, 「공중위생법」이 있어 여관이나 도박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接客영업이나 음행을 단속하는 「아동복지법」도 있다. 사실 청소년들이 야간 출입을 한다는 자체보다는 출입장소가 더 문제가 된다고 보여진다.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면 주간에도 출입을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반면, 도서관에 출입을 한다면 자정이 넘었다고 하도 문제가 될리 없다. 기존 법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야간통행금지법만을 고집한다면 또하나의 유명무실한 법이 만들어지고 부작용만 증폭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각종 시험 때문에 청소년이 야간에 도서관이나 학원등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소년들과 불량청소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를 비롯하여 성인과 동반한 청소년은 물론 통급법에 저촉되지 않겠으나 항상 부모를 동반할 수도 없다면 학교장이 통행을 허가하는 통행증과 같은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근로 청소년들의 야간 문제 역시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단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허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행금지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연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24세까지도 청소년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소년법에 의하면 20세, 아동복지법은 18세, 공연법과 공중위생법등은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의 대다수가 18세 미만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그 근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행금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미국 뉴올리언스시와 같이 여름에는 9시 겨울에는 8시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는 문제가 있다. 일부 학교에서 고등학생을 위해 야간에 도서실을 개방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원 등을 다니는 학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본다면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자정부터 실시한다면 그 실효성은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한편 종료시간은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되나 이 역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범지역이나 유흥가 등으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통행금지 구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 따르는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국적으로 일시에 실시할 것인가 혹은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엄밀히 검토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볼 수 있다.

1. 연령, 시작 시간, 출입제한 장소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연령은 18세와 20세 미만으로 하되 각기 달리 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8세 미만으로만 규정하였을 때의 문제점은 상당수의 심각한 청소년범죄는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저질러 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세 미만으로 하였을 때는 상당수의 대학생도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유흥가와 우범가는 20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18세 이하는 유흥가와 우범가는 물론이고 기타 지역은 법이나 시행규칙등에 의해 정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시작 시간 역시 우범가나 유흥가는 상당히 심각한 지역은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로 규정할 수도 있는 반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구역은 12시부터 새벽 4시 등으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차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역의 성격, 범죄 발생율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적어도 3등급 정도로 나누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야간통행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장이나 고용주등이 허가하는 경우에 증명서등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청소년의 인권은 물론이며, 학원이나 독서실등을 다닐 필요가 있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시행한다면 지나친 편의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3. 전국적으로 일시에 실시하기 보다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철저히 연구한 후 서울에서 먼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엄밀히 검토하여 보완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법이 시행된다면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고려하면서 시행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법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에 대한 반성 없이 무조건 청소년만 야간에 출입을 무차별적으로 제한할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효과가 크다고 하여도 시행되어서는 안될 악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 가해 가능성 청소년에 대한 예방

본 연구에서도 가해학생의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생활양식, 비행성향, 주위환경, 폭력에 대한 태도 등의 변인과 가해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만으로 경찰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매우 힘들다.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야간에 나온 학생을 그 이유만으로 검문하기도 힘들며, 가능하다고 해도 과연 바람직한가의 문제가 뒤 따른다. 비행성향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아니다. 한편 주위 환경 역시 겉으로 보아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는 학술적인 발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무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러한 발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가해 학생의 이러한 특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주변 폭력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여 경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학교 교사나 부모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 개입되어야 할 심각한 학교폭력은 주로 어떠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경찰은 이러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학교폭력 중 특히 심각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다른 학술적 연구 결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학교내외의 불량씨쿨과 심각한 학교주변 폭력 사이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동일집단 가설의 설명력에 대해서는 누차 언급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교주변 폭력 중 상당수, 특히 심각한 경우는 불량씨쿨에 가입한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씨쿨 선배가 후배를 군기라는 명목 하에 심하게 구타하는 경우도 많으며, 씨쿨 사이에서 세력 다툼으로 인한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선배에게 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심층면접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불량씨쿨은 매우 광범위하며 학교 내부에는 다양한 유형의 집단이 있다. 공식

직으로 씨클 이름이 있고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불량씨클도 있으나 또래집단 성격의 씨클도 있다. 학교 외부 씨클 역시 이와 유사하다. 불량학생들끼리 자주 어울리는 또래집단 성격을 지닌 씨클도 있으며 제법 조직화된 집단도 있다. 이러한 씨클을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기는 하나 경찰과 학교당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제법 조직화된 씨클은 물론이고 조직화되지 않은 또래집단이라고 하여도 학교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누구누구가 가장 문제가 있으며, 어떠한 씨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학교와 경찰의 노력으로 알아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 문제화될 정도로 심각한 학교주변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 적어도 한 편은 이러한 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이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불량씨클에 대한 집중적이 단속과 선도가 대책의 출발고리가 되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소위 “예비검속”의 문제로 비약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이 “적발 후 처벌”이 아니라 “발견 후 선도”라고 한다면, 조금의 부작용이 따른다고 하여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이러한 씨클에 속해 있던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조직폭력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 학교폭력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폭력에 대한 대책 역시 출발고리는 청소년 불량씨클에 대한 대책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가해학생 선도

예방에 실패하면 범죄가 발생한다. 아무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하여도 범죄는 발생한다. 학교주변 폭력 역시 경찰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폭력이 발생한 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성인에 대한 행형도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응보에서 교정으로 변화되어 형정국이 교정국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소년에 대한 행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라는 이념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에 대한 문제와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직으로 씨클 이름이 있고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불량씨클도 있으나 또래집단 성격의 씨클도 있다. 학교 외부 씨클 역시 이와 유사하다. 불량학생들끼리 자주 어울리는 또래집단 성격을 지닌 씨클도 있으며 제법 조직화된 집단도 있다. 이러한 씨클을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기는 하나 경찰과 학교당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제법 조직화된 씨클은 물론이고 조직화되지 않은 또래집단이라고 하여도 학교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누구누구가 가장 문제가 있으며, 어떠한 씨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학교와 경찰의 노력으로 알아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 문제화될 정도로 심각한 학교주변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 적어도 한 편은 이러한 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이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불량씨클에 대한 집중적이 단속과 선도가 대책의 출발고리가 되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소위 “예비검속”의 문제로 비약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이 “적발 후 처벌”이 아니라 “발견 후 선도”라고 한다면, 조금의 부작용이 따른다고 하여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이러한 씨클에 속해 있던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조직폭력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 학교폭력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폭력에 대한 대책 역시 출발고리는 청소년 불량씨클에 대한 대책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가해학생 선도

예방에 실패하면 범죄가 발생한다. 아무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하여도 범죄는 발생한다. 학교주변 폭력 역시 경찰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폭력이 발생한 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성인에 대한 행형도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응보에서 교정으로 변화되어 형정국이 교정국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소년에 대한 행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라는 이념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에 대한 문제와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호는 일차적으로는 경찰의 임무는 아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법무부 보호국이 담당할 문제이다. 그러나 경찰, 청소년체육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 없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더 나아가 학교 당국, 학부모의 적극적 협조 없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현재의 실정을 보자. 선도를 할 의지는 있으나 선도를 할 기관이 거의 없으며, 한두 민간단체가 있기는 하나 소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기관은 거의 없다. 경찰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자들도 효과를 의심할 지경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사들의 강의를 한두번 듣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반성하고 착한 소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너무나 순진하든지 아니면 무책임하든지 중의 하나이다. 역할극 한두번 한 후 선도되기를 기대하는 것, 더 나아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것 등 우리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이 지극히 원초적인 수준에서 하드웨어만 도입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강명령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은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 다이어전이라는 명목하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 없이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방치한다면 일반예방 효과는 물론이고 특별예방 효과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전에는 소년원에 갈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을 형식적으로 받고 풀려난다면, 처벌을 통한 위협 효과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보호위원의 자질이다. 현행보호위원제도는 관에서 위촉을 받은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으로 충원되고 있다. 위촉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자원에 의해 보호위원이 된 위원들의 대부분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위촉받은 위원들을 보면 상당수가 보호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이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형사정책연구원, 1995) 보호관찰 대상 소년들에게 가

장 호감이 가는 위원들은 대학생 보호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보호위원이 선호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해 청소년과 나이가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사실에 더하여 대학생 보호위원들은 성인 보호위원에 비해 열의가 높다는 점이다. 순수한 마음에서 동생과 같은 청소년을 이해하고 돕고자 노력하는 대학생 보호위원들과 보호관찰 대상 소년들은 서로 신뢰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호관찰 제도는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경찰이 가해청소년과 대학생에 결연을 통해 불량학생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Big Brother Big Sister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인다. 대학생 선도위원(?)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의 형태로 모집한다면 그다지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사회사업학, 심리학, 사회학, 가정교육학 등의 전공학생들은 간단한 훈련만으로도 기초적인 선도를 담당할 수 있으며, 학교와 협조하여 이들에게 실습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도프로그램 부재와 더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나라 교육부를 위시한 학교 당국의 관행이다. 학생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걸려들어 문제화되면 그 학교를 떠나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소년원에 가게 되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다. 형태는 자퇴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명퇴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 우리의 알려진 비밀이다. 안에서 새는 타가지 밖에서 새지 말란 법이 없다. 다른 학교에 전학간다고 새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학교의 불량학생과 어울리든지 세력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학교에서도 사고를 치면 그 학교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무조건 수용할 수도 없다.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남의 자식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 수는 많은데 일부 문제 학생이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경우에 전문가도 없는 오늘의 학교 현실에서 무조건 교육적인 원칙만 내세우면서 감싸안으라고 강요만 할 수도 없다. 이들을 수용하여 교육을 전담하는 일종의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의 특수성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전문적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주축을 이룬 특수 학교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소년원의 설립 취지가 바로 이러한 학교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보다는 감호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대기업에서 자금을 지원하나 민간주도의 특수학교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고-자퇴-전학-사고-자퇴-전학”의 악순환이 결국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역할을 경찰이 담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찰 주도하에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선도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는 있을 것이며, 경찰이 주도하는 특수학교가 만들어 질 수는 있다. 경찰이 이러한 운동을 주도할 때 다른 부처에 자극과 영향을 주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개발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경찰에게 부여된 책무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기발한 대책,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지만 실시만 하면 그 효과는 대단한 대책은 없다. 그리고 경찰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대책도 없다. 만일 한두 명의 학자가 몇 개월 연구하여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였다면 본 연구는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주변 폭력은 청소년 문제이며 이는 사회 전 분야에서 진정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의지에 기반한 노력 속에서 조금씩 해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자. 연구업적을 위한 학술조사, 홍보용 대책, 한건주의 정책,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보도만 일삼는 언론 등을 통해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하는 점 이외에 달리 내릴 결론은 없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대책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을 걱정하면서 같이 시작하자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4). 음란물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에 대한 연구
- Akers, R.L.(1977).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Belmont: Wadsworth.
- Becker, H.(1963). *Outsiders*, New York: Free Press.
- Cloward, R. and L. Ohlin,(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Chicago: Free Press.
- Cohen, A.(1955). *Delinquent Boys*, Chicago: Free Press.
- Cornish, D. and R. Clarke.(1986). *The Reasoning Criminals: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on Offending*, New York: Springer-Verlag.
- Elliott, D.S., D. Huizinga, and S. Ageton(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Abuse*, Beverly Hills:Sage.
- Garofalo, J.,(1987). Reassessing the Lifestyle Model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Positive Criminology*, M.R. Gottfredson and T. Hirschi(eds.), Beverly Hills, Sage.
- Gottfredson, M.R. and T. Hirschi(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 Press.
- Gibbs, J.P.(1975).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New York: Elsevier.
- Hirschi, T.(1967).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Jensen, C.F., J.P. Gibbs and M. Erickson(1978). *Perceived Risk of Punishment*

-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Social Forces* 57:57-78.
- Johnson, R.E.(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Cambridge Univ. Press.
- Lemert, E.(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 Merton, R.K.(193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Messner, S.F., M.D. Krohn and A.E. Liska(1989). *Theoretical Integration in the Study of Deviance and Crime*, Albany: Univ. of New York Press.
- Paternoster, R., L. Saltzman, T.G. Chiricos and G.P. Waldo(1983). *Perceived Risk and Social Control*, *Law and Society Review* 17:457-79.
- Sampson, R.J. and W.B. Groves(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774-802.
- Shaw, C.R. and H.D. McKay(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Sutherland, E.H.(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 Tittle, C.R.(1977). *Sanction, Fear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Social Forces* 55:579-96.
- Turk, A.(1969). *Criminality and the Legal Order*, Chicago: Rand McNally.

ABSTRACT

This study starts with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extent and the patterns of the school violence in Korea which turns out to be one of the major social problems Korea confronts these days. Our aims are to understand and predict school disorder so that we may suggest to policymakers and administrators a promising set of practical strategies to cope with delinquency and disruptions in schools.

To meet our goals the present study includes both the victims of the school violence and the juvenile delinquents who molest their school mates. The frame of reference we employ to explain the nature of the school violence is a combined model of both the theori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victimization in the public school such as 'life style theory' and 'equivalent group theory', and Hirsch's famous social control theory based on the bond to the conventional significant other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hich are concluded from the data of a sample of 808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re as follows.

- 1) 37.6%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victimized by at least of the school violence : assault, teasing and plundering.
- 2) About 1/3 the school violence occurred in the school.
- 3) The most of victim did not report their victimization experience to parents or teachers.
- 4) More than half of the victims reported that they had the experience of committing school violence, which supports the equivalent group hypothesis.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the following strategies to counteract the school violence.

- 1) Our public schools need counselors who coordinate the various parties involved in the school violence : the victim and the attackers, their parents, teachers, and the police.
- 2)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police should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the patrol of the areas where the violence frequently occurs.
- 3) The curfew law on juveniles could reduce the school violence, but the exclusive evaluation research should be done before its enactment.

研究報告書 96-17

학교주변 폭력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1996年 12月 日 印刷
1996年 12月 日 發行

發 行 金 本 植
編 輯 治 安 研 所
印 刷 大 韓 文 化 社

기후기갑

000473

〈부록 1〉

— 초등학교 학생용 —

학교주변 환경 조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여러분의 학교주변 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예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이것은 시험이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각 질문을 잘 읽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대답할 때에는 응답란에 동그라미(O) 하면 된답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참! 빠뜨리는 문제가 있으면 안되겠지요?

자,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 볼까요?

1996. 5.

* 다음 같이 대답하면 된답니다.

1. 성별 1) 남자 2) 여자

남자의 경우에는 1)에 동그라미, 여자의 경우에는 2)에 동그라미 해 주세요.

* 잠깐, 주의해야 될 점이예요.

① 한 문제에 하나의 대답만을 골라 동그라미 해주세요.

②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질문은 지시문을 잘 읽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원색의 옷이나 위 아래 같은 색의 옷을 자주 입는다	1	2	3	4
밤에 혼자서 동네 근처를 걸어도 니기도 한다	1	2	3	4
저녁시간에 집 밖에 나가 놀기도 한다	1	2	3	4
친구와 저녁시간에 자주 만난다	1	2	3	4

*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캉과 후나 휴일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 알고 계신다	1	2	3	4

* 다음 질문은 지난 일년 동안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잘 읽고 솔직하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한적 없다	한두번 있었다	가끔 있었다	여러번 있었다
부모님이나 학교에 아무 말없이 결석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집을 나갔다가 부모님께 아무 말없이 밤에 안 들어온 적이 있다	0	1	2	3
선생님에게 대들며 못되게 군 적이 있다	0	1	2	3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밤늦도록 밖에서 놀다가 집에 간 적이 있다	0	1	2	3
다른 사람의 차에 흠집을 내거나 장식품을 뜯은 적이 있다	0	1	2	3
일부러 남의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0	1	2	3
집에 있는 돈이나 물건을 몰래 훔친 적이 있다	0	1	2	3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0	1	2	3
장난 삼아서라도 친구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본 적이 있다	0	1	2	3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3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0	1	2	3

* 본 질문은 (가) 돈이나 물건 빼기, (나) 때리기, (다) 괴롭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 어린이는 '없다'에 표시한 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어린이는 계속해서 응답해 주세요. 질문을 자세히 읽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가. 돈이나 물건 빼기

1.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 밖에서 돈이나 물건(시계, 가방, 운동화, 카세트 등)을 빼앗긴 적이 있나요?
 - 0) 없다 _____ (없는 경우에는 5쪽의 (나) 때리기로 넘어가 주세요)
 - 1) 한 번 있었다
 - 2) 여러 번 있었다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_____ 번)

2. 한 번에 빼앗긴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돈일 경우 _____ () 원

물건일 경우 돈으로 치면 _____ () 원

3. 피해를 여러 번 입은 경우 어린이만 대답해 주세요. 돈(물건)을 빼앗은 사람은?

1) 매번 다른 사람였다

2) 어찌다 같은 사람도 있었다

3) 주로 같은 사람였다

4) 항상 같은 사람였다

4. 돈이나 물건을 뺏긴 그 때를 생각하면서 대답해 주세요.

(4-1) 돈(물건)을 뺏은 사람이 칼이나 막대기 등과 같은 흉기를 가지고 있었나요?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4-2) 어디에서 돈(물건)을 빼앗겼나요?

1) 교실 안

2) 학교 화장실

3) 학교 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

4) 학교 근처 큰 길

5) 학교 근처 골목길

6) 학원, 독서실

7) 패스트 푸드집, 24시간 편의점, 분식집

8) 만화가게, 전자 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9) 롤러 스케이트장, 당구장

9) 주택가 거리

10) 주택가 골목길

11) 변화한 거리 (대학로, 종로, 청계천 전자상가 주변, 용산 전자 상가 등)

12) 유원지, 공원, 고수부지

13) 지하철역, 지하도안, 버스 정류장, 기차역, 육교아래

14) 극장

15) 기타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_____)

(4-3) 언제 돈(물건)을 빼앗겼나요?

1) 등교길에서

2) 학교에 있는 동안

3) 하교길에서

4) 방과 후 밤에

(4-4) 돈(물건)을 주중에 빼앗겼나요, 주말이나 공휴일이었나요?

1) 주중이었다

2) 주말이나 공휴일이었다

(4-5) 돈(물건)을 빼앗은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5-2) 어디에서 돈(물건)을 빼앗겼나요?

- 1) 교실 안 2) 학교 화장실 3) 학교 내 건물 뒤편 후미진 곳
 4) 학교 근처 큰 길 5) 학교 근처 골목길 6) 학원, 독서실
 7) 패스트 푸드집, 24시간 편의점, 분식집
 8) 만화가게, 전자 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9) 롤러 스케이트장, 당구장
 10) 주택가 거리 11) 주택가 골목길
 12) 번화한 거리 (대학로, 종로, 청계천 전자상가 주변, 용산 전자 상가 등)
 13) 유원지, 공원, 고수부지
 14) 지하철역, 지하도안, 버스 정류장, 기차역, 육교아래
 15) 극장 15) 기타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_____)

(5-3) 언제 돈(물건)을 빼앗겼나요?

- 1) 등교길에서 2) 학교에 있는 동안 3) 하교길에서
 4) 방과 후 밤에

(5-4) 돈(물건)을 주중에 빼앗겼나요, 주말이나 공휴일이었나요?

- 1) 주중이었다 2) 주말이나 공휴일이었다

(5-5) 돈(물건)을 빼앗은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 1) 1명 2) 2명 - 4명 3) 5명 이상

(5-6) 누구같이 보였나요?

- 1) 같은 반 아이 2) 나보다 나이 많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
 3) 다른 반 아이 4) 다른 학교 내 또래
 5) 나보다 나이 많은 다른 학교 다니는 사람 6) 동네 또래
 7) 나보다 나이 많은 동네 사람 8) 모르겠다

다. 괴롭히기

1.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학교안에서 괜히 놀리고, 건드리고, 숙제를 시키는 등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힌 적이 있나요?

- 0) 없다 _____ 없는 경우에는 6쪽의 신고의식 문항으로 넘어가 주세요

- 1) 있었다
2. 주로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나요? 해당란에 모두 동그라미 해 주세요.
 - 1) 특별한 이유 없이 놀려댔다 2)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렸나
 - 3) 광연히 툭툭치며 괴롭혔다 4) 심부름을 시켰다
 - 5) 자기 가방이나 물건을 들고 가라고 했다
 - 6) 시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7) 숙제를 해달라고 했다
 - 8) 기타 (자세히 적어 주세요 _____)
3. 괴롭힘을 어느 정도로 심하게 당했나요?
 - 1) 별거 아니었다 2) 신경이 좀 쓰였다 3) 참기 좀 힘들었다
 - 4) 참기 상당히 힘들었다 5) 참기 매우 힘들었다
4. 괴롭힘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한두번 3) 한달에 서너번
 - 4) 한달에 한두번 5) 두세달에 한두번
5. 괴롭힌 사람은 누구인가요?
 - 1) 같은 반 또래 2) 다른 반 또래 3)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
6. 같은 사람이 괴롭히나요?
 - 1) 항상 같은 사람이다 2) 주로 같은 사람이다 3) 거의 같은 사람이다
 - 4) 항상 다른 사람이다 5) 일정치 않다
7. 몇 명이 괴롭히나요?
 - 1) 1명 2) 두세네명 정도
 - 3) 5명 이상 4) 일정치 않다
7. 언제 주로 괴롭히나요?
 - 1) 수업 시간 사이 쉬는 시간에 2) 점심 시간에 3) 자율학습 시간에
 - 4) 청소 시간에 5) 학교가 끝난 후에

7.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별일 아니라서
- 2) 알려봤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3)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서
- 4) 공연히 경찰이 두려워서
- 5) 신고를 하면 오라가라 할까봐 귀찮아서
- 6)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알려지면 더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돈 빼길까봐 두려워서

8. 여러분은 경찰 아저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경찰을 만나면 편안한 느낌이 든다	1	2	3	4
경찰을 만나면 가까운 느낌이 든다	1	2	3	4
경찰을 만나면 친근한 느낌이 든다	1	2	3	4
경찰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1	2	3	4
경찰을 만나면 공연히 두렵다	1	2	3	4

* 다음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응답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그렇지 않 다	대체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앞으로 매를 맞거나 돈, 물건 등을 빼앗긴다면 경찰에게 신고할 것이다	1	2	3	4
앞으로 매를 맞거나 돈, 물건 등을 빼앗긴다면 선생님에게 말씀드릴 것이다	1	2	3	4
앞으로 매를 맞거나 돈, 물건 등을 빼앗긴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1	2	3	4

만일 친한 친구가 피해를 당한다면 나 라도 알릴 것이다	1	2	3	4
경찰에 신고전화나 신고함이 있다면 신 고할 것이다	1	2	3	4
학교에 신고전화나 신고함이 따로 설치 된다면 신고할 것이다	1	2	3	4
신고해서 해결만 된다면 신고할 것이다	1	2	3	4
보복이 없다면 신고할 것이다	1	2	3	4

* 다음 질문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1. 여러분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1) 남자

2) 여자

2. 여러분은 키가 얼마나 되나요?

1) 작은 편이다

2) 중간이다

3) 큰 편이다

3. 여러분은 체중이 얼마나 되나요?

1) 마른 편이다

2) 보통이다

3) 뚱뚱한 편이다

4. 몇 학년인가요?

1) 4학년

2) 5학년

3) 6학년

5. 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1) 강 남

2) 강 북

6. 부모님이 계신가요?

1) 부모님 모두 계신다

2) 아버지만 계신다

3) 어머니만 계신다

4) 부모님 모두 안계신다

7. 공부는 어느 정도 하나요?

1) 아주 잘한다

2) 잘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좀 못하는 편이다

5) 아주 못한다

* 다음은 여러분의 등하교길 주변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교주변에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술집 등의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2. 등하교시 걸어가는 도중에 유흥가(술집이 모여있는 곳)나 기타 우범지역을 지나갑니까?
 (1) 지나가지 않는다 (2) 지나간다
3. 등하교 길에 주로 누구와 함께 다닙니까?
 (1) 주로 혼자 다닌다 (2) 주로 친구들과 함께 다닌다
 (3) 주로 집안식구와 함께 다닌다 (4) 기타_____

* 다음은 여러분의 용돈에 관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1. 한달 용돈은 대략 얼마입니까?
 (1) 5천원 미만 (2) 5천원 이상 만원 미만
 (3) 만원 이상 만 5천원 미만 (4) 만 5천원 이상 2만원 미만
 (5) 2만원 이상 3만원 미만 (6)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7)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 (8)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9) 10만원 이상 _____ 구체적으로 ()원

* 이번 질문은 평상시 여러분의 옷차림과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답란에 동그라미 해 주세요.

	전 혀 그렇지않다	가 끄 그렇다	자 주 그렇다	항 상 그렇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특이한 옷차림을 하기도 한다	1	2	3	4
유명메이커의 옷을 자주 입는다	1	2	3	4

유행하는 옷을 자주 입는 편이다	1	2	3	4
원색의 옷이나 위 아래 같은 색의 옷을 자주 입는다	1	2	3	4
밤에 혼자서 동네 근처를 걸어다니기도 한다	1	2	3	4
저녁시간에 집 밖에 나가 놀기도 한다	1	2	3	4
친구와 저녁시간에 자주 만난다	1	2	3	4

*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방과 후나 휴일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관한 것입니다. 잘 읽고 답란에 동그라미로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	1	2	3	4

* 친구와 학교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 친한 친구 중 학교에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경찰에 붙잡혀 간 친구가 있습니까?

- (1) 없다 (2) 1명 (3) 2명 (4) 3명
 (5) 4명 (6) 5명 이상

2. 당신은 학교에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2) 1번 (3) 2번 (4) 3번
(5) 4번 (6) 5번 이상

3. 학교안에 폭력씨클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없다 (2) 1--2개 (3) 3--5개 (4) 6개 이상

4. 폭력씨클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2) 있다

* 다음 질문은 지난 일년 동안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잘 읽고 솔직하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한적 없다	한두번 있었다	가끔 있었다	여러번 있었다
술을 마신 적이 있다	0	1	2	3
담배를 핀 적이 있다	0	1	2	3
미성년자 출입 불가인 카페나 술집에 가본 적이 있다	0	1	2	3
미성년자 출입 불가인 디스코장에 가본 적이 있다	0	1	2	3
당구장에 가본 적이 있다	0	1	2	3
비디오방에 가본 적이 있다	0	1	2	3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가출한 적이 있다	0	1	2	3
선생님에게 대들며 반항한 적이 있다	0	1	2	3
다른 사람의 차에 흠집을 내거나 장식 품을 뜯은 적이 있다	0	1	2	3
고의로 남의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0	1	2	3
고의로 공공기물(공중전화, 쓰레기통, 유리창 등)을 부순 적이 있다	0	1	2	3

집에 있는 돈이나 물건을 몰래 훔친 적이 있다	0	1	2	3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0	1	2	3
장난 삼아서라도 친구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본 적이 있다	0	1	2	3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예 : 뺑뺑기, 강제로 빌려달라기)	0	1	2	3
괘싸움을 해본 적이 있다	0	1	2	3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0	1	2	3
흥기를 갖고 다닌 적이 있다	0	1	2	3

* 학교주변 폭력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가. 금품갈취, 나. 폭행, 다. 괴롭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 응답자는 '없다'에 표시한 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세부 항목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세요. 질문을 자세히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가. 금품갈취

-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학교안이나 밖에서 돈이나 물건(시계, 가방, 운동화, 카세트 등)을 빼앗긴 적이 있나요?
 0) 없다 _____ (없는 경우에는 page 6의 나. 폭행 으로 넘어가 주세요)
 1) 한 번 있었다
 2) 여러 번 있었다 (구체적으로 _____ 번)
- 한 번에 빼앗긴 액수는 얼마인가요?
 돈일 경우 _____ (_____) 원

물건일 경우 돈으로 치면 _____ () 원

3. 피해를 여러번 입은 경우에만 응답해 주세요. 돈(물건)을 빼앗은 사람은?

- 1) 매번 다른 사람였다 2) 어쩌다 같은 사람도 있었다
3) 주로 같은 사람였다 4) 항상 같은 사람였다

4. 금품갈취를 당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4-1) 상대방이 폭력 써클에 속해 있나요?

- 1) 모르겠다 2) 그런 것 같다 3) 확실히 그렇다

(4-2) 상대방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나요?

-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4-3) 상대방이 흥기를 가지고 있었나요?

-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4-4) 언제 피해를 입었나요?

- 1) 등교길에서 2) 학교에 있는 동안 3) 하교길에서
4) 방과 후 밤에

(4-5) 피해를 입은 날은 언제였나요?

- 1) 주중이었다 2) 주말이나 공휴일이었다

(4-6)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였나요?

- 1) 교실 안 2) 학교 화장실 3) 학교 내 건물 뒤편 후미진 곳
4) 학교 근처 큰 길 5) 학교 근처 골목길 6) 학원, 독서실
7) 패스트 푸드집, 24시간 편의점, 분식집
8) 단화가게, 전자 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9) 롤러 스케이트장, 당구장
10) 디스코장, 락카페 11) 커피 전문점, 카페 12) 소주방, 술집, 호프집
13) 주택가 노상 14) 주택가 골목길
15) 변화한 노상 (대학로, 종로, 청계천 전자상가 주변, 용산 전자 상가 등)
16) 유원지, 공원, 교수부지
17) 지하철역, 지하도안, 버스 정류장, 기차역, 육교아래
18) 극장, 콘서트장, 공연장 19) 기타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_____)

(4-7) 상대방은 몇 명이었나요?

- 1) 1명 -----> 5번 문항으로 가서 답해 주세요.
- 2) 2명 - 4명 } -----> 6번 문항으로 가서 답해 주세요.
- 3) 5명 이상 }

5. 상대방이 한 명일 경우에 응답해 주세요.

(상대방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6번으로 가 주세요)

(5-1) 상대방의 성별은?

- 1) 남자
- 2) 여자

(5-2) 상대방은 누구였나요?

- 1) 같은 반 학생
- 2) 같은 학교 선배
- 3) 다른 반 학생
- 4) 다른 학교 동급생
- 5) 다른 학교 선배
- 6) 동네 동년배
- 7) 동네 선배
- 8) 모르겠다

(5-3) 상대방은 아는 사람였나요?

- 1) 잘안다
- 2) 약간 아는 사람이다
- 3) 얼굴만 아는 사람이다
- 4) 전혀 모른다

6. 상대방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 응답해 주세요.

5번 문항에 응답하신 분은 나. 폭행으로 넘어가 주세요.

(6-1) 상대방의 성별은?

- 1) 전부 남자
- 2) 전부 여자
- 3)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다
- 4) 모르겠다

(6-2) 상대방은 누구였나요?

- 1) 같은 반 학생
- 2) 같은 학교 선배
- 3) 다른 반 학생
- 4) 다른 학교 동급생
- 5) 다른 학교 선배
- 6) 동네 동년배
- 7) 동네 선배
- 8) 모르겠다

(6-3) 상대방은 아는 사람였나요?

- 1) 모두 아는 사람이다
- 2) 모두 모르는 사람이다
- 3) 그중 몇 명만 아는 사람이다
- 4) 기억이 나지 않는다

(6-4)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인가요?

- 1) 잘안다
- 2) 약간 아는 사람이다
- 3) 얼굴만 아는 사람이다

나. 폭행

1.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학교안이나 밖에서 누군가가 돈이나 물건과는 상관없이 시비를 걸며 때린 적이 있나요?
 - 0) 없다 _____ (없는 경우에는 page 8의 다. 괴롭힘 으로 넘어가 주세요)
 - 1) 한 번 있었다
 - 2) 여러 번 있었다 (구체적으로 _____ 번)

2.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나요?
 - 1) 외상이 없었다 2) 외상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 3)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외상이 있었다 4) 입원할 정도였다

3.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 1) 없다 2) 통원 치료를 받았다 3) 입원을 했었다

4. 피해를 여러번 입은 경우에만 응답해 주세요. 폭행을 한 사람은?
 - 1) 매번 다른 사람였다 2) 어찌다 같은 사람도 있었다
 - 3) 주로 같은 사람였다 4) 항상 같은 사람였다

5. 폭행을 당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 (5-1) 상대방이 폭력 씨름에 속해 있나요?
 - 1) 모르겠다 2) 그런 것 같다 3) 확실히 그렇다
 - (5-2) 상대방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나요?
 -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 (5-3) 상대방이 흥기를 가지고 있었나요?
 -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 (5-4)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였나요?
 - 1) 교실 안 2) 학교 화장실 3) 학교내 건물 뒤나 후미진곳
 - 4) 학교 근처 큰 길 5) 학교 근처 골목길 6) 학원, 독서실
 - 7) 패스트 푸드집, 24시간 편의점, 분식집
 - 8) 만화가게, 전자 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9) 롤러 스케이트장, 당구장
 - 10) 디스코장, 락카페 11) 커피 전문점, 카페 12) 소주방, 술집, 호프집

- 13) 주택가 노상 14) 주택가 골목길
- 15) 변화한 노상 (대학로, 종로, 청계천 전자상가 주변, 용산 전자 상가 등)
- 16) 유원지, 공원, 고수부지
- 17) 지하철역, 지하도안, 버스 정류장, 기차역, 육교아래
- 18) 극장, 콘서트장, 공연장 19) 기타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_____)

(5-5) 언제 피해를 입었나요?

- 1) 동교길에서 2) 학교에 있는 동안 3) 하교길에서
- 4) 방과 후 밤에

(5-6) 피해를 입은 날은 언제였나요?

- 1) 주중이었다 2) 주말이나 공휴일이었다

(5-7) 상대방은 몇 명이었나요?

- 1) 1명 -----> 6번 문항으로 가서 답해 주세요.
- 2) 2명 - 4명] -----> 7번 문항으로 가서 답해 주세요.
- 3) 5명 이상]

6. 상대방이 한 명일 경우에 응답해 주세요.

(상대방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7번으로 가 주세요)

(6-1) 상대방의 성별은?

- 1) 남자 2) 여자

(6-2) 상대방은 누구였나요?

- 1) 같은 반 학생 2) 같은 학교 선배 3) 다른 반 학생 4) 다른 학교 동급생
- 5) 다른 학교 선배 6) 동네 동년배 7) 동네 선배 8) 모르겠다

(6-3) 상대방은 아는 사람였나요?

- 1) 잘안다 2) 약간 아는 사람이다 3) 얼굴만 아는 사람이다 4) 전혀 모른다

7. 상대방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 응답해 주세요.

6번 문항에 응답하신 분은 나. 괴롭힘 으로 넘어가 주세요.

(7-1) 상대방의 성별은?

- 1) 전부 남자 2) 전부 여자 3)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다 4) 모르겠다

(7-2) 상대방은 누구였나요?

- 1) 같은 반 학생 2) 같은 학교 선배 3) 다른 반 학생 4) 다른 학교 동급생
5) 다른 학교 선배 6) 동네 동년배 7) 동네 선배 8) 모르겠다

(7-3) 상대방은 아는 사람였나요?

- 1) 모두 아는 사람이다 2) 모두 모르는 사람이다
3) 그중 몇 명만 아는 사람이다 4) 기억이 나지 않는다

(7-4)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인가요?

- 1) 잘안다 2) 약간 아는 사람이다 3) 얼굴만 아는 사람이다

다. 괴롭힘

1.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학교안에서 괜히 놀리고, 건드리고, 숙제를 시키는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나요?

- 0) 없다 --- 없는 경우에는 page 9의 신고의식 문항으로 넘어가 주세요
1) 있었다

2. 주로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나요? 해당란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1) 특별한 이유 없이 놀려댔다 2) 친구들과 사이에서 따돌렸다
3) 공연히 툭툭치며 괴롭혔다 4) 심부름을 시켰다
5) 자기 가방이나 물건을 들고 가라고 했다
6) 시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7) 숙제를 해달라고 했다
8) 기타 (자세히 적어 주세요_____)

3. 어느 정도의 괴롭힘을 당했나요?

- 1) 별거 아니었다 2) 신경이 좀 쓰였다 3) 참기 좀 힘들었다
4) 참기 상당히 힘들었다 5) 참기 매우 힘들었다

4. 얼마나 자주 이러한 괴롭힘을 당했나요?

-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한두번 3) 한달에 서너번
4) 한달에 한두번 5) 두세달에 한두번

8. 본 질문은 경찰에 대한 태도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경찰을 만나면 편안한 느낌이 든다	1	2	3	4
경찰을 만나면 가까운 느낌이 든다	1	2	3	4
경찰을 만나면 친근한 느낌이 든다	1	2	3	4
경찰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1	2	3	4
경찰을 만나면 공연히 두렵다	1	2	3	4

* 다음은 폭력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학교 폭력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1	2	3	4
학교 폭력이 매우 심각하다	1	2	3	4
학교 폭력 때문에 불안하다	1	2	3	4
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	1	2	3	4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1	2	3	4
폭력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1	2	3	4
사람간에 말이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란 별로 없다	1	2	3	4
말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1	2	3	4
많은 경우에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1	2	3	4
사소한 일은 폭력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1	2	3	4

* 이번 질문은 학교폭력 예방방안에 관한 문항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다면 학교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1	2	3	4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순시를 한다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1	2	3	4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등하교길에 순찰을 한다면 학교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1	2	3	4
학교에서 수시로 조사를 한다면 학교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1	2	3	4
시험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괴롭히는 것과 같은 폭력은 예방될 것이다	1	2	3	4
경찰이 학교에 상주한다면 학교폭력은 예방될 것이다	1	2	3	4
경찰이 학교주변을 순찰한다면 학교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1	2	3	4
학교에 신고함이 있다면 학교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1	2	3	4
경찰에 신고전화기가 있다면 학교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1	2	3	4

* 다음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응답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앞으로 매를 맞거나 돈, 물건 등을 빼앗긴다면 경찰에게 신고할 것이다	1	2	3	4
앞으로 매를 맞거나 돈, 물건 등을 빼앗긴다면 선생님에게 말씀드릴 것이다	1	2	3	4
앞으로 매를 맞거나 돈, 물건 등을 빼앗긴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1	2	3	4
만일 친한 친구가 피해를 당한다면 나도 알릴 것이다	1	2	3	4
경찰에 신고전화나 신고함이 있다면 신고할 것이다	1	2	3	4
학교에 신고전화나 신고함이 따로 설치된다면 신고할 것이다	1	2	3	4
신고해서 해결만 된다면 신고할 것이다	1	2	3	4
보복이 없다면 신고할 것이다	1	2	3	4

* 다음 질문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신장 _____ cm
3. 체중 _____ kg

4. 어디에 재학중이십니까?
 - 1) 중학교 1학년 2) 중학교 2학년 3) 중학교 3학년
 - 4) 고등학교 1학년 5) 고등학교 2학년 6) 고등학교 3학년

5. 학교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남학교 2) 여학교 3) 남녀공학

6.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응답해 주세요.
 - (6-1)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 다음 어느 유형에 해당합니까?
 - 1) 인문계 2) 실업계 3) 기타 _____
 - (6-2)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 1) 주 간 2) 야 간

7. 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1) 강 남 2) 강 북

8. 당신은 지난 학년에 반(학급)에서 몇 등 정도 했습니까?
 - 1) 1 - 5등 2) 6 - 10등 3) 11 - 15등 4) 16 - 20등
 - 5) 21 - 25등 6) 26 - 30등 7) 31 - 35등 8) 36 - 40등
 - 9) 41 - 45등 10) 46 - 50등 11) 50 - 55등 12) 56등 이하

9. 부모님이 계십니까?
 - 1) 부모님 모두 계신다 2) 아버지만 계신다
 - 3) 어머니만 계신다 4) 부모님 모두 안계신다

10. 아버지의 학력(교육정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무학 2) 국민학교 중퇴 혹은 졸업 3)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4)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5)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6) 대학원 이상

11. 어머니의 학력(교육정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무학 2) 국민학교 중퇴 혹은 졸업 3)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4)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5)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6) 대학원 이상

12. 아버지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무직
2) 단순 노동 (일일 잡역부, 소규모 농업)
3) 반숙련직 (이발사, 요리사, 수금원, 상점점원, 농업)
4) 숙련직 (숙련 기능공, 목수, 작업반장, 집배원, 운전기사)
5) 판매직 (소도매상, 부동산 중개업, 소규모 자영업자, 가게주인, 개인택시 운전)
6) 사무직 (회사일반사원, 위관급장교, 6.7.8.9급 공무원, 국민학교 교사)
7) 관리직 (중소.대기업의 과장, 부장급, 영관급장교, 4.5급 공무원, 소규모 기업주, 중.고등학교 교사, 고급기사)
8) 전문직 (대기업주, 의사,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교수, 장성급 군인, 예술가, 언론인, 대기업 이사급)
9) 기 타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 _____)

13. 어머니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주부
2) 단순 노동 (일일 잡역부, 소규모 농업)
3) 반숙련직 (이발사, 요리사, 수금원, 상점점원, 농업)
4) 숙련직 (숙련 기능공, 목수, 작업반장, 집배원, 운전기사)
5) 판매직 (소도매상, 부동산 중개업, 소규모 자영업자, 가게주인, 개인택시 운전)

- 6) 사무직 (회사일반사원, 위관급장교, 6.7.8.9급 공무원, 국민학교 교사)
- 7) 관리직 (중소.대기업의 과장, 부장급, 영관급장교, 4.5급 공무원, 소규모 기업주, 중.고등학교 교사, 고급기사)
- 8) 전문직 (대기업주, 의사,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교수, 장성급 군인, 예술가, 언론인, 대기업 이사급)
- 9) 기 타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 _____)

14. 가족의 한달 평균 총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 3)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5)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6)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 7)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8) 300만원 이상

* 빠뜨린 분항이 없나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